발간등록번호 11-1370104-000003-08

ISSN 1011-2073

도서관

제62권 제2호 (통권 제379호) 2007. 12

윤동원 定齋 柳治明의 生涯와 『坪上及門諸賢錄』에 관한 硏究

최미순 법조인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연구동향 고찰

헤스터 마라이스 저 · 신용주 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협동목록에 관하여

조미아 한국의 '한 책, 한 도시' 운동에 대한 고찰 : 서울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을 중심으로

김선미 · 이인영 대학도서관 온라인 패스파인더 구축에 관한 연구

〈자 료〉

제11회 한 · 중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주제발표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제62권 제2호 (통권 제379호)

2007년 12월(하반기)

定齋 柳治明의 生涯와 『坪上及門諸賢錄』에 관한 硏究 / 윤동원 1

법조인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연구동향 고찰 / 최미순 25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협동목록에 관하여 / 헤스터 마라이스 저·신용주 역 54

한국의 '한 책, 한 도시' 운동에 대한 고찰 / 조미아 78
: 서울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을 중심으로

대학도서관 온라인 패스파인더 구축에 관한 연구 / 김선미·이인영 114

〈자 료〉

제11회 한·중 국립도서관 업무교류 주제발표 139

편찬위원장 : 이승진

편 찬 위 원 : 박성기·김성희·김영석·유사라·윤정옥·이상복·리상용·최희윤
여위숙·이귀원

DOSEOGWAN

Vol.62 No.2 (379) December 2007

A Study on the Directory of Scholarly Figures
: Pyeongsang Geupmun Jehyeonrok Yun Dongwon *1*

A Review of the Research Trends on th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Legal Professionals Choi Misoon *25*

Co-operative Cataloguing in South Afric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Gauteng and Environs Library Consortium (GAELIC)
Hester Marais · tr. by Sin Yongju *54*

An Analysis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 Focus on 'One Library, One Book in Seoul' Cho Miah *78*

A study on building an online pathfinders for academic libraries
Kim Sunmi, Lee Inyoung *114*

<Reference>
The 11th exchange program of Librarian between NLK and NLC *139*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定齋 柳治明의 生涯와 『坪上及門諸賢錄』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Directory of Scholarly Figures : Pyeongsang Geupmun Jehyeonrok

윤 동 원(Yun Dongwon)[1)]

목 차

1. 머리말
2. 定齋의 生涯와 學問活動
2.1 生涯
2.2 學問活動
3. 「坪上及門諸賢錄」의 發見과 書誌
4. 「坪上及門諸賢錄」의 編成體制
5. 「坪上及門諸賢錄」의 分析
5.1 居住別 門人分布
5.2 姓氏別 門人分布
5.3 科擧 合格者 數와 官職
5.4 師承關係
6. 맺음말

〈 초 록 〉

이 연구에서는 퇴계 학맥의 중심에 있었던 정재 류치명의 문인록인 「坪上及門諸賢錄」을 분석한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문인록이 편찬되었으나 이번에 발견된 「坪上及門諸賢錄」의 수록 문인수는 어느 문인록 보다 많은 545명으로 확인되었다.

이 「坪上及門諸賢錄」은 원래 문중에서 家傳되어 오던 필사본을 누군가 다시 베껴 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坪上及門諸賢錄」에는 문인들을 연령순으로 배열하고 문인들의 성명・자・호・본관・혈족관계・거주지・생년・과거・사승관계・문집유무・저술관계・만사와 제문 등이 기본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坪上及門諸賢錄」의 분석 결과 퇴계 학맥을 계승한 문인들의 성격을 알 수 있었음은 물론, 안동 일대의 영남 유림을 조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1) 안동대학교 도서관 사서(dwyun@andong.ac.kr)

기대한다. 그러나 「坪上及門諸賢錄」의 연구만으로는 문인록에 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 여타의 문인록에 수록된 자료에서 더 많은 사실과 의미를 밝혀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주제어 : 정재, 류치명, 평상급문제현록, 문인록, 퇴계학파, 정재학파.

〈 Abatracts 〉

This study has analyzed the directory of scholarly figures owned by Ryu Chimyeong with a pen name of Jeong Jae. He was a central figure in the academic line of Toigye (Lee Hwang). Up to now, a number of directories compiled have been discovered, out of which this one includes the largest number of figures. 545 scholars are confirmed to be listed on this directory.

This directory is thought to have been recopied from the copy handed down by a famil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s for the recording style of this directory, the figures are arranged by age, and their individual formal names, names in childhood, pen names, family origins, blood relations, residences, birth year, national exam passing, relationship between masters and disciples, literary journal keeping, publications, funeral odes, and passages for memorial services are written.

The result of analyzing the directory is as follows. It has brought to light the characters of the scholars who succeeded to the academic line of Toigye. It is expected to illuminate the Confucian scholars in Andong of the Yeongnam area. However, this study of the directory is not enough. There remain a lot of facts and significance to be studied on the base of the resources from the directory.

Key Words : Jeongjae, Ryu Chimyeong, Pyeongsang-Geupmun- Jehyeonrok, A Directory of Scholarly Figures, Toigye School, Jeongjae School.

1. 머리말

조선의 확고한 정치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성리학은 영남학파, 특히 이황을 정점으로 하는 퇴계학파에 의해 계승·심화되었는데, 당시 그들의 언행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퇴계학파 연구는 조선중기 이후의 역사와 문화, 사상, 정치를 이해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학계의 관심은 퇴계를 비롯한 몇몇 巨儒들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 학자들의 학문적 업적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2)]

대개 門人錄 및 師友錄은 16~17세기부터 저술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저술들은 도통의 흐름을 정리하기 위한 道學淵源錄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3)]

지금까지 편찬된 사우록 및 급문록을 살펴보면 朴世采의 『東儒師友錄』, 金東鎭의 『貞山及門錄(507명)』, 李滉의 『陶山及門諸賢錄(309명)』, 鄭逑의 『檜淵及門諸賢錄(342명)』, 李象靖의 『高山及門錄(173명)』, 許傳의 『泉及門錄(495명)』, 宋時烈의 『華陽淵源錄(958명)』, 朴成陽의 『芸窓朴先生門人錄』, 李玄逸 의 『錦陽及門錄(358명)』등이 있다.

『坪上及門諸賢錄』은 定齋 柳致明의 문인록으로 여기에 수록된 545명은 그가 평생에 걸쳐 가르친 제자들이다. 이 문인록에는 개개인에 관한 많은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문인들의 성명·자·호·본관·생년·과거·관력·사승관계 등을 밝히고 있어 문인록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이들 집단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문인록이 이들 집단의 전모를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 실상에 접근할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인록의 분석은 매우 흥미 있고 중요한 사료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재의 학문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그의 가계와 생애를 살펴보고 문인록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문인록의 분석에서는 문인록의 발견경위와 서지사항, 수록된 문인들의 거주지별 분포, 성씨별 문인 분포(혈족관계 포함), 과거합격자 수와 관직, 사승관계 등을 살펴보고 문인들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500명이 넘는 문인들을 고찰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계량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

2) 金建來, 2002「慕堂 孫處訥 硏究 : 생애와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1쪽.

3) 김종석, 1999「도산급문제현록과 퇴계 학통 제자의 범위」,『퇴계문하 6철의 삶과 사상』,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1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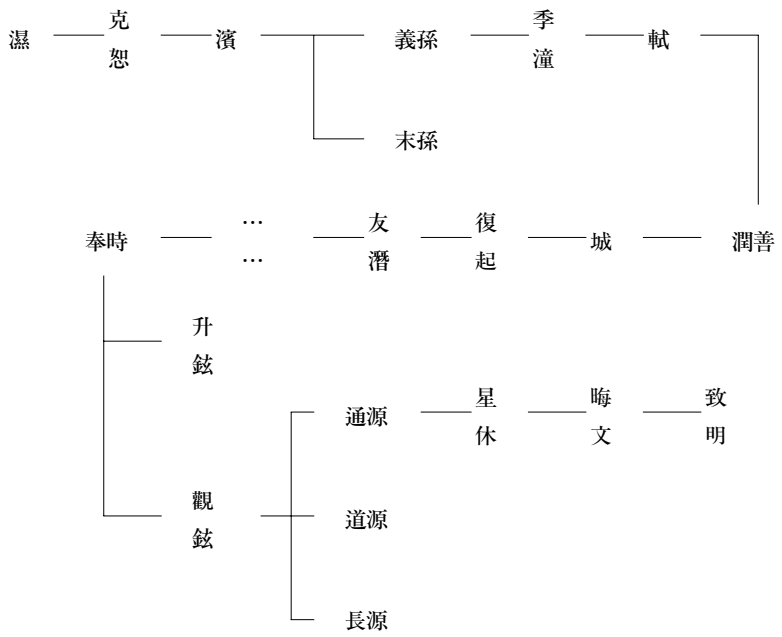
2. 定齋의 生涯와 學問活動

2.1 生涯

한 사람의 자취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가계 및 생애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재의 가계와 생애를「행장」과「연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것을 중심으로 그가 지향했던 삶의 방향과 학문적 경향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정재의 가계는 그가 직접 지은 〈先考(晦文)成均進士府君家狀〉[4]에 자세하게 밝혀져 있다.

〈定齋家系圖〉



이 가계도에 보이는 인물을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5]

・濕 : 完山伯. 다섯 아들 모두 문과에 급제하였다.

4)『定齋先生文集』卷之 35,「行狀」, 아버지인 晦文의 행장이다.

5) 尹天根, 1998「柳致明의 인물과 학문사상」,『嶺南學派의 硏究』, 慶尙北道. 535-536쪽

- 克恕 : 보문관 직제학을 지냈다.
- 濱 : 조선왕조에서 직제학을 지냈다.
- 義孫 : 호는 檜軒. 집현전 제학을 지냈다. 단종이 퇴위하자 벼슬을 버리고 물러나 전주 黃方山 속에 笑臥亭을 짓고 지내가다 그곳에서 타계하였다. 아들이 없어 아우 말손의 중자 季潼이 후사를 이었다.
- 季潼 : 증직으로 도승지를 지냈다.
- 軾 : 홍문관 전한을 지냈다.
- 潤善 : 引儀를 지냈다. 집을 한양의 墨寺洞에서 榮川(榮州)으로 옮겼다.
- 城 : 증직으로 사복시 정을 지냈다. 증직 판서인 金璡의 여식이며, 학봉 김성일의 누이인 의성김씨를 부인으로 맞았다.
- 復起 : 호는 岐峯. 예빈시 정을 지냈고, 증직으로 좌승지에 제수되었다. 외가에서 양육되었으므로 집을 안동 水谷으로 옮겼다.
- 友潛 : 호는 陶軒.
- 奉時 : 우잠의 3대 후손, 두 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집을 한적한 渭洞으로 옮겼다. 승현과 관현 형제를 나았는데, 정재의 가계는 아우인 관현 쪽과 연결된다.
- 觀鉉 : 호는 陽坡. 형조참의를 지냈다. 이 때부터 大坪里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통원, 도원, 장원 등 세 아들을 두었다. 정재의 가계는 통원과 연결된다. 도원은 백부 승현에게 양자를 간다.
- 通源 : 호는 范溪. 僕正公으로 불린다.
- 星休 : 성균 생원. 부호군을 지냈다. 감사 金聲九의 현손인 학생 金必東의 딸인 의성김씨를 부인으로 맞았다. 둘째 부인은 감사 裵三益의 후손인 학생 裵相復의 딸이다.
- 晦文 : 성균 진사. 증직으로 가선대부 이조참판이 제수되었다. 부인은 대산 李象靖의 손자인 艮巖 李埦의 딸이다.

정재의 생애는 「연보」에 의거 중요사항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호가 定齋, 자는 誠伯이다. 1777(정종 1)년에 태어나 철종 12(1861)년에 죽으니 향년 85세로 그 당시로 보면 장수를 누린 셈이다.

안동부 일직현 蘇湖里 외가에서 태어났다. 소호는 정재의 어머니인 한산이씨의 친가가 있는 곳이다. 한산이씨는 당대의 大儒인 大山 李象靖의 현손으로 친가에 돌아가 출산한 것이다. 정재는 어머니 한산이씨의 복중에 13개월

이나 있었다고 한다.[6] 그 다음해에 소호리에서 대평리 본댁으로 돌아왔다.

나이 5세가 되었을 때, 숙증조인 류장원에게 수학하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학습 진도가 느려 같이 배우는 학생들에게 놀림을 당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류장원은 그런 정재에게서 비범함을 발견하고 놀리는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이 아이를 따라갈 수 없다".[7]고 말하였다고 한다. 류장원은 어린 정재에게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 같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숙증조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성취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그만큼 정재는 숙증조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탓이라고 하겠다.

이 해 12월 대산 이상정이 타계했다.[8] 이 때 정재는 5세였으니, 정재가 특별히 이상정의 훈도를 받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 정재에게는 어릴 때 어머니를 따라 외가에 갔을 때 보았던 대산의 모습이 각인되었을 것이다.

정재는 17세 되던 해에 선산김씨를 부인으로 맞는다[9]. 청년 정재의 학문은 류장원의 훈도에 힘입어 온전히 류장원의 영향권 아래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류장원은 정재가 20세 되던 해에 타계한다.[10] 류장원이 타계한 다음해인 21세 때에 아버지의 서신을 들고 損齋 南漢朝를 찾아간다. 손재 남한조는 정재의 외고조인 대산 이상정의 고제이다. 그러므로 정재는 남한조를 통해 외가 쪽의 학문 전통을 이어받게 된 것이라고 하겠다.

정재의 첫 부인인 선산김씨는 정재가 젊은 나이에 명망을 얻는 것을 경계하며, 늘 정재의 학습을 독려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첫 부인은 정재가 22세 때 어린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난다.[11] 그 후 23세 때 申魯岳의 딸인 평산 신씨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인다.[12] 평산 신씨는 정재가 64세 때 타계한다.

정재는 29세 되던 10월에 급제하며,[13] 30세 되던 해 6월에 승문원 부정자

---

6)『定齋先生文集附錄』卷之 1,「年譜」"…先生在娠十三月…"

7) 위의 책 같은 부분, "…初上學頗遲鈍…此子非爾輩所及也未久才思逸發每朝課授…先教鈍蒙留汝以開豁"

8) 앞의 책,「年譜」5세조 참고.

9) 앞의 책,「年譜」17세조 참고.

10) 앞의 책,「年譜」20세조 참고.

11) 앞의 책,「年譜」22세조 참고.

12) 앞의 책,「年譜」23세조 참고.

13) 앞의 책,「年譜」29세조 참고.

에 보임된다.[14] 그 후 사헌부 지평, 사간원 정언, 대사간, 병조참판 등을 거치며 77세 때 사직소를 올리고 상경하지 않았다.

정재가 벼슬을 한 것은 30세부터 77세 까지로 47년의 짧지 않은 세월이었다. 크고 작은 여러 벼슬을 거치면서 실제로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도 하였고, 형식상 자리만 지키고 있었을 때도 있다.

1855(철종 6)년 莊獻世子(思悼世子)의 추존을 청하는 상소를 하였다가 대사간 朴來萬의 탄핵을 받고 평안도 상원이 유배지로 결정되어 유배지로 향하다가 풍기에서 배소가 바뀌었다는 어명을 듣고 다시 방향을 바꾸어 전라도 智島로 내려가게 되었다가 그 해에 12월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왔다.[15] 상소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상소의 내용이 갖는 문제점 때문이기 보다 문장 표현의 부적절함 때문이었다. 장헌세자에게 존호를 올리는 일은 단종 복위와 같은 것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처음 이 상소를 승지 李源祚에게 보내어 자신을 대신해 올려 달라고 요청하지만 이원조는 상소를 보고 서신을 보내어 올리지 말기를 청한다. "올리지 않으실 수 없다면, 상소의 글 속에서 단종(端廟)을 인용하여 말한 것은 중종(中廟) 때 덕종(德考)을 추숭한 일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만 같지 못하지 않나 염려스럽습니다"[16]라고 말하고, 제자와 자제들도 상소를 올리지 말기를 간청한다. 그러나 정재는 "덕종 추숭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말한다면, 낳은 은혜를 무겁게 생각하고 신원한다는 점은 가볍게 치부하는 것이 되므로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 家童을 시켜 상소를 그대로 올리게 했다.

1856년 嘉義大夫의 품계에 올랐으나 다시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1857년 제자들이 지어준 雷巖의 晩愚齋에서 후진 양성에 전념하였다. 그 뒤 1860년 동지춘추관사가 되고, 다음 해에 85세로 죽었다.

2.2 學問活動

조선 중기 이황의 문하에는 전국에서 많은 학자들이 모여들었다. 이황의 여러 제자 중에 金誠一과 柳成龍은 안동출신으로 학문과 벼슬도 높았다. 이들 가문은 혼인과 학맥을 통하여 혈연적·학문적·지역적 유대를 더욱 다져

14) 앞의 책, 「年譜」 30세조 참고.
15) 앞의 책, 「年譜」 79세조 참고.
16) 앞의 책, 『年譜』 79세조.

나갔다. 그리하여 안동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에서 각각 큰 세력을 형성하여, 김성일의 학통을 이은 유림은 廬江書院(虎溪書院)을 중심으로, 류성룡의 학통을 이은 유림은 屛山書院을 중심으로 강학활동과 사회활동을 전개하였다.[17] 정재는 안동의 동서유림 중에 동부 유림에 속한다. 그의 선조인 柳城이 내 앞(川前)의 의성김씨 金璡의 사위로 들어와 水谷(무실)에 거주함으로서 자연히 의성김씨와 잦은 혼인과 학문적 유대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후기 영남 최대의 향권 다툼인 '屛虎是非'에 있어서도 양 집안은 늘 같은 보조를 취하였다.

앞의 생애에서 보았듯이 정재는 '小退溪'라는 칭호를 들었던 이상정의 외증손으로 학자로 대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학문을 숭상하던 전주류씨 집안의 가학[18]과 외증조부 이상정의 학문적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종고조부인 柳升鉉과 고조부인 柳觀鉉은 학문에 힘써 모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참의에 이르렀다. 류관현은 사도세자의 서연관으로 활동하였고 세자에게 『易圖撮要』를 올리기도 하였으며, 류승현은 1728년 이인좌의 난 때 의병장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정재가 공부를 시작할 무렵에는 이상정의 학통을 이은 종증조부 柳長源이 東巖亭에서 강학을 하고 있었다. 정재는 1789(13세)부터 1796(20세)까지 류장원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류장원은 정재가 20세 되던 해에 타계했다.

류장원이 타계하고 1797(21세)년에 상주에 살던 이상정의 고제인 남한조의 문하에 나아가 1809(33세)년까지 스승으로 모셨다.[19] 정재는 류장원과 남한조를 통하여 이상정의 학문을 안팎으로 전수받았다.

1805(29세)년 10월 문과에 합격하여 1806(30세)년 6월 승문원 부정자에 임용되었고,[20] 그 뒤 여러 벼슬을 거쳐 1853년 병조참판에 임용되었다.

정재가 안동의 학계에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이상정의 문인들이 중심이 되어 이상정을 추모하는 사업을 벌이면서부터이다. 1811(35세)년 8월에 柳範休(류도원의 아들, 류장원의 조카) 등 이상정의 학통을 이은 문인들이

17) 權五榮, 1999「定齋學派의 형성과 衛正斥邪運動」,『한국근현대사연구』, 10, 101쪽.

18) 윤동원, 2007「安東地方 典籍文化에 관한 硏究 : 水谷里 全州柳氏 典籍을 중심으로」, 『古典籍』, 3집 48쪽의 분석을 보면 文籍을 남긴 사람이 80여명에 문집이 300여권에 달한다.

19) 앞의 책,「年譜」21세조 참고.

20) 앞의 책,「年譜」 29~30세조 참고.

안동의 高山精舍에서 강회를 열었는데, 류치명은 이 모임에서 질의·토론을 벌여 당시 노성한 학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21]

1824(48세)년 10월 세거지인 수곡 뒷산인 阿岐山에 있는 黃山寺에서 柳健休·柳徽文·柳鼎文·柳致皓·李秉運·李秉遠(이상정의 손자)·姜樏 등과 함께 '天人性命'의 내용이 담긴 『중용』을 가지고 열흘 동안 토론을 벌였다.[22] 이듬해인 1825(49세)년 2월에는 김진과 그의 아들인 김극일 등 5형제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泗濱書院에 가서 강회를 가졌는데, 이때 이황이 神明처럼 공경하고 부모처럼 높였던 『心經』을 강론하였다.[23]

1830(54세)년 류장원이 지은 『常變通攷』를 간행하였다. 당시 전주류씨 가문의 학문적 지주이고 이상정의 고제였던 류범휴의 명으로 류건휴·류휘문은 이 책의 교정과 보완을 담당하였고, 정재도 류정문과 함께 이 책의 교정에 참여하였다. 이들 네 사람은 10년 동안 대조 교정하였고,[24] 이 작업에는 이병원도 참여하였다.[25]

1845(69세)년 『大山先生實紀』 10권 5책을 문인 李敦禹(이상정의 현손)·柳致儼과 제휴하여 편집·완성하였고,[26] 1846(70세)년 9월에는 고산서당에서 향음주례를 행하며 주희의 「玉山講義」를 講하였다.[27] 정재는 『대산선생실기』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이상정의 학문을 깊이 체득하였고, 주희의 「옥산강의」를 통해 '仁義禮智'를 유생들에게 강의하였다.

1847(71세)년 6월 사빈서원에서 학봉선생의 후손인 金鎭龜와 함께 『학봉선생문집』을 교정하였다.[28]

1848(72세)년 2월 류건휴가 편찬한 『異學集辨』을 교정하였다.[29] 『이학집변』은 老子·佛敎·楊朱·墨翟으로부터 詞章·功利·西學에 이르기까지 논변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 『이학집변』을 통해 류치명은 도교·불교에서부터

21) 앞의 책, 「年譜」 35세조 참고.
22) 앞의 책, 「年譜」 48세조 참고.
23) 앞의 책, 「年譜」 49세조 참고.
24) 앞의 책, 「年譜」 54세조 참고.
25) 『常變通攷』 跋.
26) 앞의 책, 「年譜」 69세조 참고.
27) 앞의 책, 「年譜」 70세조 참고.
28) 앞의 책, 「年譜」 71세조 참고.
29) 앞의 책, 「年譜」 72세조 참고.

科文·서학 등에 이르기까지 異學으로 인식하였다.

1852년 정재의 문인인 류치엄은 이상정의 글에서 요점을 추려내어 여러 번 改稿의 과정을 거쳐『湖學輯成』을 완성하였다. 류치엄은 이 책을 편찬하면서 정재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1854(78세)년 11월에 정재는 이 책을 교정하였고,「대산선생신도비」를 찬하였다.[30] 정재는 이상정의 학문을 '湖學'[31]으로 규정하여 영남의 이황학파 내에서도 그 자신들만의 독자적 학풍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32]

1859(83세)년 8월 참판 李源祚가 晩愚亭을 방문하여 수일간 머물면서 禮義를 강변하였고, 枕澗亭에서『중용』首章을 강하였다.[33]

1860(84세)년 6월 노구에도 불구하고 유생들과 함께 만우정에서 주희의「仁說」을 강론하였다. 이처럼 정재는 생의 마지막까지 힘쓴 학문은 인의예지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주자학에 철저하였고 주자학을 집대성한 이황의 학문과 이를 계승한 이상정의 학문을 충실히 학습하고 제자들에게도 강의하였다.

정재의 학문 활동은『중용』·『심경』등 유학의 기본 서적을 강론하면서 한편으로 이상정의 학문을 연구하고 그 이력을 정리하는 일을 많이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이상정은 이황·김성일·이현일·이재의 학통을 계승하여 이황의 '嫡通'을 잇는 인물로 안동의 유림에서 그 위상이 확립되어 갔다.

정재는 經學·성리학·禮學 등 여러 분야에 정통하여 학문적으로도 큰 업적을 남겼다. 특히, 성리설에 있어서는 이상정의 학설을 계승하여 理를 活物로 보고 이의 自發的動靜에 의해 氣가 동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四端七情論에 있어서는 氣發理乘을 주장한 李珥의 학설을 공격하였다. 이는 能動能靜하는 神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의 자발적 동정으로부터 음양오행의 기가 나오며, 이가 우주의 무체적인 實在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李滉 — 金誠一 — 張興孝 — 李玄逸 — 李栽 — 이상정으로 이어지는 학통을 이어받아 李震相·柳宗喬·李敦禹·權泳夏·李錫永·金興洛 등 많은 학자를 배출하였다.

저서 및 편서로는《定齋文集》·《禮疑叢話》·《家禮輯解》·《學記章句》·《常變

30) 앞의 책,「年譜」78세조 참고.

31) 이상정이 거주했던 마을이 안동의 일직 蘇湖里였기 때문에 이 명칭이 생겼다.

32) 權五榮, 앞의 논문, 105쪽.

33) 앞의 책,「年譜」83세조 참고.

通攷》·《朱節彙要》·《大學童子問》·《太極圖解》·《大山實記》·《知舊門人往復疏章》 등이 있다.

3. 「坪上及門諸賢錄」의 發見과 書誌

이 「坪上及門諸賢錄」은 1998년 9월 포항에 거주하는 윤석기씨가 안동대학교 도서관으로 기증한 〈仙雲文庫〉고서 중에서 발견되었다. 기증자인 윤석기씨는 경북 영양군 석보에서 선대부터 오랜 세월동안 세거한 후 1970년 중반 경에 포항으로 이거, 지금까지 포항에서 거주해 오고 있다.

문인록은 서문과 발문, 범례 등이 없어서 언제 누가 편찬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다.

첫째, 기증자인 윤석기씨의 선대가 영양에서 세거했고, 영양의 석보는 石溪 李時明의 세거지 였다. 이시명의 아들인 葛庵 李玄逸도 잠시 세거하였고, 이현일의 아들인 密庵 李栽와 함께 이들 모두는 퇴계학파의 학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므로 이들 후손들도 정재와의 교류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인록도 이들 집안에서 작성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34]

둘째, 영양의 석보는 정재가 세거했던 임동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윤석기씨의 선대 분 중 어느 한 분이 전주류씨 집안에서 家傳되던 원본을 보고 다시 필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문인록 중에는 기증자인 윤석기씨의 선대 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35]

이 문인록의 필사연도를 살펴보면 문인록 기사 중에 울진을 강원도로 기록한 것이 보인다. 울진이 경상북도에서 강원도로 편입된 것이 1896년이었다가 1963년 강원도에서 경상북도로 편입된 것[36]으로 미루어 볼 때 1896에서 1963년 사이에 필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서지사항을 살펴보면, 필사본으로 성책된 4卷 2册으로 無界, 10行20字 31.0 x

34) 문인록에는 재령이씨가 모두 6명인데 4명은 안동 마동에 세거하였고, 1명은 영해에 세거했으며, 1명은 세거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 영해는 이시명의 아들인 이휘일의 세거지이다.

35) 문인록에 파평윤씨는 2명이 기재되어 있는데, 1명은 경기도 용인(윤최식)이 세거지이고 다른 1명은 영해(윤두영)가 세거지로 기재되어 있다.

36) http://enc.daum.net/dic100/viewContents.do?&m=all&articleID=b16a3973b#T0(Daum 백과사전)

21.0cm이다. 標題에는『坪門諸賢錄』이라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재가 세거했던 大坪(임동)의 지명을 따서 '평문제현록'으로 표기한 것 같다.

4.「坪上及門諸賢錄」의 編成體制

문인록은 필사본 4권 2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545명이 수록되어 있다[37]. 본문 각 권에 수록된 문인수와 면수는 다음과 같다.

수록권수	인원수	책면수
권지 1	117	45
권지 2	109	45
권지 3	102	45
권지 4	217	48
합 계	545	183

기재순서는 권별로 年齒順으로 기재하였는데[38] 권별로는 다음과 같다.

---

37) 1989년 발행한『全州柳氏 水谷派之 文獻叢刊』12권의「定齋門人錄」의 해제에서는 "本書는 草稿로서 4권 2책인데 不精해서 印行하기에 不足함으로 다시 寫眞植字를 해서 이에 編入하였으니 草稿에 있는 卷數의 表示는 필요 없기 때문에 除去하였다. 元來에 編次는 年齡順으로 되어 찾기가 極難하기 때문에 姓諱를 가나다순으로 分類해서 篇末에다가 索引으로 부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문인록의 수록 문인수는 544명으로 이번에 발견된 문인록은 다른 문인록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정재문인록」의 권말에 정재가 초산부사로 있을 때 제자들의 명단은 이번에 발견된 문인록과 수록순서가 전혀 다르게 수록되어 있다.

38) 앞의 책「정재문인록」凡例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一, 編例는『陶山及門錄』에 依倣해서 年齡順으로 했는데 諸賢의 行蹟을 詳細히 記載하지 못했음(類例略倣溪門諸賢錄以年齒第次而事行不敢詳載以存謹嚴之意).
一, 諸賢의 事蹟은 本集의 狀碣中에서 師門에 關係된 數句만 取錄하고 그것이 脫落된 것은 後日에 收錄하기로 함(諸賢事行就本集狀碣中略採數句而只取關係師門事不得幷及於凡他履歷其或未見原文在者不敢下一字留待後日收錄).
一, 先歿해서 선생이 하신 挽祭誌碣은 要點만 抄錄하였음(諸賢歿於先生在世之日先生有挽祭誌碣則略加抄節採入).
一, 先生께한 挽祭는 十分에 一二도 收錄하지 못했으니 諒解할 것(諸賢挽祭見於附錄者不滿十之一二不得不節略收錄而不免僭加存拔覽者恕之).
一, 書信과 挽祭가 本家 信蹟이 있는 것은 師門에 없는 것도 一例로 수록하였음(當

수록권수	수 록 년 도
권지 1	1789(정조13)년~1810(순조10년)
권지 2	1809(순조 9)년~1818(순조18년)
권지 3	1819(순조19년)~1826(순조26년)
권지 4	1827(순조27년)~1885(고종22년)[39]

가령 동갑이 여러 명 있을 때는 이들 사이의 순서를 어떻게 정했는지는 알 수 없다. 545명 중 생년을 기재하지 않은 사람이 130명으로 파악되었으며, 4의 권말 44면부터 48면까지는 정재가 초산부사로 있을 때 제자들의 명단으로 이름과 거주지만 간단히 수록되어 있어 나중에 추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개인별 기재내용을 보면 인적사항인 성명・자・호・본관・거주지・생년・친족관계・과거・관직・문집유무・사승관계・만사나 제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중 과거・관직・문집유무・사승관계 등은 해당자만 적었으며, 몰년은 대부분 밝히지 않았다. 또한 뢰문・만사・묘지・묘표・제문・행장을 그 다음에 수록하였는데 양적으로는 241명 수록되어 있어 문인록의 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5. 「坪上及門諸賢錄」의 분석

이들은 모두 정재가 평생 동안 가르친 제자들로 안동을 중심으로 한 영남 유림의 구성원들이며, 정재가 전라도 장시도사로 갔을 때나 智島에 유배되었을 때, 평안북도 초산부사로 갔을 때 문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문인 각자의 성향과 이들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면 당시 영남 유림사회의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문인록의 기초 자료를 분석하여 정재와 교유한 문인들의 성격을 밝히는데 그치고자 한다.

日及門槩在於往復及挽祭然或有本家信蹟而無徵於師門字例懸錄者數處極涉難愼而無別標識一).

一, 楚山에 門人들은 生年이나 事蹟이 없는 것도 모두 篇末에 記名하였음(關西諸儒無字甲事行而皆是當日從學故只編入於末段).

一, 門親子姪들이 수업한 이는 너무 數多해도 모두 수록하였다(門親子姪多親炙高弟而其餘俱挾策受業故不嫌其多一併序錄).

39) 정재의 몰년이 1861년인데 문인록에 보면 생년이 밝혀진 맨 끝의 2명[임응성(1866년생)과 홍대섭(1885년 생)]은 정재의 몰년과 맞지 않는다.

「坪上及門諸賢錄」에 기재된 내용은 ① 성명, ② 자, ③ 호, ④ 본관, ⑤ 친적관계, ⑥ 거주지, ⑦ 생년, ⑧ 과거, ⑨ 사승관계, ⑩ 문집유무, ⑪ 저술관계, ⑫ 만사와 제문 등이 기본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재된 내용 중 분석에 의미가 없는 자와 호, 저술관계를 제외 한 ① 거주지별 분포, ② 성씨별 문인 분(혈족관계 포함), ③ 과거합격자 수와 관직, ④ 사승관계 등 네 가지를 분석하여 문인들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5.1 居住地別 門人分布

여기에서는 주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정재의 문하로 모여들었는가 하는 점을 분석해 보았다. 이는 정재의 지역적 영향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본다.

〈표 1〉 거주지별 문인분포

거주지		문인수	지역수	문인수(%)
각 도별	세부지역별			
경기도	광주・용인	3	2	0.55
경상남도	거창・고성・밀양・사천・산청・의령・진주・창녕・칠원・함양・합천	39	11	7.15
경상북도	경산・경주・고령・군위・문경・봉화・상주・선산・성주・순흥・연일・영덕・영양・영천・영해・예천・울진・의성・인동・청도・청송・풍기・하양・함창・현풍	181	25	33.21
	안동・예안	207	2	37.98
대구	-	2	1	0.36
서울	-	1	1	0.18
울산	-	1	1	0.18
전라남도	강진・구례・함평	4	3	0.73
충청남도	서산	1	1	0.18
충청북도	제천	1	1	0.19
자강도	강계・위원・희천	3	3	0.55
평안북도	가산・구성・박천・벽동・삭주・영변・용천・운산・의주・정주・창성・초산・태천	14	13	2.56
함경남도	북청・함흥	2	2	0.36
소계		459	66	84.23
거주지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86	-	15.77
합계	-	545	66	100

거주지별 문인 분포를 살펴보면, 545명 중 거주지가 확인된 45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향리인 안동과 예안 지역의 문인들(207명)의 숫자가 압도적이며, 다음으로 봉화・선산・순흥・영양・예천・의성・청송 등 안동과 가까운 영남의 기타 지역의 문인들(220명)이 많았다. 이것은 전통사회의 학파가 지역 중심으로 형성된 현상의 전형적인 사례이다.[40] 전주류씨는 안동의 수곡・박곡・대평・삼산 등에 모여 있고, 의성김씨는 안동의 금계・천전・임하・지례・봉화 해저 등에 집중되어 있다. 진성이씨는 예안 하계, 안동권씨는 봉화 유곡, 한산이씨는 안동 소호, 고성이씨는 안동 법흥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 영남 남부 지역인 밀양・산청・진주・창녕・함양・합천 등 지리적으로 가까운 영남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이하게 평안북도 지방(14명)과 전라도 지방의 문인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재가 전라도 장시도사로 갔을 때와 신안에 있는 智島에 유배되어갔을 때, 평안북도 초산부사로 부임했을 때 제자들인 것으로 보여 진다. 소수이지만 경기도・충청남북도・함경도・대구・울산・자강도 등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포는 정재의 학문적 명성과 위상에 걸맞은 것으로 생각된다.

5.2 姓氏別 門人分布

성씨별 문인분포에서는 본관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97명을 제외한 448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관이 확인된 성씨는 100개 성씨로 성씨별 문인수는 평균 4명 정도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인의 대부분은 소수의 성씨에 속해 있다. 하단의 68개 성씨에 속하는 문인(문인수 1~2명)은 모두 99명인데, 성씨별 평균은 2명도 안되는데 비하여 상단의 16개 성씨에 속하는 문인(문인수 5명 이상)은 모두 289명으로 성씨별 평균은 18명이나 된다. 이 같은 성씨별 분포 양상은 당시 안동일대 유림의 분포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단에 있는 전주류씨・의성김씨・안동권씨・진성이씨・한산이씨 등의 문인들이 많은 것은 이들이 결혼을 통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본격적인 고찰은 후일로 미루고, 여기에서는 문인수 10명 이상인 상위권 성

40) 어느 문인록을 보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비슷하게 파악된다.

씨에 속한 문인들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성씨별 문인분포

문인수	성씨별	성씨수	문인수 소계
93명	류(전주)	1	93
61명	김(의성)	1	61
30명	권(안동)	1	30
13명	이(진성)・이(한산)	2	26
12명	남(영양)	1	12
11명	이(고성)	1	11
8명	신(영해)・정(오천)	2	16
7명	박(밀양)	1	7
6명	서(달성)・이(영천)・이(재령)	3	18
5명	강(진주)・조(한양)・이(합천)	3	15
4명	김(광산)・이(광주)・박(반남)・김(상산)・성(창녕)・안(탐진)・신(평산)・김(선성)・백(대흥)	9	36
3명	오(고창)・허(김해)・문(남평)・우(단양)・박(무안)・김(상락)・김(수원)・김(청도)	3	24
2명	이(경주)・이(광산)・노(광주)・배(김해)・홍(남양)・정(동래)・류(문화)・손(밀양)・이(벽진)・주(상주)・신(아주)・송(야성)・이(여강)・권(예천)・장(옥산)・서(이천)・이(전주)・최(전주)・심(청송)・정(청주)・조(하성)・허(하양)・박(함양)・이(화산)・배(흥해)・김(안동)・윤(파평)	27	54
1명	열거 생략	45	45
본관이 기재되지 않은 것		-	97
계		100	545

문인록에 가장 많이 등재된 성씨는 전주류씨로 모두 93명에 달한다.[41] 그 다

41) 權五榮, 앞의 논문, 116면에 보면 “문인록에는 550여 명(실제는 544명)의 문인이 올라 있다. 그 중 전주류씨가 89명(실제는 99명), 의성김씨가 55명(실제는 57명), 안동권씨가 30명, 한산이씨가 13명, 진성이씨가 13명, 고성이씨가 10명, 재령이씨가 6명을 차지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이 문인록과는 다른 문인록이 존재하고 있다는

음이 의성김씨(61명)로 이들의 세거지는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만 아니라 입향조 때부터 혈연관계를 맺어 두 집안에서는 서로 간에 사승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보인다. 전주류씨는 모두 입향조인 柳城의 후손이며, 의성김씨는 金璡의 후손(천전과 금계 등)과 金宇宏의 후손(봉화 해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안동권씨는 權橃의 후손(봉화 유곡)이 많고, 한산이씨는 안동 입향조인 李弘祚의 후손(일직 소호)이며, 진성이씨는 이황의 후손(예안 하계)들이다. 고성이씨는 안동 입향조인 李增의 후손(법흥)들이다. 문인들의 혈족관계는 아래와 같다.

【부자관계】

權行夏 - 重淵
金健壽 - 鎭萬
金在九 - 大銖
金憲壽 - 鎭麒
朴時源 - 宗喬
朴時默 - 在誠
申棨 - 應會
柳星鎭 - 沂永
柳宗鎬 - 瑾永
柳致喬 - 肯鎬・胥鎬・膺鎬
柳致明 - 止鎬
柳致復 - 健欽
柳致思 - 元欽
柳致奭 - 應鎬
柳致儼 - 永鎬・廷鎬
柳致潤 - 章鎬
柳致任 - 建鎬
柳致楨 - 相鎬
柳致儁 - 正鎬
柳致好 - 哲鎬
柳致孝 - 基鎬
柳珩文 - 致洙

【형제관계】

權錫璋 - 錫璜
權章夏 - 行夏
金大銖 - 文銖
金性壽 - 精壽
金遇洙 - 政洙
金鎭慤 - 鎭慤
金興洛 - 承洛
朴載華 - 載衡
朴宗喬 - 宗垕
柳基鎬 - 在鎬
柳鼎鎭 - 觀鎭
柳纘永 - 必永
柳致喬 - 致朝
柳致冕 - 致輅
柳致說 - 致奭
柳致潤 - 致溥
柳致任 - 致儉・致儼
柳致傳 - 致儁・致侃
柳致皜 - 致碻
柳致孝 - 致敎・致好・致游
柳海鎭 - 洛鎭
李敦卨 - 敦益

것이 확인되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권오영 박사의 이 통계는『全州柳氏 水谷派之文獻叢刊』12권의「定齋門人錄」수록자료를 기초로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柳徽文 - 致喬・致德
李晩運 - 中建
李文稷 - 重鼎
李相選 - 采榮
李宜相 - 德魯
鄭致章 - 鎭基
曺克承 - 秉秀
李敦禹 - 敦稷・敦夔
李晩德 - 晩懿
李晩運 - 晩起
崔澐 - 瀧
許銓 - 鑵

먼저 전주류씨에서는 형제관계인 致孝・致敎・致好・致游와 致傳・致儁・致侃, 致任・致儉・致儼 등이 있으며, 부자관계인 致喬-肯鎬・胥鎬・膺鎬와 致儼-永鎬・廷鎬 등이 있다.

문인이 61명인 의성김씨에서는 형제관계인 大銖・文銖, 性壽・精壽, 興洛・承洛과 부자관계인 健壽-鎭萬, 在九-大銖 등이 있다.

문인이 30명인 안동권씨는 형제관계인 錫璋・錫璜, 章夏・行夏, 행하의 아들인 重淵 등이 있다.

문인이 13명인 진성이씨에는 형제관계인 晩德・晩懿, 晩運・晩起, 만운의 아들인 中建, 宜相의 아들인 德魯 등이 있다

문인이 13명인 한산이씨에는 형제관계인 敦益・敦稷・敦夔가 있으며, 文稷의 아들인 重鼎 등이 있다.

상위권 10대 성씨를 살펴보았는데, 전주류씨는 의성김씨와 200년 이상 지속된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고, 하계의 진성이씨, 해저의 의성김씨, 소호의 한산이씨 등과도 혈연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42] 특히 의성김씨와 전주류씨는 학문적으로는 이황의 학통을 김성일・장흥효・이현일・이재・이상정・남한조를 통하여 전수받았다는 의식이 강하였다. 이러한 혈연적・학문적 인연에다가 지리적으로 천전과 수곡은 고개 하나를 두고 수 백 년을 살아온 내력이 있었다.[43] 같은 성씨

42) 전주류씨와 진성이씨의 관계는 李彙運(父 참판 泰淳)이 柳晦文의 사위가 됨으로서 그 아들인 李晩德과 晩懿이 虎論으로 활동하였다. 한산이씨와의 관계는 류회문이 이상정의 孫壻이다. 전주류씨와 해저 의성김씨와의 관계는 박실의 柳道源(柳範休의 아버지)이 해저의 金景溫의 사위인 반면, 해저의 金在九(金翰東의 손자, 아들은 大銖・文銖)・金達銖(金熙周의 손자, 아버지는 在翼, 아들은 建永)가 류치명의 사위였다. 그리고 전주류씨와 금계의 의성김씨와는 류치명의 아들인 止鎬가 김성일의 종손인 金鎭華의 사위이므로 지호는 김진화의 아들인 김흥락과는 처남・매부간이 된다. 또한 李鍾泰(李瓚의 아들, 이상룡의 조부)・李晩運이 김진화의 사위이므로 류지호와 이종태・이만운은 서로 동서간이 된다.

의 문인들 중에는 부자·형제·숙질 등 혈연관계가 밀접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정재의 문인들 중에는 형제가 함께 문인인 경우가 약 10명 내외가 되며 부자가 함께 문인인 경우도 있다. 그밖에 숙질이나 종질·종형제 관계인 문인들(특히 전주류씨와 의성김씨)도 상당수 많았다. 또한 재종이나 친인척까지 고려한다면 정재의 문인들은 거의 지연이나 혈연 등으로 이중·삼중 관계가 있는 사회 집단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5.3 科擧 合格者 數와 官職

조선 시대는 과거의 합격 여부가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는 척도였다. 정재 자신은 1805(순조 5)년 별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853(철종 4)년 嘉善階에 오르고 한성좌윤·병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문인들 중 사마 및 문과에 합격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과거 합격자 수

구 분	합격자수	문인수 대비 합격자 비율(%)
사 마	38	7.03
문 과	11	2.03
계	49	9.07

문인록의 기사를 보면 소과와 대과를 구분하지 않고 사마나 문과로만 표기하였다. 과거 합격자 수는 사마시 합격자가 38명(7.03%), 문과 합격자가 11명(2.03%)로 전체는 49명으로 문인 전체에서 9.07%밖에 되지 않지만 당시 학문과 벼슬이 높은 정재를 구심점으로 하여 문과나 사마에 합격한 인물들이 주축이 되어 19세기 중엽 영남 유림의 정치적·사회적 이해관계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문인들 중에서 관직을 받은 사람들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43) 權五榮, 앞의 논문, 20쪽.

〈표 4〉 문인들의 관직

구 분	인원수	비 고
동지중추부사	3	壽職(신목, 류도영, 남흥수)
도사	1	사마(이만기)
도사	3	薦(이진상, 박치복, 김도화)
도사	1	蔭職(안세영)
감역	3	蔭職(이문직, 김달수, 황재영)
감역	2	薦(이만각, 권연하)
군수	2	蔭職(류치윤, 류지호)
도정	1	蔭職(이정덕)
참봉	3	蔭職(권세연, 박재성, 김건영)
참봉	1	薦(류치호)
판관	1	蔭職(성혁수)
현감	1	蔭職(류긍수)
현감	1	김주교
이조참판	2	문과(이돈우, 이만운)
승지	1	逸薦(김흥락)
정언	4	문과(이만덕, 권호연, 김인섭, 권옥연)
정자	1	문과(류장호)
참의	3	문과(조극승, 김우수, 류치호)
참판	1	문과(권영하)
좌승지	1	효행 贈(박시묵)
계	36	

〈표 4〉에 수록한 관직은 문인록 기사에 있는 그대로 분석한 것이다. 정상적인 과거를 통해서 품직을 받은 문인은 사마 1명, 문과 11명이다. 이를 다시 세분해서 보면, 사마시에 합격하고 도사에 임명된 문인이 1명, 문과에 합격하고 이조참판에 임명된 문인이 2명, 정언 4명, 정자 1명, 참의 3명, 참판1명이다.

수직으로 동지중추부사에 임명된 문인이 3명, 천거에 의한 도사가 3명, 감역이 2명, 참봉이 1명, 음직으로 감역에 임명된 문인이 3명, 군수가 2명, 도사가 1명, 도정이 1명, 참봉이 3명, 판관이 1명, 현감 1명, 효행으로 좌승지에 임명된 문인이 1명이다.

5.4 師承關係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사제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제관계는 정재와의 학문적 관계를 유지하였나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지금까지 편찬된 모든 문인록이나 사우록, 급문록을 보면 학문적 관계를 기술하는데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사용한 용어들의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점이 문제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된 것은 전통사회에서 학문적 교류라는 것이 지금과 같이 전문성을 위주로 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인격적 만남을 중요시 한데 따른 결과인 것이다. 거기다가 문인록 편찬자들이 문인의 개념을 너무 포괄적으로 잡은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44]

이 분석에서는 문인록에 기재된 그대로 사제관계를 파악하였다.[45]

〈표 5〉 사제관계 유형

사제관계	문인수	비율
수업・수학・유문・등문・입문・취문・지견・종학・사사	55	10.18
배알・왕래・출입・논변・질의・강질・서질・왕복서한	36	6.66
기타(만사・제문 등)	240	44.44
형태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209	38.7
합 계	540	100

위와 같이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문인록에 등재된 인물들을 분류하면 〈표 5〉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와 같은 구분은 완전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사제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목이나 문집, 언행록, 만시 등을 파악하여 정확성을 기해야 하나 여기에서는 문인록에 기재된 그대로 분석해 보았다

정재와 관계가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 209명으로 38.7%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배알이나 왕래 등 사제간이라가 보다 교유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36명으로 6.66%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만사나 제문을 수록한 사람이 240명으로 44.44%를 차지하고 있어 문인록의 기사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을

44) 김종석, 앞의 논문, 18쪽

45) 사제관계의 형태는 김종석, 앞의 논문 18-20쪽을 참고하여 수정 분석해 보았다.

문인으로 볼 수 있다.

문인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척도는 문인들이 쓴 글이다. 문인록에는 만사와 제문, 뇌문 등이 〈표 6〉과 같이 실려 있다.

〈표 6〉 문인들의 글

구분	수록숫자	비율
耒文	4	1.7
輓詞	15	6.25
墓誌	1	0.41
墓表	2	0.83
祭文	208	86.6
撰碣	2	0.83
撰誌	7	2.91
行狀	1	0.41
계	240	100

간혹 제문의 내용은 생략하고 제문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도 있다. 만사·제문·뢰문·묘지·찬갈·행장 등은 각각 그 성격이 달라서 일률적으로 논할 수는 없으나, 그 유무는 어느 정도 사제관계를 파악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문인들이 수록한 글을 파악해 보면, 총 240명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그 중 제문이 208명으로 제일 많으며 만사가 15명, 찬지가 7명 등이다. 이들 글들은 모두 고인의 학덕을 기리고 서거를 슬퍼하는 것들이다. 문인들이 쓴 제문은 피차의 관계를 확인하는 사회적인 중요성도 있겠으나 원래 미사여구로 시종하고 대동소이하여 그 분량에 비해서 사료로 쓸 내용이 적음은 유감이라 하겠다.

정재의 문인들 가운데 뛰어난 인물로는 李敦禹·權璉夏·金興洛·金道和·柳必永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상정의 현손인 이돈우는 1831년 정재가 고산서당에 학생을 선발할 때 문하에 들어왔으며,[46] 권연하는 정재가 1833년 三溪書院에 가서 강의할 때 이를 적극 주선하였고, 그 뒤 1838년부터 본격적인 사제관계를 맺었다. 김성일의 종손인 김흥락은 1845년 4월 입문하여 『논어』와 『家禮』를 배우고, 『大學或問』과 四端七情說에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 질문하였다. 김굉의

46) 『西山先生文集』 卷之 19, 「嘉善大夫吏曹參判肯庵李公墓碣銘 幷序」.

증손인 김도화는 1849년 입문하였고, 류필영은 1852년 입문하여 『대학』을 배웠다.

정재의 문인에는 하회의 풍산류씨나 풍산 우릉골의 宣城李氏, 풍산 가일의 안동권씨 등 屛論에 속하는 사람이나 병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명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정재의 활동시기가 "병호시비"가 가장 극렬했을 때여서 안동유림이 屛虎 양론으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47]

6. 맺음말

지금까지 많은 문인록이 편찬되었으나 이번에 발견된 정재의 문인록의 수록 문인수는 어느 문인록 보다 많은 545명의 문인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문인록에 기재된 내용 중 분석에 의미가 없는 자와 호, 저술관계를 제외한 거주지별 문인분포, 성씨별 문인분포(혈족관계 포함), 과거합격자 수와 관직, 사승관계 등 네 가지를 분석하여 문인들의 성격을 밝혀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지별 문인분포 분석에서는 545명 중 거주지가 확인된 459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향리인 안동과 예안 지역의 문인들(207명)의 숫자가 압도적이며, 다음으로 봉화・선산・순흥・영양・예천・의성・청송 등 안동과 가까운 영남의 기타 지역의 문인들(181명)이 많았다. 다음으로 많은 지역이 영남 남부 지역인 밀양・산청・진주・창녕・함양・합천 등 지리적으로 가까운 영남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리적 여건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특이하게 평안북도 지방(14명)과 전라도 지방의 문인들이 있는 것은 정재가 智島에 유배되어갔을 때와 평안북도 초산부사로 부임했을 때 제자들인 것으로 보여 진다. 소수이지만 경기도・충청남북도・함경도・대구・울산・자강도 등 거의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성씨별로 보면 545명의 문인들은 100개 성씨로 분산되어 있으며 문인 중 289명은 16개 성씨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안동 일대의 명문가이며, 부자나 형제・숙질・종형제 등으로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7) 權五榮, 앞의 논문, 117쪽.

셋째, 과거급제와 관직을 살펴보면, 사마시 합격자가 38명(7.03%), 문과 합격자가 11명(2.03%)로 전체는 49명으로 문인 전체에서 9.07%밖에 되지 않았다. 실제로 관직을 받은 사람은 사마 1명, 문과 11명이다. 이를 다시 세분해서 보면, 사마시에 합격하고 도사에 임명된 문인이 1명, 문과에 합격하고 이조참판에 임명된 문인이 2명, 정언 4명, 정자 1명, 참의 3명, 참판 1명이었다.

넷째, 사제관계를 보면, 정재와 관계가 언급되지 않은 사람이 209명으로 38.7%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배알이나 왕래 등 사제간이라가 보다 교유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36명으로 6.66%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만사나 제문을 수록한 사람이 240명으로 44.44%를 차지하고 있어 문인록의 기사에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을 문인으로 볼 수 있었다.

정재의 문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퇴계 학맥을 계승한 문인들의 성격을 알 수 있었음은 물론, 안동 일대의 영남 유림을 조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參 考 文 獻 》

- 『常變通攷』.
- 『西山先生文集』.
- 『定齋先生文集』.
- 權五榮. 1999「定齋學派의 형성과 衛正斥邪運動」,『한국근현대사연구』, 10.
- 金建來. 2002「慕堂 孫處訥 硏究 : 생애와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종석. 1999「도산급문제현록과 퇴계 학통 제자의 범위」,『퇴계문하 6철의 삶과 사상』,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 柳正基.『全州柳氏 水谷派之 文獻叢刊』.
- 윤동원. 2007「安東地方 典籍文化에 관한 硏究 : 水谷里 全州柳氏 典籍을 중심으로」,『古典籍』, 3집.
- 尹天根. 1998「柳致明의 인물과 학문사상」,『嶺南學派의 硏究』, 慶尙北道.
- http://enc.daum.net/dic100/viewContents.do?&m=all&articleID=b16a3973b#T0 (Daum 백과사전)

법조인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연구동향 고찰

A Review of the Research Trends on th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Legal Professionals

최 미 순(Choi Misoon)[1)]

목 차

1. 서 론
2. 전문직의 정보추구
 2.1 선행 연구
 2.2 전문직의 정보추구 연구경향 또는 모형분석
3. 법조인의 정보추구
 3.1 국내 연구
 3.2 국외 연구
4. 정보추구와 질적 연구
5. 결론과 제언

〈 초 록 〉

이용자들의 다양한 성향, 환경,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 등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분석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시스템 설계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사전 작업이 되며, 연구대상의 확대를 통한 정보추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업무영역에 대한 독점이나 업무관련 지식과 기술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력을 갖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 특히 법조인들에 대한 정보추구행태 연구는 그 분야의 특수성과 현저히 낮은 접근용이성으로 인해 여전히 심층적인 연구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법조인의 정보추구행태를 제시하고 있는 논의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연구동향을 개관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법조인의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연구의 방향점을 제시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정보탐색, 정보추구, 정보추구행태, 정보추구모형, 전문직의 정보추구, 법조인의 정보추구

1) 서울대학교 도서관 사서
(Librarian, Seoul National University Library, choims@snu.ac.kr)

〈 ABSTRACT 〉

The various propensity, an environment, demand of information and type of use, etc, in the analysis pursuit of information of the users is most fundamental previous work in the user oriented information system construction and it's necessary to various approach for information searching to extend research object. But there is little in depth information demand research of the specific professionals who have exclusive domination with monopolistic work and knowledge and technology of work. Particularly, the legal professionals, since their low-end approach rationale and characteristics are not developed so far. This paper will give the type of research information demand of the legal professionals, and analyzes their trend of research objective, so that it provide research points and theoretical base of information demand of the legal professionals, hereafter.

KEYWORDS : Information Search, Information seeking,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Information Seeking of Professionals, Information Seeking of Legal Professionals

1. 서 론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정보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이라는 말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연구는 '상황적합성'을 결여하고 있고, 따라서 꼭 필요한 정보의 적확(適確)한 제공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추구하는 정보에 대한 공통성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반면 특정집단이 특정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정보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정보가 유사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이 유사하다는 이유 등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정보추구행태 연구와는 분명 차별적인 결과를 제공할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특정집단이 특정상황에서 보여주는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분석 연구는 미흡하다. 특히 업무영역에 대한 독점이나 업무관련 지식과 기술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력을 갖는 특정 분야의 전문직들에 대한 정보추구행태 연구는 그 분야의 특수성과 현저히 낮은 접근용이성으로 인해 여전히 심층적인 연구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일반인과 달리 이러한 전문직들의 정보이용 동기는 지적탐구나 교육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의뢰인에 대하여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라는 점에 더 많은 비중이 주어져 있다. 더욱이 상업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장이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고 주요 이용자가 바로 이러한 전문직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정보추구행태 연구는 보다 심층적인 요인까지를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정보추구행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선호하는 정보원과 정보채널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현상의 크기나 수량이 가설 검증이나 이론 구축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양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양적 연구의 경우 대부분 외적상황에 대해 고정된 행태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과 사람들이 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하는가와 같은 시스템 중심의 접근이라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정보 요구와 이에 따른 정보추구 과정에 대한 미시적인 정보추구행태를 포함해서 시·공간상의 변화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하는 상황에 반응하는 인간의 지각 형성 패턴과 같은 인간행태를 통찰하기 위해서는 현상의 속성이나 본질에 연구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분야의 전문직 중에서 특히 '법조삼륜'이라고 불리는 검사, 판사 그리고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이 사건을 맡았을 때 그 사건의 해결을 위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보추구 경험과 추구의 과정 등 법조인의 정보추구행태를 논하고 있는 문헌들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개관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법조인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이해의 증진과 이들을 위한 전문화된 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해결에 관한 업무과제 맥락, 구조와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토대로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업무맥락에서의 법조인의 정보추구행태를 제시한 국내외 관련문헌을 조사한 후 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법조인의 정보추구행태의 특징과 분석방법,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연구의 방향점을 제시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고자 하였다.

2. 전문직의 정보추구

2.1 선행 연구

전문직 집단의 정보추구에 대한 특징적인 요소를 분석하려는 개념적인 구조화 모형화의 작업은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모형들은 불가피하게 특정 전문직 집단과 그 하위 집단의 특정 영역의 정보추구 과정에 집중되어 왔으며, 연구자들에 의해 시행된 정보이용에 관한 분석은 결국 이러한 정보추구 과정에 있어서의 모형화를 구조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김갑선 2005). 특정 전문직 그룹의 정보추구 행태를 모형화한 현존하는 연구나 이전의 시도를 보면, 대부분이 업무맥락, 즉 업무 역할, 업무과제, 문제 상황 등에서 나타나는 정보요구와 정보추구 문제를 다루고 있다(표1 참조).

〈표 1〉 업무맥락에서의 전문직의 정보추구

연구대상	연구	연구방법	연구내용
기술자 건강관리자 변호사	Leckie, Pettigrew & Sylvain. 1996	질적/관련문헌 분석	최초의 전문직 정보추구모형 (업무맥락에서의 전문직의 정보추구모형 개념화)
의사	Curly et al. 1990	양적/설문조사	정보추구유발요인 및 정보원 선택시 영향요인 등
	Florance and Welch. 1992	양적/설문조사	업무맥락에서 실제 의사들이 환자에 대한 의학적인 진단과 분석의 과정 도출
	Gorman. 1995	질적/관련문헌 분석	의사들의 정보요구가 네가지로 분류됨을 제시
	Niedzwiedzka. 2003	양적+질적 /설문조사+인터뷰	건강관리분야관리자를 대상으로 정보중재자를 통한 정보 획득의 과정모형 제시
기술자	Cheuk. 1998	질적/심층인터뷰 (Sense-Making)	작업현장에서의 정보추구와 이용 과정모형 (ISU) 도출
	Cheuk. 1999	질적/심층인터뷰 (Sense-Making)	업무 상황에서의 정보추구와 이용에 초점을 맞춘 정보추구상황유형
	한복희. 1976	양적/설문조사	기술자의 정보이용과 요구 분석
	이제환, 구정화. 1999	질적/관련문헌 분석	업무맥락에서의 정보요구의 개념적 모형 제시

연구대상	연구	연구방법	연구내용
기자	Nicholas & Martin. 1997	질적/인터뷰	기자들의 취재행태와 정보 활용 현황 분석
	Attfild & Dowell. 2003	질적/인터뷰	업무맥락과 관련된 정보추구 단계 제시
	장선화. 2005	질적/심층면담	취재현장에서 정보원 및 정보채널 선택 영향 요인 등
예술가	Cobbledick. 1996	양적/설문조사	업무맥락에서의 정보원 선택 영향 요인 등
투자 분석가	Thivant. 2005	질적/인터뷰	다섯 개의 정보추구 이용 상황별로 업무과제 환경의 복잡성 수준과 정보추구 전략을 이론적으로 도출

전문직의 정보추구에 대한 연구는 또한 상업적인 데이터베이스 공급자들이 일상적인 업무에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특정 전문직들에게 맞춰진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던 점에서 기인한다. 전문직들에게 필요하고 실제 사용되는 정보에 관하여 보다 초점을 맞추고 세밀한 연구의 수요에 따라 문헌정보학 학자들은 다양한 환경에서 전문직들의 작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이들은 전문직들의 정보추구행태가 지금까지 과학자들이나 학자들에 대한 연구에서 알려진 것과 어떻게 비슷한지 또는 어떻게 다른지, 전문직들은 언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찾는지, 정보의 필요성과 검색문제가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직들의 직업적 효율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Wilson 2000).

전문적인 지식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 전문직과 학자를 비교한다면, 학자들은 '당연히' 지식을 추구하며, 업무 또는 연구 시간 대부분을 최근의 연구나 앞으로의 연구를 계획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학자의 지식추구는 진리의 발견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전문직에게 공통된 역할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일차적 목적으로 추구한다. 즉 전문직적 조언과 물질적 제공을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의 창출과 제공에 초점을 두는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일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 역할에 있어서 전문직들은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전문직들은 진리의 발견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을 추구한다. 따라서 정보

추구 만족도에 있어서도 전문직은 연구를 직업으로 하는 교수나 학자들과는 달리 업무와 관련돼서 부닥치게 되는 상황에 따른 정보추구 과정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Leckie, Pettigrew, and Sylvain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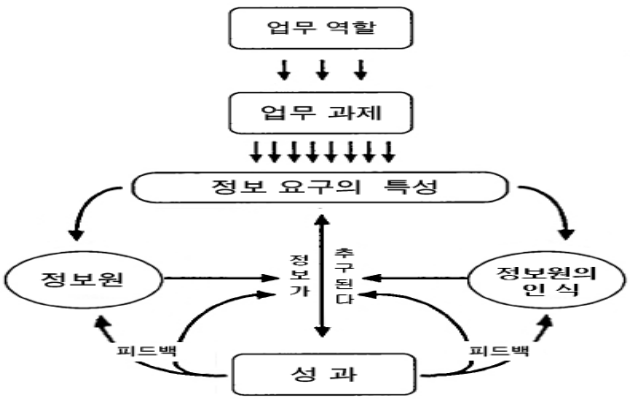
2.1.1 최초의 전문직 정보추구 모형

정보추구행태를 연구한 문헌의 수가 워낙 많지만, 모형 구축이 시도된 것은 주로 1980년대에 들어와서이며, 이용자 행태의 연구에 정량적 방법보다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면서 비롯된 것이다(사공복희 2003). 모형은 핵심요소를 파악하여 그들 간의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복잡한 과정(정보추구행위와 그 행위의 원인과 결과, 또는 정보추구행태의 각 단계간의 관계)을 표현하는 수단인데, 보통 도표나 그림으로 핵심요소간의 인과관계를 표현하며 이 모형들은 어떤 복잡한 상황, 직업, 역할, 학문 영역에도 적용 가능한 일반적 모형으로 나타난다(표 2 참조).

〈표 2〉 정보추구 일반모형

연구	방법론	대상	정보추구 맥락	모형특색
Wilson. 1981, 1997	이론적	일반인	일상생활	정보행태의 구성요인 및 이 요인들의 상호관계 제시(1981), 학제적 관점에서의 정보행위의 일반모형 제시(1997)
Krikelas. 1983	이론적	일반인	일상과제 업무과제	일상과제와 업무과제 간의 정보추구 행위의 패턴이 차이 밝힘(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모형)
Dervin. 1983	이론적	일반인	일상생활	상황, 격차, 이용의 과정을 거친 의미 생성을 설명하는 'Sense-Making'이론 제시
Ellis. 1989, 1993	질적/ 근거이론	사회과학자	연구과제 정보검색	경험적 데이터에 근거한 실증적 모형 제시
Ellis, Cox & Hall. 1993	질적/ 근거이론	물리학자 사회과학자	연구과제	물리학자와 사회과학자의 정보추구모형 제시
Kuhlthau. 1991, 1993	질적/ 구성주의 학습이론	고등학생	학습과제	정보탐색과정(ISP) 모형 도출
Leckie, Pettigrew & Sylvain. 1996	이론적	기술자 건강관리자 변호사	업무과제	업무과제 맥락을 반영한 전문직의 정보추구모형 제시
Johnson. 1997	이론적	일반인	암 정보	건강정보추구의 망라적 모형(CMIS) 제시

전문직 정보추구 모형의 최초라고 할 수 있는 레키(Leckie) 모형은 레키, 페티그루와 실베인(Leckie, Pettigrew, and Sylvain 1996)이 기술자, 건강관리사, 변호사 각각 세 그룹의 서로 상이한 전문직 집단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한 경험적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만든 모형이다 (그림 1 참조). 레키 모형은 모든 '전문직'들의 정보추구행태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범용 모형을 추구하였다.



〈그림 1〉 레키의 전문직 정보추구 모형 (1996)

레키 모형에는 6개 요소들이 화살표로 연결되며 '정보요구의 특성'과 '성과'는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지만, 나머지 요인들과의 인과관계는 한 방향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흐름에서 인과 과정이 먼저 '업무 역할'에서 시작하고, 업무 역할은 '업무 과제'에 영향을 미친다. 전문직들이 일상 업무 중에 맡게 되는 역할과 그와 관련된 업무과제는 특정 정보요구를 유발하게 되고, 이로써 정보추구과정에 몰입하게 되지만 정보추구는 다수의 상호작용하는 변수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성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레키 모형의 기본적 가정은 전문직이 매일 수행하는 업무 역할과 업무 과제는 특정 정보에 대한 요구를 촉발시키고, 이는 정보추구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추구는 궁극적으로 결과에 부정적일 수 있는, 상호 작용하는 수많은 변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특히 이 모형의 모든 요소는 동시다발적이어서 전문직의 직무 활동에 복잡성을 띄게 된다는 것이다. 이 모형에서 정보요구는 전문직의 업무 역할과 관련된 업무 과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지만, 전문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나이, 직업, 전문분야, 경력 단계와 지리적 위치)과 요구 자체의 특성과 같은 다른 일반적 요인들(상황, 빈도, 예측성, 중요성과 복잡성)이 정보 요구에 영향을 끼치거나 구체화하는 변수들이라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정보추구행태는 상호작용하는 두 주요 요인인 정보원과 정보원의 인식에 달려 있으며, 이들 두 요인은 많은 뚜렷한 변수들로 구성되어서, 정보추구행태와 성과에 역동적인 성격을 부여한다 (사공복희 2003).

정보원은 공식 및 비공식 정보, 내부 및 외부정보, 구두 및 기록된 정보,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포함한다. 정보요구는 정보원과 내용을 주지하게 하고, 그것들을 검토하도록 동기를 유발한다.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직·간접적 지식과 그 과정 또는 검색된 정보에 관하여 형성된 인지는 전반적인 정보추구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정보추구의 길을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정보원과의 친숙성과 이전의 성공, 신뢰성, 포장, 적시성, 비용, 품질, 접근성 등이다. 그러나 정보추구과정을 통하여 인지 그 자체가 변화할 수 있고, 이는 정보추구를 더욱 복잡하게 할 수 있다. 전문직의 정보 인지가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피드백을 통하여 처리되어 있다.

레키 모형에서 정보추구행태는 '정보가 추구된다(information is sought)'라는 표지가 붙은 양방향 화살표로 표현된다. 정보추구과정의 최종 결과물인 '성과'는 요구가 만족되고 업무과제가 수행되어서 이 모형의 종착점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보원', '정보원 인지' 및 '정보가 추구된다'로 피드백되면서 모형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레키 모형은 전문직 집단의 정보추구행태를 연구한 연구문헌들을 광범하게 검토하여 기존 연구결과들을 통합해서 구축한 일반적 모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전문직 집단의 정보추구를 연구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의 이론적 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이론적 지평을 넓혀나갈 잠재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형은 업무 관련 과정의 정보추구를 밝히려는 목적에서 분석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일반 대중의 행태에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공복희 2003).

2.1.2 의사들의 정보추구 모형

의사들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과정과 관련된 연구들은 다른 전문직에 비해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 의사들은 의료 업무와 그 연구 결과에 관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들의 상태, 즉 치료방식, 절차, 장비 및 투약 등에 관하여 정보를

원하고 이에 필요한 정보원을 찾게 되는데 이들이 실제로 어떤 의학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또는 이용하지 않는가, 환자를 대하는 실제 업무 실행상황에서 갖게 되는 정보요구와 필요한 정보의 종류, 추구 과정 등의 문제에 중심을 두어 연구가 이루어졌다.

의사들의 의학 정보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컬리 등(Curly et al. 1990)은 228명의 인턴 의사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들의 정보 선택에 있어서의 정보원의 취사선택은 그들의 의학 훈련 정도, 정보파악정도, 정보를 이용하고 적용하는 능력의 차이 등과 함수관계에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 연구는 전문직 집단인 의사들의 정보 선택 결정 선호도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는 상당한 가치가 있지만 의사들에게 있어 왜 정보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어 지는지 그리고 정보가 차후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불충분하다. 그렇지만 의사들의 문제 해결 과정과 그 논리적 과정에 있어서 의사들은 환자에게 진단을 내릴 때에 첫째, 가정의 단계, 둘째, 일반화의 단계, 셋째, 정보 수집의 단계를 순환적으로 검토하는 프로세스를 이용하는 것을 밝혀냈다. 컬리 등의 연구에 따르면 프로세스 과정 속에서 의사들은 환자들의 상태에 대한 가정적인 판단을 통해 자신의 의학적인 지식과 자신이 수집한 관련 정보에 근거하여 어떠한 진단을 내릴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의사들은 최종적인 진단을 내리기 위해 외부적인 추가 정보를 찾게 되며 실제로 진단을 내리는 최종 단계에서는 자신이 설정한 가정의 판단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평가하여 더 나은 진단 결과를 낳기 위해 정보원에 대한 상담을 한다.

이러한 비슷한 맥락에서 의사들의 의학적 정보에 대한 검토가 플로랑스와 웰치(Florance and Welch 1992)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들은 또한 실제 의학 실무에 적용되는 실제적인 의학지식에 대한 연구를 위해 온라인상에서의 의학 지식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하였다(Leckie, Pettigrew, and Sylvain 1996).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결국 의사들이 실제 환자에 대한 의학적인 진단과 분석에 있어서의 요소는 정보의 확실성의 정도, 정보에 대한 내재적인 외부적인 가정, 결과 추론의 과정, 요구되는 논의의 유형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에 의한 의학적 진단의 분석 과정은 첫째, 예방적 진단의 가정 단계, 둘째, 진단의 단계, 셋째, 치료 방법의 선택, 넷째, 이러한 단계에 대한 학습의 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플로랑스와 웰치는 이러한 실제적인 정보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절차적 과정을 체계화하였다. 그들은 의

학적 문제의 해결이 그 논리적 분석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의 결합이나 각 요소별로 비율이 다르게 혼합된 경우나 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고먼(Gorman 1995)은 의사들의 정보요구와 관련하여 1979년부터 1995년 사이에 수행된 11편의 연구에 대한 심층적인 문헌고찰을 통해 의사들의 정보요구를 네 가지로 분류됨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인식된 요구 (응답자에 의해 표현된 분명한 요구)이며 둘째가 추구된 요구 (인터뷰한 의사가 실제로 추적한 요구)이다. 셋째는 확실한 의학지식이나 환자 데이터를 참조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된 요구이고 넷째는 처음에 의사가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인식되지 않은 요구이다. 각각 경우의 요구는 인터뷰 중에 응답자가 보고하거나, 사무실에서 직접 관찰한 것으로 이는 정보요구에 관한 것이지만, 이들은 행동, 즉 정보의 추구와 이용을 의미한다. 고먼은 의사들의 임상 질문들은 특정 환자의 이야기의 맥락과 깊은 상관을 갖고 있는, 아주 복잡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결론에서 두 가지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상투적인 일차적 정보는 기록된 정보원보다 사람에게서 비롯됨으로 이야기에 포함된 정보는 기록되기 전에 걸러지고 해석될 필요가 있으며 둘째는 의사가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지식의 많은 부분은 이야기라는 것이다. 고먼은 환자의 증상과 치료의 복잡성과 환자의 특정성 때문에 정보요구를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의사들은 주로 이야기에 의존하게 됨으로 의사들은 인적 정보원에 크게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종류의 지식은 편람이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될 수 있는 증상과 그 치료 방법들에 관한 사실들을 단순히 열거해 놓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Case 2002).

니즈위즈카(Niedzwiedzka 2003)는 폴란드의 건강관리 분야의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담자료를 분석하여 정보중재자를 통한 정보획득의 과정모형을 제시하였다. 윌슨(Wilson 1996)의 정보추구의 일반적 모형은 최종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모형이며, 정보중재자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은 관리자급의 정보행태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2]. 윌슨의

2) 윌슨(1996)은 정보추구의 구성개념으로서 맥락상에 존재하는 인간, 정보요구의 맥락, 활성기제, 중재변인을 제시하고, 이들 변인들의 작동을 설명하기 위해 정보요구의 발생, 정보추구, 정보처리와 이용의 세 개 과정을 제시하였다. 정보이용자는 특정 맥락에 존재하며, 이 특정맥락에서 정보요구가 발생하며, 중재변인과 활성변인의 영향으로 수동적인 주목, 수동적 탐색, 활발한 탐색, 계속적 탐색의 정보추구 행위가 이루어지며, [획득된] 정보는 처리되고 이용된다.

학제적 일반모형에서 제시했던 활성기제나 중재변인은 맥락상에 존재하는 중재변인으로 종합하여 정보추구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식별하였으며, 정보요구의 식별, 직접 또는 중재자를 통한 정보추구의 결정, 정보의 선정과 처리, 정보 응용의 국면을 제시하였다(김갑선 2005a).

2.1.3 기술자들의 정보추구 모형

기술자(engineer)들은 여러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전문직(기계, 화학, 전자 등)으로 산업현장에서 기술발전과 직결되는 생산 활동에 중점을 두고 업무 역할을 수행한다. 기술자들은 물건의 설계, 개발, 검증과 생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연구, 관리, 자문 및 판매 역할도 수행한다. 그들의 업무는 일반적 결론의 도출보다는 특수한 기술적 문제들의 해결을 강조한다(Pinelli et al. 1993).

한복희(1976)는 과학자, 기술자의 정보이용과 요구에 관한 연구에서 대학 및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은 학술지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생산현장에 가까울수록 특허자료나 기술보고서의 이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기술자의 경우 학술지 기사보다는 오히려 사내 기술보고서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이제환과 구정화(1999)는 관련문헌의 분석을 통해 과학기술자의 업무과제 맥락에서의 정보요구의 개념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영향요인으로서 개인적, 업무적, 조직적, 사회문화적 요인을 제시하고 이들 요인이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맺고 역동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기술자들의 작업현장에서의 정보추구와 이용 과정모형(ISU)을 도출한 척(Cheuk 1998)은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는 기술자 18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업무를 완성하기 위해 어떻게 정보를 찾고 이용하는지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세 개의 결과를 밝혔다. 첫째는 조사 자료로부터 7개의 정보추구와 이용 (Information Seeking and Use : ISU)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고[3] 둘째는 각각의 "ISU" 상황에 따라 구별되는 분명한 행동양식이 있다는 것이며 셋째는 기술자들은 다방면의 경로를 통해 이 7개의 "ISU" 상황 사이를 오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정보사용자의 "ISU" 상황이 고려되고 이용자들에게 직접

3) '직장에서의 7개의 정보추구와 이용 상황'은 첫째, 과제시작 상황, 둘째, 주안점 형성 상황, 셋째, 아이디어 가정 상황, 넷째, 아이디어 확인 상황, 다섯째, 아이디어 기각 상황, 여섯째, 아이디어 종료 상황, 일곱째, 아이디어 양도 상황 이다.

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 서비스나 시스템이 사용자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보 활용 교육에 이 모형 이론을 적용시킬 경우 학생들로 하여금 각각 다른 "ISU" 상황들을 인식하고 서로 다른 "ISU" 상황을 끊임없이 오가는 동적인 과정을 이해하게 할 수 있다.

척(1999)은 1998년 연구에 이어 1999년에 맥락에서의 정보추구와 이용에 관한 연구를 소개하면서 맥락은 정보의 추구와 이용을 정의하고 연구함에 있어 시간과 공간 그리고 이동을 고려하여야 하는 "Sense Making" 방법론을 이용하여 탐색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맥락과 상황을 항상 예측 가능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건으로 개념화해온 대부분의 전통적인 연구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응답자들은 세 개의 전문직, 즉 회계사, 기술자, 건축가가 되었으며, "Sense Making"의 인터뷰 접근법은 최근 그들의 업무는 직면한 상황에 있어 정보추구와 이용에 초점을 맞춘 질적인 자료를 수집하는데 사용되었다. "Sense Making" 메타이론(meta-theory)의 연역적 적용을 조사 자료의 귀납적 영향력과 연관시키는 반복적인 비교 분석은 위에 언급된 일곱 개의 상황(1998)에 추가하여, 이 연구에서 정보추구상황유형이라고 부른 10개의 정보 요구 상황, 즉 첫째, 과제시작 상황, 둘째, 주안점 형성 상황, 셋째, 아이디어 가정 상황, 넷째, 아이디어 확인 상황, 다섯째, 아이디어 기각 상황, 여섯째, 아이디어 종료 상황, 일곱째, 아이디어 공유 상황, 여덟째, 승인하기 상황, 아홉째, 설계 생성 상황, 열 번째, 승인 추구 상황의 10개의 정보추구상황 유형을 밝혀내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들 중 7개는 세 가지 모든 전문직 그룹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유성들은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기존 연구들은 주로 직업 영역들 사이의 차이점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결론은 시간에 삽입된 것으로 개념화되고 정보 이용자들이 시간과 공간을 통해 그들의 활동을 만들어 갈 때 인지과정 활동들로부터 생겨나는 정보추구상황유형을 고려하는 것의 유용성을 지적한다.

2.1.4 기자들의 정보추구 모형

기자(journalist)는 정보의 이용자인 동시에 정보의 생산자라는 측면에서 전문직의 정보추구행태 연구영역에서 중요한 연구대상 중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자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선별하며 이를 다시 가공하여 독자들에게 정확하고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주요한 업무이다. 뉴스 보도라는 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적절한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정보추구의 맥락에서 기자를 대상으로 정보추구행태를 연구해 보면 쓰거나 말하기, 그리고 촬영을 통하여 발견된 것을 전달한다는 그 일차적 업무와 함께 주로 정보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선화(2005)는 점점 개방되고 있는 취재환경 변화에 따른 기자들의 정보추구행태를 기자들의 경력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일간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수행했는데 정보화가 취재활동에 미치는 영향, 변화된 환경에 필요한 정보의 형식과 이용행태, 인터넷이 취재와 보도에 미치는 영향, 취재환경 변화에 따른 기자의 자질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개방형으로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의 분석결과 기자들이 활용하는 정보원이 비공개된 정보에서 공개된 정보로 그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간부기자는 인맥을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인식하고, 중요한 취재는 비공개된 사석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반면 평기자는 공개된 정보 수집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비공개적인 취재보다는 전문성과 분석력을 갖춰야 취재경쟁에서 도태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니콜라스와 마틴(Nicholas and Martin 1997)은 기자들의 정보추구와 정보접근에 관한 연구에서 기자들의 취재행태를 분석한 후 정보 활용 현황을 분석하였다. 니콜라스는 업무환경에 컴퓨터가 도입됨에 따라 젊은 기자와 중견기자들 간의 업무처리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인터넷 활용이 일반화되면서 취재원과 기자들 간의 면대면 접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였다. 기자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보를 입수하게 되며 다양한 정보 중에서 선별하고 이를 보도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신문사의 도서관은 마치 보험과 같은 존재로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엣필드와 도웰(Attfild and Dowell 2002)은 신문기자들의 정보추구행태 연구에서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기자들이 새로운 기사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어떠한 맥락에서 정보를 추구하는지를 설명하였다. 정보추구의 맥락은 여덟 개의 업무 단계로 나누게 되는데 1단계, 서베이(survey), 2단계, 연결(chaining), 3단계, 모니터링(monitoring), 4단계, 훑어보기(browsing), 5단계, 구분(distinguishing), 6단계, 필터링(filtering), 7단계, 발췌(extracting), 8단계, 마무리(ending)로 여덟 개의 단계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보를 추구하는 특성을 설명하였다.

2.1.5 기타 전문직들의 정보추구 모형

코블딕(Cobbledick 1996)은 예술가를 대상으로 시각적, 영감적, 기술적인 정보와 예술계, 예술 시장의 최근 동향에 대한 예술가들의 정보원을 설문조사함으로써 예술가들의 정보추구행태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예술가들은 예술과 관련이 없는 도서관이나 인쇄된 자료를 이용하고 개인 간 정보교류를 통해 예술계의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반트(Thivant 2005)는 프랑스 은행에 근무하는 투자분석가들의 정보추구와 이용행태를 밝히고자 척(1999)의 열개의 상황을 재조정하고[4], SICIA(상황, 복잡성, 정보활동) 방법을 적용하였다. 다섯 개의 정보추구 이용 상황별로 업무과제 환경의 복잡성 수준과 정보추구 전략을 이론적으로 도출하여, 이를 투자분석가들의 정보추구에 적용하였다. 다섯 개의 정보추구 이용 상황은 첫째, 새로운 상황, 둘째, 전환적 상황, 셋째, 사실적 상황, 넷째, 문제적 상황, 다섯째, 결정적 상황이었다. 여섯 개의 업무 과제 환경의 복잡성 수준은 첫째, 단순 기술적 환경, 둘째, 복잡 기술적 환경, 셋째, 단순 사회적 환경, 넷째, 복잡 사회적 환경, 다섯째, 단순 개인적 환경, 여섯째, 복잡 개인적 환경이었다. 여덟 개의 정보추구 전략은 첫째, 단순 전략, 둘째, 기술 전략, 셋째, 브라우징 전략, 넷째, 상호검토 전략, 다섯째, 모니터링 전략, 여섯째, 선택적 전략, 일곱째, 검토 전략, 여덟째, 강화 혹은 강조 전략이었다.

2.2 전문직의 정보추구 연구경향 또는 모형 분석

전문직의 정보추구 연구경향은 일반적인 정보추구에 관한 연구들과는 달리 정보원 그 자체의 유형이나 본질보다는 전문직들이 이용하는 정보원을 식별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훨씬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업무 과제 수행에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하는가, 여러 다양한 과제들에 어느 정도의 복잡성이 존재하는가, 정보를 해석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가, 특정 유형의 정보원을 이용하는 정도 등에 대해서 미시적 관점을 갖고 전문직들의 정보요구 및 추구 과정이 연구되고 있다. 연구결과들은 대체로 전문직 각각의 업무 목표 및 환경에

4) 척의 열개의 상황은 첫째, 과제시작 상황, 둘째, 주안점 형성 상황, 셋째, 아이디어 가정 상황, 넷째, 아이디어 확인 상황, 다섯째, 아이디어 기각 상황, 여섯째, 아이디어 종료 상황, 일곱째, 아이디어 공유 상황, 여덟째, 승인하기 상황, 아홉째, 설계 생성 상황, 열 번째, 승인 추구 상황이다.

따라 이질적인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를 가지고 있으며, 주로 직접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를 입수한다는 특성과 정보를 입수함에 있어 동료 연구자 및 개인적인 정보원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방법 또한 이러한 전문직들의 정보추구행태의 특징적인 성향에 기인하여, 수백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양적 접근법 대신에 전문직들의 업무 환경을 조사하고 직접 연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방문하여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질적인 연구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량적인 양적인 연구방법에서 정성적인 질적 연구방법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사례연구, 관찰, 심층 인터뷰 등이 자료 수집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전문직의 정보추구를 모형화 하려는 시도는 종사하는 직종의 수만큼이나 다양하게 이루어 졌다. 어떤 모형은 개인을 시작점에 두고 있고, 어떤 모형은 조직적 배경을 고려하고 있으며, 또 다른 모형은 정보추구 방법을 한 두 개의 핵심적인 업무 활동에만 한정시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렇게 다양한 관념적 체계와 시각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형들의 공통된 가정이나 주제는 명확하다. 첫째, 고객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나 전문직적 조언의 준비가 모든 전문직을 연결짓는 중요한 활동인 반면, 각 전문직 종사자들은 조직구조, 역할, 목표 그리고 소속집단의 문화에 있어서 서로 매우 다른 특정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 종사자들의 정보 찾기 활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전문 활동이 행해지는 보다 넓은 업무 맥락이 면밀히 조사되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다양한 전문직 집단에 대한 많은 연구는 전문직들의 정보추구 과정을 이해하려면 개인 업무의 상세한 부분이 깊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종류의 지식을 필요로 하고, 필요로 한 지식을 얻고, 그 지식을 사용하는 것은 매일매일 업무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셋째, 전문직들의 업무 또는 역할들은 종종 명확하며 함께 수행되어야 하는 관련 업무에 의해서 훨씬 복잡해진다. 이는 역할과 업무로부터 일을 추진할 때 반드시 맞닥뜨리게 될, 정보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할과 업무는 종종 전문직의 정보추구 모형의 가시적 구성요소가 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전문직 집단에 대한 연구는 전문직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보를 찾는데 번번이 실패한다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복잡하고도 상호 연관된 다양한 변수들이 정보추구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보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직문화, 개인의 습관, 정보 체계와 정보

원의 이용 가능성, 직업 계발에 대한 투자 등이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록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던 변수들, 즉 정보 검색에 있어서의 접근 가능성, 용이성 등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러한 변수들은 정보추구행태에 예측불가능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것이 영향을 미치는 행태는 개인마다 다소 다르다. 따라서 정보추구에 관한 모형이 적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보추구 과정의 복잡성과 예측불가능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충분한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직의 정보추구 과정의 최초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레키 모형(그림 1 참조)을 통해 보듯이 전문직은 매일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 업무는 특별한 정보에 대한 요구를 촉발시키고, 이는 정보추구 과정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정보추구는 궁극적으로 결과에 부정적일 수 있는, 상호 작용하는 수많은 변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 이 모형의 모든 요소들이 동시다발적인 것처럼 전문직의 업무 활동 또한 복잡성을 띄게 한다. 그래서 전문직들은 평소 업무 과정에서 복잡한 업무 활동을 수행하며 서비스 제공자, 관리자/경영자, 연구자, 교육자, 그리고 학습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Leckie, Pettigrew, and Sylvain 1996).

3. 법조인의 정보추구

3.1 국내 연구

국내에서 법조인의 정보추구행태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관련 연구의 경우에도 도서관정보시스템이나 법률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선호하는 정보원이나 정보채널을 조사하기 위한 시스템 중심적인 정보추구와 이용의 상황에서 어떤 일반적인 패턴을 찾아내려고 노력한 연구가 부분적으로만 진행된 바 있다.

국내에서 법조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관련 연구는 김광진(1996)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김광진의 연구는 법조인의 법률정보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에서 전문분야를 가지고 공동으로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는 법조인 중 검사를 제외한 판사, 변호사를 대상으로 법조인의 특성과 법조인이 법률서비스에 필요한 법률정보를 이용하는 행태에 있어서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외국 법률정보의 국가별 이용도, 법률정보원에 접근하는 방법에서의 우선순위, 법

률정보의 대리조사자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법률 정보 매체별 이용도의 차이를 밝혔다. 연구 결과 법조인은 법률서비스 전문분야에 따라 외국의 국가별 법률정보 이용도, 법체계에 따른 법률정보의 접근방법, 법률정보 대리조사자에 대한 만족도, 법률정보 매체별 이용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의 법조인 대상 연구 중에서 업무 맥락에서 갖게 되는 정보 요구 원인이나 추구 과정, 과정 중심의 문제극복에 대한 진행적인 처리 과정이나 개인이 처한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여러 수준의 맥락에서 분석하고, 그것이 누적됨으로써 인간과 사회 전반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에 도달하려는 노력은 찾아볼 수 없다. 국내에서 법조인을 대상으로 업무 맥락에서 정보 요구 요인 및 추구 과정에 대한 연구가 다른 전문직에 비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대체로 그 분야의 특정성과 현저히 낮은 접근용이성에 기인한다. 따라서 법조인을 대상으로 업무 맥락에서 갖게 되는 정보 요구 및 추구 행태에 대한 질적인 연구는 지금까지 수행된 바 없으며, 법조인들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나 선호하는 정보원의 유형 정도를 파악하는 양적인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3.2 국외 연구

국외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에 비해 비교적 다수의 법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추구행태 연구(Vale 1988 ; Hainsworth 1992 ; Sutton 1994 ; Leckie etc. 1996 ; Wilkinson 2001)가 수행되었으나 이들 연구 또한 다른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법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 할지라도 검사, 판사, 변호사를 모두 포괄하는 법조인 전체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5], 검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들 연구에서도 검사, 판사, 변호사 각각의 직역에 따른 비교를 통한 미시적인 정보추구행태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찾아볼 수 없다.

베일(Vale 1988)은 변호사의 정보구조와 정보추구행태 연구에서 변호사들의 정보추구 수준, 정보구조의 성격, 메시지 전달 방법 및 통로가 변호사들의 정보추구행태와 어떤 관련성을 보여주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쇄물과 온라인 매체의 특성이 각각의 정보 매체 사용에

5) 법조인 중에서는 변호사들의 정보 요구와 정보추구 과정에 대한 연구가 다른 직역에 비해 활발한 편이다.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것이다. 베일은 법률연구에 있어 정보추구모형은 직접적인 비용, 업무관련적, 조직적, 환경적, 개인적 변수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모형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있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하여 얻은 자료를 사용하여 실험한 결과이며, 예측한 대로 온라인 기술의 상대적 이용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인자로 '접근성'이 나타났다. '접근성' 다음으로 '시간 비용'이 나타났는데, 이는 정보추구와 관련하여 소극적 인자지만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온라인 매체의 경우는 시간적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다른 매체들보다 그 이용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상대적" 이용성 측면에서 적극적 인자로 평가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베일은 정보획득을 위한 매체 이용의 체계적인 변화를 평가하면서 응답자들의 법률연구에 있어 인쇄물과 온라인 매체의 사용 빈도를 기준으로 네 개의 그룹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각 그룹은 비용, 업무관련적, 조직적, 환경적, 개인적 변수들의 배열에 대한 판별 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베일은 매체 이용의 체계적인 변화는 정보에 대한 '필요성', '자율성'과 '비용 민감성' 세 가지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첫 번째 기능인 '자율성'은 정보이용자가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가의 문제다. 이 기능은 정보 매체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한다. 두 번째 기능인 '자율성'은 이용자가 정보 환경을 조직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통제력을 갖는가로 특징 지워진다. 이 기능은 온라인 매체와 인쇄물 중 어느 것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이용자를 구별한다. 셋 번째 기능인 '비용 민감성'은 매체 접근의 상대적 비용과 매체 사용의 시간 비용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다.

서턴(Sutton 1994)은 변호사들의 법적 추론의 정신적 모형을 이론화하였다. 그는 "변호사들의 정보추구행태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알려진 것이 거의 없고", 단지 몇몇 일화와 법률 연구 입문서에 의존해 왔다는 것 정도를 알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레키, 페티그루와 실베인(1996)은 변호사의 정보추구에 대한 분석에서 법률 연구의 본질과 실제에 관하여 변호사의 주요 활동, 즉 수반되는 법률 연구와 함께 변론, 법률 문서의 초안 작성, 고객 상담, 결과의 조정 및 실무의 관리 활동에서 각각 상당한 양의 다양한 정보추구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연구의 초점은 법률 정보검색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지만, 변호사들이 법률 소송에 관하여 생각하는 방식에 관하여, 그리고 그 방식이 소송과 관계있는 판결들을 검색하는 것에 관하여 무엇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를 담고 있다. 그는 변호사들은 그들이 받은 법률 교육에 의존하여 법의 영

역을 규정하는 주요한 소송들을 우선 확인하고 나서, 그것들로부터 당면한 소송과 유사한 사실에 관련 있는 법적 원칙을 적용한 소송들을 발견해 나간다고 하였다. 이 과정을 "맥락에 민감한 탐구"라고 부르며 궁극적으로 관련 있는 소송들에 대한 검색은 하나의 법적 판결에서 다른 판결로 인용들을 추적하는 것이 되는데, 이는 엄청나고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잠재적으로 관련 있는 소송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의 어떤 것은 보다 최근의 판결에 의하여 파기되고, 비난받거나 기각되었을 수도 있고, 이들의 상태는 아직 소송법에 관한 색인시스템에 완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서 법적 공방에서 상대편이 인용할지도 모르는 모든 소송들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였다.

콜과 쿨타우(Cole and Kuhlthau 2000)는 15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문제해결에 관한 심리학 연구들을 기반으로 변호사들의 정보추구행태가 소송과 관련하여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연구하였다. 15명의 변호사들 중 일부는 변호사직을 막 시작하였고, 나머지는 보다 숙련된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잠재적 해결책과 연결하는 능력이 법률 전문직에게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그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 관찰한 다음 네 개의 점의 부가가치 호(value-added arc)로 표현하였다.

콜과 쿨타우의 첫 번째 가치 점은 어떤 정보가 소송에 가장 적합한지를 효율적으로 식별해내는 것으로, 이전에 있었던 소송사례 중 인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송사례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특정 정보가 의뢰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의뢰인이나 배심원과 판사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증인에게 질문하고 소송의 개요를 정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경험 있는 변호사들이 "의뢰인이나 배심원과 판사에게 효과적으로 의사 전달이 가능하도록 효과적인 소송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쟁점들을 망라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더 다듬기'로서 변호사들이 자신의 정보를 포장하여 판사, 배심원, 또는 의뢰인이 그 정보에 따라 반응할 수 있도록 할 때 나타난다. 즉 구체적 사건에서 최종판단을 위해서 어떤 사실들을 확증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 현실화된다.

콜과 쿨타우는 그들이 제시한 네 개의 점을 정보를 구성하고 포장하고 나서 이것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서술하였다. 법적 전문성은 변호사로 하여금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생각하

도록 자극하는 단순한, 거의 공식화된 장치에 의하여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

윌킨슨(Wilkinson 2001)은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하는 정보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실증적인 연구를 하였다. 윌킨슨은 이전 연구가 변호사들이 정보추구활동을 하는데 있어 수행하는 중심적 업무로서 법률 연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지만 실무 변호사들과의 150번이 넘는 인터뷰의 분석으로 법률 연구가 정보추구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한다. 인터뷰한 변호사들은 소송 처리와 같은 다른 과업들을 문제해결구성, 정보추구활동과 동일시하였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변호사들은 정보를 찾을 때 압도적으로 특정 정보원을 선호한다고 보았다. 작은 법률회사의 변호사들일수록 외부 정보원보다는 그들 조직 내부의 비공식 정보원을 더 선호했으며, 변호사의 성별이나 법률회사의 규모(로펌, 개인법률사무소)는 어느 것도 선택된 정보원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인스워스(Hainsworth 1992)는 플로리다주의 다섯 개 지방법원의 57명의 상소심 판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정보추구행태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확인하고 분별하고 설명하였다. 정보추구행태는 정보 이용자들이 어떻게, 언제, 왜, 어디서, 그리고 무엇에 관하여 정보를 찾는지, 그리고 어떤 요소들이 정보추구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기여하는지를 조사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상소심 판사들은 판단자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광범위하게 정보를 사용한다고 보았다.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 판사들을 도와주는 정보는 법원기록, 변호사의 준비서면, 구두변론을 통해서 제공되며 판사들은 또한 동료법관, 비서, 컴퓨터, 개인 및 중앙도서관을 통해서 외부에서도 정보를 찾는다고 하였다. 하인스워스는 다섯 개의 지방을 방문하였으며 표본추출은 하지 않았고, 판사들의 정보추구행태를 설명하기 위해 세 개의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개별 인터뷰를 통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고, 양적 자료는 설문조사와 구두변론의 조직되어진 관찰을 통해 수집하였다. 자료를 수집한 결과, 자료는 판사 개인, 그들의 조직, 그들의 법적 환경의 범위 내에서 영향을 받는 정보추구패턴들이 있다는 증거를 찾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13가지 결론을 내렸다. 첫째, 판사들은 그들에게 제공된 정보를 신뢰하지 않으며, 둘째, 판사들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도 제공되지 않는 정보를 조합하는 것에 관한 특별한 필요를 느낀다. 셋째, 정보를 추구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사건의 처분과 관련된 판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넷째, 실무경력에 따라 변론에 필요한 정보추구 패턴이 달라진다. 다섯째, 언제 판사들이 가장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두 가지

결정적인 사건(event)이 영향을 주며, 여섯째, 판사들은 독립적으로 정보를 찾는다. 일곱째, 정보의 관련성과 가치에 따라 특정 정보원을 선택하며, 여덟째,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정보수집 수단 중 두 가지만 없어도 정보추구행태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고, 아홉째, 판사들의 정보추구 작업의 질은 주로 그들이 느끼는 만족감에 의해 좌우된다. 열째, 판사들의 컴퓨터 사용은 대부분 그들의 직업적 특성에 영향을 받고, 열한째, 판사들은 인쇄 출력된 정보를 선호하며, 열두째, 정보를 추구하는 작업은 법원 안에서 한정되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간이다.

지금까지 국내 연구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면서도 선호하는 정보원, 정보채널 등을 파악하는 등의 이른바 시스템 중심의 연구인 반면 국외 연구는 정보를 추구하는 주체, 인지과정을 갖는 인간의 행태를 파악하려는 인간 중심의 이용자연구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업무맥락에서의 법조인의 정보추구

구분	연구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내용
국내	김광진. 1996	양적/설문조사	판사 변호사	법조인의 특성, 법률서비스에 필요한 법률정보 이용행태의 차이, 법률 정보 매체별 이용도의 차이
국외	Vale.1988	양적/설문조사	변호사	업무과제 수행시 정보추구 수준, 정보구조의 성격, 정보채널 선택의 영향요인 등
	Sutton. 1994	양적/설문조사	변호사	변호사들의 법적 추론의 “정신적 모형” 이론화
	Cole & Kuhlthau. 2000	질적/인터뷰	변호사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들의 정보추구 과정 확인
	Wilkinson. 2001	양적+질적/ 설문조사+인터뷰	변호사	수임한 사건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원 및 정보추구 과정 등
	Hainsworth. 1992	양적+질적/ 설문조사+ 개별인터뷰	판사	업무과제 수행시 정보추구에 미치는 개인, 조직, 환경적 영향요인 구명

4. 정보추구와 질적 연구

정보추구에 대한 연구는 1940년대 이래 시스템 지향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1970년대와 1980년대를 지나면서 이용자 지향적인 연구로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게 되었다. 이용자 측면에서 바라보는 정보추구행태는 일반화하기가 어렵고 관찰 또한 쉽지 않다.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관심 대상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Case 2002). 이와 관련하여 쿨타우(Kuhlthau 1991)는 정보추구란 불확실성에서 시작하여 이해에 이르는 구성의 과정으로, 특정한 문제나 논제에 관한 지식의 상태를 확대하기 위해 정보로부터 의미를 발견하는 이용자의 활발한 구성주의적 활동이며, 이는 문제해결과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용자의 정보요구가 유발되고 해결되어지는 일련의 특정 맥락과 시간 경과에 따른 제 변화 추세인 과정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다분히 맥락 지향적이고, 과정 지향적이며, 역동적이므로 정보추구 연구는 맥락성, 과정성, 그리고 맥락성과 과정성을 연계하는 역동성과 복잡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쿨타우는 정보추구행태 모형은 정보이용자 집단의 특성, 정보이용자가 위치한 상황, 또는 필요한 정보원의 유형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설명, 강조하는 요점에 차이가 있으며, 적용되는 분야나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용자 지향적 정보추구행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이 강조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정보원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심리적 요인의 전체적인 틀을 제공하는 이론 또는 모형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과 모형 연구는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따른 사람들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매일 정보원을 이용하고 선호하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업무과제 관련 정보추구와 대조하여 일상생활 속 정보추구 자체를 특정화할 필요성에 의해 정당화되고 있다(Yoon 1992).

사람들의 일상, 정보요구, 정보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질적인 연구방법론의 정당성과 질적인 경험데이터에 근거한 정보추구 분석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특히 소규모의 사례연구를 통해 진행되는 질적인 방법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추구행태에서 특정 집단의 특정 상황에서의 정보 요구 및 추구 과정에 대한 연구로 미시적인 관점으로 이동함으로써 특정 집단의 정보추구행태를 특정화,

세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추구 과정이 개인마다, 맥락에 따라 차이를 보이게 되며, 이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현상에 대한 비제한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주어진 현상, 실제적인 상황에서의 연구대상 및 현상에 대한 어떠한 조작 없이 있는 그대로를 탐구할 수 있는 질적 연구는 이용자 지향의 정보추구 분석에 적합한 방법론으로 평가받고 있다. 질적 연구는 특정 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비슷한 맥락에 있는 대상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연구현장, 대상에 대하여 전체론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주어진 상황, 맥락, 사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자와 연구대상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형성된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토대로 해석, 이해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 결과는 연구 현장의 맥락과 거기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바라보는 논리적 창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신경림 외 2004).

물론 질적 연구는 특정 집단을, 특정 상황에서 비슷한 맥락에 있는 대상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연구결과를 외부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양적 연구결과는 다수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그들의 전체적인 경향성 제시와 경향성의 일반화에 적합한 방법론이다. 질적 연구의 경우 양적 연구처럼 연구 결과의 일반화 및 계량화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질적 연구로서의 타당도(validity)와 신뢰도(reliability)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 과정에서의 엄격성을 추구하는 것이 요구된다(이종규 2006).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업무과제 맥락에서 법조인의 정보추구행태와 관련된 국내외 논의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연구동향을 개관하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방향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법조인의 정보추구행태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특정 집단, 특히 전문직의 업무 중심적인 정보추구행태 분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전체론적인 방법의 중요성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강조되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추구행태 분석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그 분야의 특수성과 현저히 낮은 접근용이성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법조인들의 정보추구행태는 정보추구행태의 경험적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구축된 것으로, 업무역할과 업무과제를 정보추구의 일차적 동기부여자로 보고 있다. 그리고 정보요구는 다수의 개입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개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나이, 직업, 전문분야, 경력 단계와 지리적 위치)은 물론이고, 정보요구의 보다 일반적 특성으로서 상황, 빈도, 예측성, 중요성과 복잡성이 정보 요구에 영향을 끼치거나 구체화하는 변수들이라고 하였다. 정보원은 공식 및 비공식 정보, 내부 및 외부정보, 구두 및 기록된 정보, 개인의 지식과 경험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연구방법에 있어서 대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양적인 방법을 주로 이용하던 행태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사례연구, 면담을 통해 진행되는 질적인 방법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는 업무맥락의 특정 상황에서 법조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정보 요구 및 추구 과정에 대한 연구가 미시적인 관점으로 이동하여 점점 특정화,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연구경향을 토대로 향후 연구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법조인의 정보추구행태 모형의 일반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집단의 다양한 정보요구 및 추구 경험과 추구 과정, 정보추구를 통한 업무의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한 연구가 양적으로 많아야 하며, 이렇게 일반화 된 모형은 향후 법조인 양성제도인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 내 정보시스템 개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으로서 법조인의 정보 활용도를 극대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둘째, 법조인들이 맡은 사건과 관련된 업무과제 맥락에서 정보추구 이용 상황에 따른 업무과제 환경의 복잡성 수준과 정보추구 전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맡은 사건과 관련된 업무에 따른 '상황적 접근(situational approach)'과 업무 환경의 복잡성(사회적, 기술적, 개인적인 측면)과의 관련성, 정보추구와 정보추구 전략 간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또한 각각 직역에 따른 비교를 통한 미시적인 정보추구행태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실제 법조인의 업무맥락과 맡은 특정사건 처리 맥락에서 정보추구가 가지는 복잡다양성과 다차원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관점

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인지적 업무 분석(Cognitive Work Analysis) 연구모형[6], "Sense Making" 이론[7] 등)을 사용하여 사례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질적 연구는 특정 상황에서 비슷한 맥락에 있는 대상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6) 인지적 업무 분석(Cognitive Work Analysis)은 인간과 시스템 사이에 나타나는 정보행위에 대하여 문제 지향적 접근을 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 연구 방법은 정보시스템 설계자가 정보추구자의 업무영역에서의 행태와 조직적인 관계, 제약사항 간의 복합적인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업무 수행동안의 인지적인 특성 및 사회적인 행위, 주관적인 선호사항을 구명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화되었다 (Fidel 2000). 정보시스템 설계자는 이 연구 방법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정보추구행태를 인지적, 업무적, 정보 능력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조성과 이용자가 특정 업무환경에서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개발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의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각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7) "Sense Making" 이론은 일련의 개념 및 이론적 전제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구축해 가는가, 특히 인지의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정보요구를 구성하고 정보를 이용하는가」를 연구하면서 사용된 일련의 관련 방법론에 대한 명칭이다. "Sense Making" 접근법은 특정한 환경 속의 정보의 이해와 어떻게 정보요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그것들이 만족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접근법을 사용하는 연구에서의 "Sense Making"은 어떤 개인이 시간과 공간의 흐름 속에서 그의 행태를 구성하고 설계해 가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내재적(인식적), 외재적(과정적) 행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Sense Making"은 커뮤니케이션 행동이라 할 수 있으며 커뮤니케이션 행동 연구를 위한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Dervin 1983).

참 고 문 헌

- 김갑선. 2005. 정보추구행태 모형의 연구 경향. 『정보관리학회지』, 22(4): 235-254.
- 김광진. 1996. 『법조인의 법률정보 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사공복희. 2003. 정보추구행태모형의 비교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0(1): 93-119.
- 신경림 외.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제환, 구정화. 1999. 수요자 중심의 '정보요구'분석을 위한 실험적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2): 93-119.
- 이종규. 2006.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 장선화. 2005. 취재환경 변화에 따른 기자의 정보추구행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165-182.
- 한복희. 1976. 『과학자, 기술자의 정보이용과 요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도서관학과.
- Case, Donald Owen. 2004. 정보추구행태론. 사공복회, 윤정옥 공역.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원저: Looking for information : a survey of research on information seeking, needs, and behavior. San Diego, Calif.: Academic Press. 2002.
- Attfield, Simon and John Dowell. 2003. Information seeking and use by newspaper journalists. Journal of Documentation, 59(2): 187-418.
- Case, Donald O. 2002. Looking for information: a survey of research on information seeking, needs, and behavior. San Diego, Calif.: Academic Press.
- Cheuk, Bonnie Wai-yi. 1998. "Modelling the information seeking and use process in the workplace: employing sense-making approach." Information Research, 4(2). [cited 2007.8.5]. 〈http://informationr.net/ir/4-2/isic/cheuk.html〉.
- Cheuk, Bonnie Wai-yi. 1999. "A qualitative sense-making study of the information seeking situations faced by professionals in three workplace contexts." The Electronic Journal of Communication, 9(2/3/4).

[cited 2007.8.5]. 〈http://www.cios. org/EJCPUBLIC$$354732758483$$/009/2/009215.html〉.

- Cobbledick, Susie. 1996. "The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artists: Exploratory interviews." Library Quarterly, 66(4): 343-372.
- Cole, C. and Carol C. Kuhlthau. 2000.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eeking of novice versus expert lawyers: how experts and value." The New Review of Information Behaviour Research, 1: 103-116.
- Curley, Shawn P., Donald P. Connelly and Eugene Rich. 1990. "Physicians' use of medical knowledge resources: preliminary theoretical framework and finding." Medical Decision Making, 10 (October- December): 231-241.
- Dervin, Brenda. 1983. An overview of sense-making research: concepts, methods, and results to date.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Annual Meeting, Dallas, Texas, USA, May 1983.
- Ellis, David. 1989. "A behavioral approach to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design." Journal of Documentation, 45(3): 171-212.
- Ellis, David. 1993. "Modeling the information seeking patterns of academic researchers: A grounded theory approach." Library Quarterly, 63(4): 469-486.
- Ellis, David, Debora Cox, and Katherine Hall. 1993. "A comparison of the information seeking patterns of researchers in the physical and social sciences." Journal of Documentation, 49(4): 356-369.
- Florance, Valerie and Welch, William H. 1992. "Medical knowledge for clinical problem solving : a structural analysis of clinical questions." Bulletin of the Medical Library Association, 80(April): 140-149.
- Gorman, Paul N. 1995. "Information needs of physician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6(10): 729-736.
- Hainsworth, Melody May. 1992. Information-seeking behavior of judges of the Florida District Courts of Appeal. Ph.D. diss.,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 Jonson, J. David. 1997. Cancer-related information seeking. Cresskill, NJ:

Hampton Press.

- Krikelas, J. 1983.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patterns and concepts." Drexel Library Quarterly, 19: 5-20.
- Kuhlthau, Caroal Collier. 1991. "Inside the search process: Information seeking from the user's perspective."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2(5): 361-371.
- Kuhlthau, Caroal Collier. 1993. "A principle of uncertainty for information seeking." Journal of Documentation, 49(4): 339-355.
- Leckie, Gloria J., Karen E. Pettigrew and Christian Sylvain. 1996. "Modeling the information seeking of professionals: A general model derived from research on engineers,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lawyers." Library Quarterly, 66: 161-193.
- Nicholas, David and Helen Martin. 1997. "Assessing information needs: A Case Study of Journalists." Aslib Proceedings, 49(2): 43-52.
- Niedwiedzka, Barbara. 2003. "A proposed general model of information behaviour." Information Research, 9(1). [cited 2007.8.5]. 〈http://informationr.net/ir/9-1/paper164.html〉.
- Sutton, S. 1994. "The role of attorney mental models of law in case relevance determinations: an exploratory analysi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5(3): 186-200.
- Thivant, E. 2005. "Information seeking and use behaviour of economists and business analysts." Information Research, 10(4). [cited 2007.8.5]. 〈http://informationr.net/ir/10-4/paper234.html〉.
- Vale, Mark Edgar. 1988. Information structure and th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lawyers. Ph.D. diss., Stanford University.
- Wilkinson, Margaret Ann. 2001. "Information sources used by lawyers in problem-solving: An empirical exploratio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3: 257-276.
- Wilson, T.D. 1981. "On user studies and information needs." Journal of Documentation, 37(1): 3-15.
- Wilson, T.D. 1997. "Information behaviour: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33(4): 551-572.

■ Wilson, T.D. 2000. "Recent trends in user studies: action research and qualitative methods." Information Research, 5(3). [cited 2007.8.5]. 〈http://informationr.net/ir/5-3/paper76.html〉.

■ Yoon, Cheong-ok. 1992. The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f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Ph.D. diss, University of California.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협동목록에 관하여[1)]

Co-operative Cataloguing in South Afric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Gauteng and Environs Library Consortium (GAELIC)

헤스터 마라이스(Dr. Hester Marais)[2)] 저 · 신용주 역[3)]

목 차

1. 서 언
2. 남아프리카 공화국 협력 프로젝트
3. 남아프리카공화국 도서관 컨소시엄
 3.1 Cape Library Consortium
 3.2 Free State Library와 Information Consortium
 3.3 Eastern Seaboard Association
 3.4 South Eastern Academic Libraries System
 3.5 Gauteng과 Environs Library Consortium
4. 남아프리카공화국 협동 목록의 역할 담당자
 4.1 Sabinet Online
 4.2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지
5. 남아프리카공화국 고등교육의 변화
6. GAELIC 협동 목록의 이슈
 6.1 협동 목록
 6.2 동료평가체제(Peer reviewing)
 6.3 GAELIC과 OCLC Enhanced Cataloguing Status
7. GAELIC NACO 프로젝트
8.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거레코드 생성 비용
 8.1 참가기관
 8.2 데이터 수집
 8.3결과
9. 결 언

1) 이 자료는 2008년 더반 IFLA회의 시 목록분과회의에서 Dr. Hester Marais가 발표한 논문 “Co-operative Cataloguing in South Afric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Gauteng and Environs Library Consortium (GAELIC)”을 번역한 것입니다.

2) 남아프리카공화국대학교도서관(University of South Africa Library)

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식정보센터 해외정보팀

〈 초 록 〉

본 연구의 목적은 남아프리카공화국 Gauteng에 있는 대학도서관 컨소시엄인 GAELIC의 협동목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먼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3개 도서관 협력 프로젝트와 5개 도서관 컨소시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어서 협동목록을 담당하는 주요기관의 역할 및 고등교육의 개혁에 관한 파급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GAELIC의 협동 목록의 사례로서 동료평가체제(Peer reviewing), OCLC의 확장 목록(Enhanced cataloguing), GAELIC NACO 프로젝트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 서 언

도서관 협력 및 협동 목록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Grisham(1992: 38)은 미국의회도서관 카드서비스를 소개함으로써 1901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미국의 도서관 협력을 조사한 바 있다. 이것은 다른 도서관이 만든 서지레코드를 도서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통합목록의 기원을 열고 분담목록의 시작을 의미한다.

영국에서의 도서관 협력 역사는 19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Sidney Webb은 도서관협회에 런던 도서관 서비스의 협력 및 개발을 요청하였다. 그는 런던도서관의 독립을 문제시 하고 다른 런던 도서관에서 이미 이용할 수 있는 참고도서의 구입은 피하고 중앙도서관에 사서를 원조하기 위한 종합목록 구축을(간행물을 위해) 제안했다.

1907년, Gravesend의 사서들은 하나의 제도를 정하여 몇몇 런던의 공공 도서관들이 인쇄목록들을 교환하고 서로 책자들을 대출해 주기로 합의했다. 최초의 협력 계획에서 인쇄목록들은 카드와 가제식 목록으로 대체되었다(Jefferson 1966: 10-14).

도서관의 협력은 1933년에 남아프리카공화국 저널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다. "협력 및 도서관 간의 상호대출의 원칙이 인정될 경우, 우리는 이러한 특성이 모든 참여 도서관들에게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Library Coöperation [sic] 1933: 8).

이후 수십 년 간 여러 연구자들이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Varley (1941: 109-115)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도서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책들이 적은 비율의 대중에게만 열람 가능하기 때문에 책의 제공보다는 유통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써 비중을 두었다.

Van der Riet (1958: 4-7)는 1958년에 연합의 다양한 지역에 있는 도서관 자원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도서관 간의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다. Gardner (1960: 31-35)는 전국 여행을 하면서 도서관들을 방문하였다. 1960년 9월에 개최된 SALA(South African Library Association) 회의의 연사로 나선 그는 도서관 협력에 대하여 역설하였다. 1961년에 그의 의장 연설에서 협력의 시급성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Robinson 1961b: 43) 이후 같은 해에 기고한 논문에서 SALA 회의 이후 도서관 협력이 이루어진 발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Robinson 1961a: 71-77).

2. 남아프리카 공화국 협력 프로젝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최초 협력 프로젝트 중 하나는 197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Duvenage (1977: 153-156)는 Vaal Triangle의 공공 도서관들 간의 서비스 및 수집 개발에 관한 협력 합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Vaal Triangle는 Sasolburg, Vereeniging 및 Vanderbijlpark 시로 구성되어 있다. 1970년대의 이들 커뮤니티 특징은 Vanderbijlpark의 ISCOR(Iron and Steel Corporation)의 확장과 Sasolburg의 Sasol Two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석탄, 석유 및 가스 회사) 프로젝트로 인한 엄청난 수의 이민자들이었다.

도서관들은 특정 지역에서의 개별적 수집 방식을 개발하는데 합의하였다. 예를 들면 Vanderbijlpark 공공도서관에서는 지역, 경제, 교역, 비즈니스, 수학, 물리, 엔지니어링, 건축 및 유럽 역사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였으며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및 그리스 이민자들을 위한 오락적 독서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여러 도서관들의 회원들은 무료로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책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또 다른 협력 프로젝트는 1991년에 시작된 것으로써 University of Pretoria의 학술정보서비스와 CSIR(Council for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의 정보

서비스 부서에서는 이들의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정기간행물의 구매와 관련하여 운영 비용를 절약하기 위해 협력하였다. (UP-WNNR Inligtings vennootskap 1991: 14)

상기에 언급된 협력을 위한 노력들 중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중단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관심은 점점 감소되어 현재는 원래의 합의 범위 내에서 매우 작은 규모의 협력 활동만 존재하고 있다. (Duminy 2007; Pienaar 2007).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또 다른 협력 프로젝트인 CATNIP(Cataloguing Network in Pietermaritzburg)는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 CATNIP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행정가와 정책 입안자들 간의 합의라기 보다는 사서들의 통찰력과 주도적 입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CATNIP는 도서관 협력의 덕목에 관한 본능적 감정에 기반하여 공동의 관심 분야를 가진 도서관 그룹 내에서 출발하였다. University of Natal, Pietermaritzburg(UNP)의 신학교, Imbali에 소재한 Fedsem(Federal Theological Seminary), St. Joseph's Theological Institute와 Las Casas Dominican Community (모두 Cedara에 소재)로 구성된 Theological Cluster는 모두 신학 자료와 신학과 관련된 자료를 위한 온라인 목록을 통합 자료로 만들기 위해 UNP 도서관에서 목록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법,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이의 목표는 상이한 기관들로 하여금 자료의 교환 및 구매 정책의 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Evangelical Bible Seminary (EBSEMSA), Anglican House 및 Jesuit 들도 Theological Cluster에 참여하였다. 1993년 이후, Pietermaritzburg의 최대 도서관인 Natal Society Library도 자신들의 기록을 CATNIP 데이터 베이스에 추가하기 시작하였다.

CATNIP는 1990년대 말 연구, 강의 및 학습을 위한 하나의 자원 기반으로서, Pietermaritzburg의 모든 도서관들의 수집 작업을 문서화하려는 목적을 위해 진행되었다. CATNIP의 최대 업적은 통합 온라인 서지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지역적 자료의 교환, 컴퓨터와 인적 자원들의 효과적 활용이었다(Merritt 1999a: 21 26).

이와 같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있어서 도서관 협력의 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최근 도서관 협력 요청은 공식적인 협력 협정을 위한 것으로써 더욱 진전을 보이고 있는 추세이다. 서지 협력은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통합도서관시스템의 개발과 같은 연관된 분야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서지 및 전거 레코드의 교환을 위한 협력과 표준화는 서서히 진전되어 가고 이 분야에서 더욱 많은 발전이 이룩될 것이다.

3. 남아프리카공화국 도서관 컨소시엄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5개의 대학도서관 컨소시엄이 있다.

3.1 Cape Library Consortium

5개의 Western Cape 교육기관에서는 1992년에 상호 협력 가능성을 모색 중이었다. 예산 삭감, 연간물 구독 취소 및 직원 감축의 문제로 인해 조직들은 대학 커뮤니티를 필요로 했다.

WCTIT(Western Cape Tertiary Institutions Trust)의 Vice-Rectors' Group은 협력의 아이디어를 기획 하였으며 Ford Foundation에게 기금 지원 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Ford Foundation 팀은 1992년에 이 지역의 도서관들을 방문하여 도서관 컨소시엄의 결성을 제안하였으며, 하나의 주요한 커뮤니티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도서관들과 함께 협력하여 컨소시엄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De Kock 1997: 136-137).

그 결과, WCLC Project(Western Cape Library Co-operation Project)가 1993년에 시작되었다. 다음 기관들이 포함되었다.

- University of Cape Town
- University of the Western Cape
- University of Stellenbosch
- Cape Technikon[4)]
- Peninsula Technikon.

WCLC는 1994년에 Cape Library Consortium(CALICO)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WCTIT가 관리하게 되었다. Western Cape Tertiary Institutions Trust (1995: 1)에 의하면 CALICO의 비전은 다음과 같다:

---

4) Techniko은 남아프리카공화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기술 대학을 말한다. Techniko에서는 주로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실무적 접근을 위주로 한다. Techniko은 새로운 대학교 설립을 위해 여러 개의 교육기관을 합병하여 Universities of Technology로 개명되었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장소, 시간에 제한없이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정보 활용 능력 및 경제적 개발이 증진되어야 한다. 모든 시민은 이들의 삶의 질과 경제적 복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비전은 그들이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접근 가능한 모든 자원과 함께 다른 위치에 비치되는 하나의 Western Cape Library 장서 개념을 포함한다."

각 조직의 대표들은 아래와 같은 실무위원회를 조직하였다(De Kock 1997: 137):

- Document Delivery Working Group
- Co-operative Journals Project
- Van Service Committee
- Team Building Committee
- Working Group on a Shared Automated System
- Committee on a Binding Policy
- Committee on Consortium Structure
- Co-operative Staff Training Sub-committee

3.2 Free State Library와 Information Consortium

FRELICO(Free State Library and Information Consortium)는 University of the Free State의 제안서를 미국 Mellon Foundation에 제출함으로써 자원 공유 프로젝트 측면의 계획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Free State의 부총장 또는 기구의 장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1996년 8월에 회합을 갖고 기획 단계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들 조직의 참여 및 확약 가능성을 논의하였다(De Kock 1997: 140).

아래의 기관들이 계획 단계에 참여하게 되었다(FRELICO 1997: 51):

- Bloemfontein Public Library
- Free State Directorate for Information Services and Heritage
- SASOL Technical Library Services
- Technikon Free State
- University of the North, Qwa-Qwa campus
- University of the Free State

- Vista University, Bloemfontein campus
- Vista University, Welkom campus

FRELICO의 임무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Free State의 정보, 연구 및 조사 자료에의 접근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한 목적은 참여기관의 이용자들에 대해 강화된 접근성과 상호 제공에 대한 전자적 네트웍을 위한 종합 계획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를 성취하기 위해 발전가능성이 있는 5가지 분야를 정의하고 실무그룹이 조직되었다(FRELICO 1997: 52):

- 전산화된 지역적 데이터베이스/목록의 공유
- 원문복사서비스시스템
- 협력 저널 프로젝트(co-operative journals project)
- 정보 활용 능력 프로그램
- 정보 과학에 관련한 기술적 이슈에 관한 훈련

3.3 Eastern Seaboard Association

ESAL(Eastern Seaboard Association of Libraries)의 첫 번째 회의는 RICP(Regional Institutions Co-operative Project)의 후원 하에 1994년에 이루어졌다. RICP는 후에 ESATI(Eastern Seaboard Association of Tertiary Institutions)가 되었다(Merritt 1998b: 27).

ESAL은 KwaZulu/Natal에 소재한 아래 7개 교육 기관에 속한 8개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Natal Technikon
- M L Sultan Technikon
- Mangosuthu Technikon
- University of Zululand
- University of Natal, Durban
- University of Natal, Pietermaritzburg
- University of Durban-Westville

ESAL의 임무는(Merritt 1998b: 27-28):

"...지역 내에서 강의, 학습 및 연구에 뒷받침이 되는 단일 자원 기반을 개발하기 위해 동부 연안에 있는 모든 교육 기관의 도서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서로 조정하며, 국가적 서지 네트워크에 기여한다. 이는 지역적 및 국가적으로 교육의 질을 고급화 하며, 도서관들을 학술적 과정으로 더욱 긴밀하게 통합시키며, 연구의 질을 한층 고양시킴으로써 도서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4 South Eastern Academic Libraries System

SEALS(South Eastern Academic Libraries System)는 회원들 간의 협력 및 자원 공유를 위해 1989년에 조직되었다. 최초에는 조직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1996년에 회원들의 결정에 의해 더욱 공식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착수하게 되었다(De Kock 1997: 141-142).

SEALS의 구성원:

- Rhodes University
- University of Port Elizabeth
- University of Fort Hare
- University of Transkei
- Port Elizabeth Technikon
- Border Technikon
- Eastern Cape Technikon
- Vista University, Port Elizabeth campus

3.5 Gauteng과 Environs Library Consortium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도서관은 1995년에 새로운 도서관시스템에 대한 재정 지원 요청을 위해 Andrew W. Mellon Foundation(Mellon Foundation)와 교섭하였다. 당시 이들의 반응은 단일 도서관 보다는 도서관 컨소시엄을 위한 새로운 도서관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었으며 이는 지역적 협력 및 자원 공유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였다. 1996년 초, FOTIM(Foundation of Tertiary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Northern Metropolis)의 후원 하에 수석행정가, 도서관장, 정보 기술 관리자들이 Mellon Foundation의 대표들과 회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계획이 입안되었으며 GAELIC(Gauteng and Environs Library Consortium)이 창립되었다(Multi-million Volume Library... 1996: 1, 5).

GAELIC은 2001년에 고등교육을 위한 국가 계획의 실시 이전에는 아래 회원들로 구성되었다.

- Technikon North West
- Technikon Northern Gauteng (TNG)
- Technikon Pretoria
- Technikon Southern Africa (TSA)
- Technikon Witwatersrand (Wits Technikon)
- Vaal Triangle Technikon
- Medical University of Southern Africa (MEDUNSA)
- Potchefstroom University for Christian High Education (PU for CHE)
- Rand Afrikaans University (RAU)
- University of South Africa (Unisa)
- University of Pretoria (UP)
- University of the North West
-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Wits)
- Vista University (Pretoria campus)
- University of Venda
- University of the North

협약 각서(1996)에 GAELIC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지역 서비스 상호작용의 기능을 가진 실질적인 도서관을 만듦으로써 Gauteng 및 주변 지역에 있는 고객들을 위한 글로벌 커뮤니티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는 기술 및 연계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자율적인 교육 정보 서비스 그룹에 의해 달성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공식적인 교육, 훈련 및 정보 필요성에 대한 대응으로써 합의에 의한 협동 및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필요성을 수용하는 것이다."

GAELIC의 임무는 고객들에 대한 교육, 조사 및 평생 학습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정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개발하는 것이다.

프로젝트와 조사에 대해 책임이 있는실무 그룹 및 소 그룹들이 아래와 같이 조직되었다(Edwards 1999: 123-128):

- Systems Task Group : GAELIC 회원들을 위한 협력 도서관 시스템의 조사, 시스템 평가 워크숍 설정,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조언을 위한 자문을 담당하고, 실무 그룹은 당사자 간의 최종 계약 및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확립의 임무도 수행한다.
- 아래 업무를 위한 소 실무 그룹이 소속된 Resource Sharing Task Group
- 문서 제공
- 공동 구매
- 연속간행물 종합목록
- 인적 자원
- 또 다른 실무 그룹, 즉 다수의 소 실무 그룹을 가지고 있는 GAELIC Cataloguing and Technical Services Work group(Gcats)는 이 그룹으로부터 통합되었다. 이들 소 실무 그룹은 종합목록을 정제하기 위해 특정 책임을 다루도록 설립되었다. 명칭은 후에 Cataloguing and Technical Services Work Group으로 변경되었다.
- Networking and Infrastructure Task Group : 자원 공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보 기술 기반 수립를 담당한다.

일차적으로 GAELIC은 고도의 민주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다. 모든 도서관장, 실무팀의 대표, Sabinet Online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도서관 등의 책임자들로부터 선발된 대표자들이 운영 위원회를 맡도록 하였다. 이 그룹에서는 합의와 확약을 받기 위해 많은 배려를 하였다. GAELIC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개입되어 있었으며, 더 크고 정비가 잘 된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작고 불리한 상태의 기관들을 인수하거나 지배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상기의 모든 기관들은 초기 몇 년간 GAELIC에 잘 협조하였다. 1998년 중반에 한 정책 기획 관련 회의에서 새로운 도전에 부응하기 위해 초점을 명확히

해야 하고 비전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새로운 조직과 전략이 협의되었으며 컨소시엄의 활동을 감독하고 리더십과 비전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Strategic Management 팀이 조직되었다. 팀의 설립 취지는 다음과 같다 (Edwards 1999: 126-127):

- Business Management
- Information Resources
- Human Resources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이들 팀은 현재 전문가 또는 특정 기술 개발을 원하는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다. 모든 회원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Human Resources Focus Area 팀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모든 회원 기관들의 참여가 예상되거나 요청되지 않고 있으나, 개별적으로 도서관장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다. 각 포커스 분야는 운영 부분 또는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서 실무 그룹을 조직할 수 있다. Business Management Unit은 재정, 마케팅 및 경영 정보 부분에서 실무 그룹을 가지고 있다.

4. 남아프리카공화국 협동 목록의 역할 담당자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2개의 중요한 역할 담당자, 즉 Sabinet Online과 SANB (South African National Bibliography)가 있다.

4.1 Sabinet Online

Sabinet(South African Bibliographic and Information Network)은 1983년에 독립적이며 비영리적인 회원들로 조직되어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보서비스에서 자료의 온라인 서지 참조 자료 공급자로서 설립되었다. Sabinet은 1997년에 Sabinet Online (Pty) Ltd.라는 이름으로 개인회사가 되었다(Harrod's Librarians' Glossary... 2000: 644).

Sabinet Online (Pty) Ltd.의 임무는 "지역적 및 범세계적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전자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정보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Sabinet Online 1997: 2)이다. 현재 146개의 Sabinet 회원들이 SaCat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158개 회원들이 Sabinet Online을 통해 OCLC의 World Cat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Sabinet Online Standards Committee 2002: 1). 회원에는 대학교, 공과 대학, 국가의 각 행정부서, 조사기관 및 지방 및 공공 도서관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타 회원에는 은행, 법률 사무소, 감사기관, 광산 회사 및 제약회사 등의 개인 기관들이 있다(Sabinet Online 1997: 1).

Sabinet Online의 1차 전략은 다양한 도서관 시스템과의 호환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국가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공동목록과 공동수서를 지원하기 위해 고품질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지 레코드 및 소장정보에 대한 국가 종합목록(SACat)을 통해 국가적 자원 공유 인프라를 지원한다(Malan 1998: 4).

지역 종합목록과 국가 종합목록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 중복이 많을 것이 확실해졌다. 컨소시엄들은 자원 공유 및 공동 목록의 필요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었으며, 국가적 협력에 대한 강력한 요구에 의해 추가로 영향을 받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종합목록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국가의 나머지 지역으로부터 이들 자신과 자원의 고립화가 시작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해졌다.

- 불필요한 중복 활동 및 비용 제거
- 국가 종합목록 참여를 보장
- 가용 기금 및 국가의 전문 인력의 최대한 활용

Sabinet Online은 기능적 시스템 및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가 종합목록 및 지역 종합목록을 위한 플랫폼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자원 공유 및 종합목록의 구축, 개발 및 지원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4.2 남아프리카공화국 서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1999년 11월까지 Cape Town 소재 South African Library와 Pretoria 소재의 State Library의 두 개 국립도서관이 있었다(Lombard & De Beer 2000: 23). 두 도서관은 법적 보존소용의 도서관이었지만 South African

Library는 문서와 저술의 보존이 주목적이었으며, State Library는 South African National Bibliography(SANB)의 편찬에 대하여 책임이 있었다.

1982년의 법률 보존소 관련법 제17호(Behrens 1994: 63)는 1997년의 제54호인 새로운 법률 보존으로 개정되어 State Library(현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도서관(Pretoria Division)으로 알려져 있음)가 인쇄물과 국가 제작 영화의 법적 보존을 위한 기관의 하나로, 특히 비디오 및 음성 제작물의 경우 시청각자료에 대한 독점적 보존기관으로서 지정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도서관의 Pretoria Division은 다른 도서관의 협조에 의해 아직도 SANB의 편찬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고 있다. SANB의 최종 논문판은 1999년에 간행되었으며 그 이후 새로운 서지레코드는 OCLC와 Sabinet 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상태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서지를 위한 전거레코드는 Dobis/Libis 도서관시스템에서 생성되었으며, 이것은 1980년대의 국제적인 제재가 심했던 기간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도서관들에게 가능했던 몇 개의 자동화된 도서관시스템 중 하나이다. Dobis/Libis 포맷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재의 국제적으로 자동화된 도서관시스템들과는 호환성이 없으며, Dobis/Libis 레코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도서관들이 쉽게 이용하기 어렵다(De Klerk 2001: 5). 전거표목들은 인쇄된 SANB 상태로 이용할 수 있고 전자적으로 OCLC 상에서 이용 가능 하지만 동일한 입력에 대한 변형 표목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거레코드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도서관의 국가 명칭에 관한 전거파일은 국가의 다른 도서관들에 의해 이용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전거통제를 받는 도서관들은 심한 곤란을 겪었다. 또한 국립도서관의 제한된 재정 및 인적 자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서지 및 전거 데이터의 생산을 지연시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였다(De Klerk 2001: 6).

5. 남아프리카공화국 고등교육의 변화

전임 교육부 장관인 Kader Asmal 교수는 2001년 2월에 NPHE(National Plan for Higher Education)을 실시하였다. NPHE에는 5개의 주요 우선 정책

및 목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고등교육 시스템의 변혁에 관한 전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여겨졌다(South Key information about the higher education system in South Africa, 2007).

본 연구의 성과는 고등교육 기관들의 감소이다. NPHE에서는 36개의 고등교육 기관들이 21개로 단축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변혁은 GAELIC (Gauteng and Environs Library Consortium)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 Vista University는 공식적으로 2004 년 1월 1일 폐교하였다. 여러 캠퍼스들이 다른 대학교로 편입되었다. University of Pretoria는 Mamelodi Campus와 University of South Africa의 Vista 본부를 흡수하였다.
- Technikon SA는 2005년 1월 1일 부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학교를 흡수하였으며 새로운 기관의 명칭을 명명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학교의 명칭이 보존되었다.
- Vaal Triangle Technikon은 별도 독립기관으로 남게 되었으며 Vista Sebokeng 캠퍼스의 시설들은 동 기관에 배정되어 향후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명칭은 Vaal University of Technology로 변경되었다.
- Tshwane metro에 소재한, Technikon Northern Gauteng, Technikon North-West 그리고 Technikon Pretoria의 세 개 공과 대학은 2개의 부지(site)를 가진 한 개의 통합적 기관으로 합병되었다. 두 부지 중 하나는 Northern Gauteng 부지이며, 다른 하나는 Technikon Pretoria 부지이다. 새 기관의 명칭은 Tshwane University of Technology로 변경되었다.
- Technikon Witwatersrand는 Rand Afrikaans University를 흡수하였으며 그 명칭은 University of Johannesburg로 변경되었다.
- 기독교 고등교육기관인 Potchefstroom University와 University of the North-West는 통합 다목적 캠퍼스로 흡수되어 North-West University로 변경되었다.

흡수 합병의 여파는 극적이며 충격적이었다. 몇몇 기관들의 경우 직원의 구조 개편 및 보직이 현재에도 진행 중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협력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6. GAELIC 협동 목록의 이슈

6.1 협동 목록

GCat는 1990년대 말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졌으며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이것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정기적 훈련 회의
- "GAELIC 도서관 기술 서비스 업무 흐름에 관련한 전거통제 매뉴얼과 정책 지침서"라는 제목의 종합적인 전거통제 정책 문서의 작성
- 출판물의 11가지 유형을 위한 핵심 서지 레코드 승인

모든 GAELIC 도서관들은 OCLC에서 오리지날 목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레코드가 모든 도서관에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및 시간의 절감을 가져왔으며, GAELIC Focus Group은 GAELIC 도서관들의 참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GAELIC Cataloguing Focus Group 2007):

- 국제 서지 표준의 폭 넓은 인식 및 적용
- 목록 표준에 관한 비용 및 지식의 공유
- 목록 기술의 개선 및 일관된 공정
- 훈련의 필요성에 관한 식별 및 제공

남아프리카공화국 도서관 현장에서의 인프라 변경과 도서관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해 GAELIC 종합목록의 아이디어는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6.2 동료평가체제(Peer reviewing)

GAELIC 도서관 내부에서의 능력에는 다양한 수준이 존재한다. OCLC에서 고품질의 서지레코드를 보장하기 위해 동료평가체제시스템(peer review system)을 도입되었다. 이 시스템을 위해서 숙련되고 경험있는 목록자들이 배정되었고, 경험이 없는 목록자들이 있는 도서관들은 요청 시 동료평가자가 배정되었다. 목록자들은 질문과 문제점을 가지고 동료평가자와 접촉할 수 있으며 목록레코

드의 문제점 검토를 위해 송부하였다. 동료평가자들은 레코드를 진단하고 변경을 제안하고, 아울러 관련 AACR2규칙을 제공한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품질관리 차원이 아닌 훈련 및 개발을 위한 기회로 보인다(Steyn 2007).

6.3 GAELIC과 OCLC Enhanced Cataloguing Status

OCLC는 1983년에 확장 기능을 정립하였다. 이 목표는 WorldCat를 위한 품질관리 책임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확장 프로그램은 지정된 도서관들이 WorldCat의 서지레코드에 대해 수정하거나 정보를 추가하도록 허락한다.

Unisa 도서관은 2007년에 OCLC Enhanced Cataloguing Status를 획득한 최초의 GAELIC 도서관이 되었다. OCLC Enhanced Cataloguing Status는 Unisa 도서관에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었다.

- OCLC에 오류를 보고하는 번거로운 과정이 더 이상 필요 없다.
- 각 레코드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Unisa 도서관은 국제적인 역할 담당자가 되었으며, 일반적으로 WorldCat과 목록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AELIC은 회원도서관들로 하여금 Unisa 도서관의 사례를 따르도록 장려하게 될 것이다. 이는 GAELIC의 각 참가기관들의 목록 기술을 증강하는데 기여하게 되며, 국제 표준이 적용되었음을 확신하게 된다. Unisa 도서관은 OCLC에서 목록레코드를 변경함으로써 동료 도서관들에게 협조할 것이다.

확장 프로그램은 WorldCat 레코드의 품질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요 컨소시엄 중 하나인 GAELIC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레코드의 "공동 소유자"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에 의해 확장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출판물을 위한 고품질의 오리지날 서지레코드에 기여
- 남아프리카공화국 출판물을 위한 서지레코드의 고급화

7. GAELIC NACO 프로젝트

OCLC 전거파일에는 미국, 캐나다 및 영국의 저작자들에 대해서 전거레코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포함하고 있으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프리카,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및 호주 저작자들에 대해서는 한층 제한된 범위로 좁혀져 있다. OCLC 전거파일은 폐쇄된 파일이며 오직 NACO 참가기관들만이 레코드를 생성하고 변경한다. 따라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도서관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견에 직면해 있다.

- 도서관 자체 시스템을 통해 OCLC에서 이용할 수 없는 전거 레코드를 생성하거나 NACO 참가기관이 되어 OCLC에서 전거레코드를 생성한다.

컨소시엄 도서관들에 대한 노력과 비용의 대규모 중복은 자체 도서관시스템을 통해 전거 레코드를 생성하기에 이르렀으며, 3개 대학도서관 컨소시엄은 NACO 회원이 되었다.

국회도서관의 한 훈련담당자는 2000년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NACO 정책 및 Pretoria 지역의 절차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하였다. 훈련 대상자들은 University of South Africa, Rand Afrikaans University,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Medunsa, Pretoria 지역의 Vista University, Technikon Southern Africa, Vaal Triangle Technikon 및 Technikon Witwatersrand의 사서들이었다. FRELICO와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립도서관(Pretoria campus)의 대표자들이 GAELIC 그룹에 합류하였다. CALICO 도서관들의 회원들은 그 다음 주에 Cape Town에서 훈련을 받았다.

처음 5년간 GAELIC 도서관들은 국제적인 이용을 위하여 18,967개의 새로운 전거레코드 생성에 기여하였다. 그들은 또한 참조 및 주기를 추가함으로써 기존 2,829개의 전거레코드 품질을 개선하고 2006/2007 회계연도 중에 이들은 총 6,257개의 새 레코드를 생성하고 504개의 기존 레코드를 변경하였다. 대부분의 신규 생성 및 수정 레코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아프리카 저작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NACO 참가기관이 아닌 도서관들의 필요를 수용하기 위해서 비공식적인 “create for me” 시스템이 있었으며, 이에 의해 한 개의 NACO 도서관이 요구

접수시 즉시 레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GAELIC에서 중앙 전거통제의 실행 불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비용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8.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거레코드 생성 비용

비용 연구에 대한 초점은 새로운 전거레코드 생성 및 기존 전거레코드의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에 맞추어졌다. 그 목적은 생성된 모든 전거레코드가 국제적으로 표준화되고 모든 컨소시엄 회원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중앙기구의 설립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다.

8.1 참가기관

GAELIC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모든 컨소시엄들이 연구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였으며, 23개 도서관들에게 연구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다. Seals 및 Esal 컨소시엄의 관리자들은 새로운 도서관시스템의 실행에는 목록자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이들이 연구에 참여할 입장이 아니라고 하였다. 11개의 도서관들은 이들이 단지 서지 유틸리티로부터 전거레코드를 다운로드 받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5개의 도서관들은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다음은 참여한 7개 도서관이다.

- University of South Africa
- Rand Afrikaans University
- University of the Witwatersrand
- University of Pretoria
- Technikon Southern Africa
- Cape Town University
- University of Stellenbosch

8.2 데이터 수집

전거레코드를 생성 또는 변경하는 과정은 모든 참가기관들이 세분화하고 동일한 요소를 동시에 생성할 수 있도록 3단계로 분리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위

해 전거레코드를 생성하거나 변경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조 사:
- 상이한 형태의 이름, 필명, 이름 변경,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저작자별로 수행하는 검색 작업
- 이름의 상이한 모든 형태 또는 변형의 이름에 대한 식별 작업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들의 식별 및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는 다른 저작자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및 다른 도서관 목록에 대한 조사
- 요청시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참조 자원에 대한 상담
- 권위있는 형태의 예비적인 결정

전거레코드에 대한 생성/변경:
- 전거레코드에서 1XX를 사용하여 이름의 형식을 정립하였음을 확인
- 사용되지 않은 이름의 형식으로부터 4XX 제정
- 관련 표목들을 서로 연계시키기 위해 5XX 제정
- 로칼 정책에 의해 요구되는 전거레코드를 등재
- 레코드에 대하여 품질 관리 실시; 데이터베이스 레코드의 저장/보관
- 레코드가 종합목록이나 서지유틸리티에서 검색된 경우, 레코드를 자체 시스템에 다운로드

일상업무인 행정적 및 정제 활동:
- 필요시 서지레코드 내에 새로운 표목을 삽입
- 관련 인덱스 내에서 중복 형식을 조사하여 제거
- 컨소시엄 종합목록 이나 서지유틸리티에서의 유지 관리 또는 오류 보고
- 통계자료의 유지

8.3 결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학도서관들의 전거통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8.3.1 전거레코드 생성을 위한 비용 계산

- OCLC에서 전거레코드를 생성하는데 드는 비용은 R7.06~R65.73으로써 평균 비용은 R29.00이었다.
- 도서관 자체 시스템에서 전거레코드 생성에 드는 비용은 R3.47~R23.01로써 평균 비용은 R6.91이었다. 단, 두 개의 기관들에서만 데이터를 제공하여 견본의 수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효한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8.3.2 전거레코드 변경에 대한 비용 계산

- OCLC에서 전거레코드를 변경하기 위한 비용은 R13.44~R62.10으로써 평균 비용은 R20.57이었다.
- 도서관 자체 시스템에서 전거레코드를 변경하기 위한 비용은 R3.43이었으며, 단, 한 개의 기관에서만 데이터를 제공하였고 견본이 적었던 이유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었다.

8.3.3 전거레코드 생성에 소요되는 시간

- OCLC에서 전거레코드 생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5.1~47.6분이 소요되어 평균 소요 시간은 19.4분을 기록하였다.
- OCLC에서 전거레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3단계를 위한 평균 소요 시간은
  - 조사: 9.3분 (총 시간의 48%)
  - 레코드 신규 생성: 7.3분 (총 시간의 37.6%)
  - 일상업무: 2.8분 (총 시간의 14.4%)
- 도서관 자체 시스템에서 전거레코드 생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2.7~13.6분으로써 평균 소요 시간은 4.6분이었다.
- 도서관 자체 시스템에서 전거레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3단계를 위한 평균 소요 시간은
  - 조사: 1.7분 (총 시간의 36.9%),
  - 레코드 신규 생성: 2.1분 (총 시간의 45.6%)
  - 일상업무: 0.8분 (총 시간의 17.4%)

8.3.4 전거레코드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 OCLC에서 전거레코드를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8~45분으로 평균 13분이었다.
- OCLC에서 전거레코드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3개 단계에서의 평균 소요 시간은
  - 조사: 5.3분 (총 시간의 40.8%)
  - 레코드 갱신: 4.5분 (총 시간의 34.6%)
  - 일상업무: 3.2분 (총 시간의 24.6%)
- 도서관 자체 시스템에서 전거레코드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3개 단계에서의 평균 소요 시간은 3분이었다. 단, 한 개의 기관에서만 데이터를 제공하였고 견본이 적었던 이유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었다.
- 도서관 자체 시스템에서 당국의 기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3가지 단계를 위한 평균 소요 시간은
  - 조사: 0.8분 (총 시간의 26.6%)
  - 레코드 갱신: 1.5분 (총 시간의 50%)
  - 일상업무: 0.7분 (총 시간의 23.3%)
- 한 개의 기관에서만 데이터를 제공하였고 견본이 적었던 이유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었다.

9. 결 언

GAELIC이 촉진된 계기는 도서관시스템과 함께 제안된 협동 온라인 목록이었다. 도서관들은 개별적으로 지역의 필요한 시스템을 구매하거나 운영할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컨소시엄의 초기 과정 이후의 주요한 이슈는 협동 목록에 관한 문제였다. 그들은 자치성을 잃을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하였으며 일부 도서관들은 이러한 것들이 비용 측면이 효과적이더라도 자신들의 목록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었다.

컨소시엄 회원들은 목록을 위해 OCLC를 사용하도록 장려 받고 이러한 훈련을 받았다. 표준 및 절차에 대한 정책은 모든 회원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도록 단일 서지레코드를 보장하게 되었다. 논의 초반에 좋은 품질의 목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거통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등 교육 기관들의 수를 줄이는 것과 관련하여 고등 교육기관들의 통합 흡수가 완료된 후, GAELIC 목록 포커스 그룹(GAELIC Cataloguing Focus Group)은 GAELIC 도서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동 목록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직원의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개발해야 했다. Focus Group은 훈련의 필요성과 훈련에 참여할 목록 전문가 리스트를 작성하느라고 바쁘다.

BIBLIOGRAPHY

- Behrens, S.J. 1994. *Bibliographic control and information sources.* 2nd ed. Pretoria: University of South Africa.
- Clapp, V.W. 1973. Retrospect and prospect, in Reader in technical services, edited by Edmond L. Applebaum. Washington, D.C.: NCR/Microcard Editions: 149-154.
- De Klerk, T. 2001. *Perspective on names in the South African National Bibliography: past, present and future: 2000-2001: 67th IFLA Council and General Conference, August 16-25,* Boston: 1-3. Online. Last accessed 16 February 2002. Available: http://ifla.org/IV/ifla67/papers/129-199ws-e.pdf.
- De Kock, M.G. 1997. An information technology infrastructure for resource sharing in South African academic information services. D. Litt et Phil. thesis, Rand Afrikaans University, Johannesburg. (Unpublished).
- Duminy, H., Head: Sasolburg Public Library. 2007. *Telephonic interview. 3 April 2007.*
- Duvenage, A.P. 1977. Library co-operation in the Vaal Triangle. *South African libraries,* 44(4): 153-156.
- Edwards, H.M. 1999. South Africa's GAELIC: the Gauteng and Environs Library Consortium. *Information technology and libraries,* 18(3), September: 123-128.
- FRELICO : co-operative library services for the Province. 1997. *Free State libraries,* April/June: 51-52.

- *GAELIC Cataloguing Focus Group*. 2007. Online. Last accessed: 11 April 2007. Available: http://www.gaelic.ac.za/cataloguing.aspt.
- Gardner, W.H. 1960. Library service and library co-operation. *South African libraries*, 28(2): 31-35.
- Grisham, F.P. 1992. Library cooperation. *Journal of library administration*, 17(4): 37-45.
- *Harrod's librarians' glossary and reference book: a dictionary of over 9000 terms used…* 2000. 9th ed. Compiled by Ray Prytherch. Aldershot, Hants: Gower.
- Jefferson, G. 1966. *Library co-operation*. London: A. Deutsch.
- *Key information about the higher education system in South Africa*. 2007. Online. Last accessed: 10 April 2007. Available: http://www.anc.org.za/ancdocs/pubs/umrabulo/umrabulo14/educinfo.html.
- Library coöperation [sic[. 1933. *South African libraries*, 1(1), July: 8.
- Lombard, P.M. & De Beer, J.F. 2000. National libraries around the world, 1998-1999: *a review of the literature*. *Alexandria*, 12(1): 3-32.
- Malan, P. 1998. A new national union catalogue for Southern African libraries. *Innovation*, 17, December: 4-7.
- Marais, H. 2004. Authority control in an academic library consortium using a union catalogue maintained by a central office for authority control. D. Litt et Phil. thesis, University of South Africa, Pretoria. (Unpublished).
- Merritt, C. 1998a. From the grassroots upwards: the Cataloguing Network in Pietermaritzburg (CATNIP). *Innovation*, 17, December: 21-26.
- Merritt, C. 1998b. Tertiary library co-operation on the Eastern Seaboard: the case of Esal. *Innovation*, 17, December: 27-30.
- Multi-million volume library to be established: GAELIC. 1996. *SAILIS newsletter*, 16(11):1,5.
- Pienaar, A. 2007. *E-mail correspondence*. 3 April 2007, Pretoria.
- Robinson, H.M. 1961a. Biblioteeksamewerking in die Unie van *Suid-Afrika*. *South African libraries*, 28(3): 71-77.

- Robinson, H.M. 1961b. Presidensiële rede op die sestiende jaarlikse konferensie van die Suid-Afrikaanse Biblioteekvereniging, Grahamstad, 19 September 1961. *South African libraries*, 28(2): 43-51.
- Sabinet Online. 1997. Vision of cataloguing and acquisitions support. *Sabinfo*, October: 1-2.
- Sabinet Online Standards Committee. 2002. Minutes of the Meeting of 27 February 2002. (Unpublished).
- Steyn, S.M., cataloguer, Unisa Library. 2007. *Interview.* 10 April 2007.
- UP-WNNR inligtingsvennootskap (UWIV). 1991. *SAILIS newsletter*, 11(8): 14.
- Van der Riet, F.G. 1958. Library co-operation in South Africa: the next move? *South African libraries*, 26(1): 4-7.
- Varley, D.H. 1941. Aspects of library co-operation. *South African libraries*, 8(3):109-115.
- Western Cape Tertiary Institutions Trust. 1995. CALICO: the way forward. (Unpublished).
- Visser, A.L., cataloguer, Unisa Library. 2007. *Interview.* 11 April 2007.

한국의 ‘한 책, 한 도시’운동에 대한 고찰 : 서울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운동을 중심으로[1)]

An Analysis of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 Focus on ‘One Library, One Book in Seoul’

조 미 아(Cho Miah)[2)]

목 차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1.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2. ‘한 책, 한 도시 운동’에 대한 선행연구
3. 연구방법과 연구 진행
4. 공공도서관의 독서진흥활동
4.1. ‘한 책, 한 도시’ 운동
4.2. 서울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
5. 결 론

〈 초 록 〉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독서진흥정책 중 하나인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모습이 지역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담당자와 전화면담, 홈페이지 조사, 도서관축제의 해당 부스를 찾아 담당자와 직접 면담하여 조사하였다. 지역별 ‘한 책, 한 도시’ 운동은 서산, 순천,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에서는 서울문화재단의 주최로 57개의 공공도서관이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이 연구는 전국도서관대회(2007.10.10)에서 발표된 논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실었음을 밝힙니다.

2)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사서,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주제어 : 한 도시 한 책 운동, 한 도서관 한 책 운동, 독서 운동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r investigation on how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which is one of the promoting reading policies in Korea, is being progressed and what feature it has according to the area. It is surveyed by telephone survey, campaign homepage analysis regional reading, direct interview with a person in charge of regional booth of library festival in Seoul. 'One Book, One City' Reading Campaign is being operating in Seosan, Suncheon, Busan, etc. Especially, it appears that 57 libraries sponsored by Seoul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take part in the 'One Library, One book' of Reading Campaign.

Keyword : 'One Book, One City', 'One Library, One book', Reading Campaign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등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3] 또한 2006년 12월 독서문화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독서관련 단체, 학교 및 직장 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 백일장·강연회 등 독서관련 행사,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를 실시해야 한다.[4]

---

3) 도서관법 제28조 3항, 4항.

4) 독서문화진흥법 제11조 2항.

최근에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서 독서를 강조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몇몇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책, 한 도시’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하나의 지역사회에서 책을 중심 매개체로 하여 다양한 문화행사와 토론을 펼치는 독서운동인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적 기능이 확대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 운동은 도서관 내부에서 출발하여 지역사회 전체로 확대하여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민간단체 및 개인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들인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래의 교양위주의 일방통행식인 독서운동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문화운동의 성격을 지닌 네트워크형 독서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5)]

한국도서관협회와 서산시는 미국 시애틀을 중심으로 일어난 ‘One Book, One City’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에서는 2003년 서산에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서산시민 모두가 한 권의 책을 함께 읽는다면’이란 주제로 시작된 ‘한 책, 한 도시’ 운동은 순천,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이를 모태로 한 다양한 형태의 독서운동이 진행되거나 추진 중이다. 특히 2007년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57개 공공도서관에서 참여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한 도서관, 한 책’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 도서관, 한 책’ 운동은 지역사회 독서운동의 발아기이므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지역의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특징 및 연계 프로그램 중 우수한 사례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특징과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서울지역 공공도서관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유형 및 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는 ‘한 책, 한 도시’ 운동이 지역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서울의 ‘한 도서관, 한 책’ 운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5) 황은주, 2006.『한국의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 운동 현황과 전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첫째, 지역적으로 운영되는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운영형태는 어떠한가?
둘째, 서울 중심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의 추진현황은 어떠한가?

2. '한 책, 한 도시' 운동에 대한 선행연구

'한 책, 한 도시' 운동에 관한 연구(윤정옥 2004; 2005; 2007, 이용재 2006; 황은주 2006)는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편이다. 시애틀, 시카고, 캘리포니아주, 캐나다의 도서의 선정, 독서 및 토론 지침과 자원, 후원과 홍보의 사례를 제시하고 '한 책' 운동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한 연구[6]에 따르면 한 책 운동의 핵심적 의미는 독자가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할 뿐 아니라 그 책 자체나 주제, 작가 등에 연관된 영화, 연극, 전시회와 같은 행사에 참가하게 함으로써 독서의 경험이 바로 다양한 문화적 체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확장시켜 주는 것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 책' 운동은 주요한 도서관에서 이미 지속적인 행사로 자리잡고 있는데 '한 책' 운동은 지역의 프로젝트마다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 책' 운동의 가장 큰 의의는 지역사회의 개인, 학교, 각급 기관과 시민 단체들로 하여금 도서의 선정과정에서부터 독서와 토론, 행사의 진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있다고 한다. 윤정옥[7]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의 '한 책' 운동의 성장 현황 및 그동안 선정된 '한 책'의 특성과 경향을 분석하고 지속적, 집합적 독서운동으로서의 의의를 평가하였다. 또한 윤정옥은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실행단계별 특성을 미국도서관협회(ALA)가 제시한 범 지역사회 독서의 계획(ALA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한 책 운동'의 주요한 단계별 요소인 공동체의 개념, 목표의 설정, 한 책의 선정(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독서와 토론(어떻게 읽고 토론할 것인가), 행사와 프로그램(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을 조사하고 미국의 시애틀, 시카고, 전국 대상의 'The Big Book Read', 우리나라의 서울, 청주 등의 '한 책' 독서운동의 사례와 그밖에 다른 지역사회의 사례를 통해 발견된 내용을 제시하였다.[8]

---

6) 윤정옥. 2004.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의 동향과 의의: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45-66.

7) 윤정옥. 2005. 미국의 '한 책, 한 도시'독서운동의 동향과 특성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27-44.

이용재(2006a)는 확산되고 있는 국내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주요 도시인 서산, 순천, 부산, 서울, 원주, 익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 ‘한 책, 한 도시’ 운동은 운영주체에 따라 그 규모와 성격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운영주체가 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며 시민단체가 ‘한 책’의 주역으로 나서는 경우에는 시민의 결집력과 문화적 기획력 부분에서 돋보이는 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 책 운동’의 핵심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토론이 펼쳐지는 것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토론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한 책 운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고 하였다. ‘한 책’ 관련 문화프로그램은 기존의 문화행사 중의 일부나 별개의 행사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간에 집중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9] 또한 이용재(2006b)는 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 세미나에서 책 읽는 서울이 미래를 여는 동력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 책 운동의 특징과 사례들을 제시하였다.

황은주는 국내·외의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사례를 통하여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의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문제점으로 운영주체의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인식 정도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 여부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 ‘한 책, 한 도시’ 운동 관련 도서 선정되는 방법과 전개되는 방식의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구분의 업무분장, 독서활동 및 연계된 문화행사를 이끌어갈 리더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전문 인력 양성의 시급성, 프로그램의 차별화와 특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기획력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위원회를 조직하고 마케팅적 측면을 강화하고 자생적 민간단체의 협력을 적극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10]

이용재와 황은주(2006)는 최근 수년 간 국내에서 전개된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현황에 관한 연구에서 지역사회에서 독서문화의 일상화를 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독립적인 비영

8) 윤정옥. 2007. ‘한 책, 한 도시’독서운동의 실행단계별 특성의 분석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5-32.

9) 이용재. 2006. 한국독서운동의 현 단계와 전망 :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1): 5-25.

10) 황은주, 2006.『한국의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 운동 현황과 전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리기구(공익법인 형태)의 설립이 추진되고, 이러한 기구의 예산은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또한, '한 책, 한 도시'운동과 병행하여 우리나라의 각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도보권 안에 있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마을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본격화되어야 하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다양한 도서관운동과 독서운동의 전개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서 디지털매체의 활용을 포함하는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의 전개될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한 책, 한 도시' 운동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2006년 이후의 국내의 '한 책, 한 도시' 운동이 여러 도시에서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으며 특히 서울지역의 '한 도서관, 한 책' 운동에 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연구방법과 연구 진행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독서진흥 활동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 도시, 한 책' 운동과 서울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을 중심으로 밝히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한 도시, 한 책' 운동의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한 책, 한 도시' 운동과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한 책 운동의 홈페이지를 분석한 후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한 책 운동의 업무 담당자와 전화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도서관축제에 참가한 해당 지역의 한 책 운동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보충적인 자료를 수집하였다.

4. 공공도서관의 독서진흥활동

4.1 '한 책, 한 도시' 운동

4.1.1 국내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주요 현황

'한 책, 한 도시' 운동은 독서토론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높일

수 있을 뿐더러 문화체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목표는 한 지역사회에서 선정된 한 책을 온 주민이 함께 읽고 토론함으로써, 공통의 문화적 체험을 갖게 하며, 독서와 토론의 문화를 북돋우고자 하는 것으로 독서행위의 범위를 책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매체와 프로그램을 통해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윤정옥 2005).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공식 도메인(http://onebook.or.kr)은 '한국도서관협회'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다.[11]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충남 서산시에서 '서산 시민 모두가 한권의 책을 함께 읽는다면'이라는 주제로 처음 시작된 이후 지금은 순천, 부산, 서울, 원주, 익산, 청주, 포항, 여수, 서귀포, 대전, 김해 등 12개 지역에서 이를 모태로 한 다양한 형태의 독서운동이 진행되거나 추진 중이다(표 1 참조).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주요 운영주체로는 공공도서관이 5개관(41.7%), 시민단체가 4개관(33.3%), 지방자치단체가 2개관(16.7%), 교육청이 1개관(8.3%)으로 나타났다.

(표 1) 국내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주요 현황

차례	지역	프로그램명 / 웹사이트	사업주체	주요 운영주체	시작 년도
1	서산	서산시민 모두가 한 권의 책을 읽는다면 http://www.smlib.or.kr/	서산시립 도서관 한국도서관 협회	공공 도서관	2003
2	순천	책 한 권, 하나의 순천 http://www.sclibrary.or.kr/menu__8/81__onebk__sc.php	순천시립 도서관	지방자치 단체	2004
3	부산	한 책, 한 부산=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부산 http://reading.pen.go.kr/	부산시 교육청	교육청	2004
4	서울	책 읽는 서울 - 기초 예술, 책부터 시작이다 http://www.sotc.or.kr/culture/culture02__3.asp?chpter=1	서울문화 재단	시민단체	2004
5	원주	원주시민 모두가 한 권의 책으로 뭉치자 http://www.bookone.or.kr/	원주투데이 생명원주21	시민단체	2004
6	익산	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 http://lib.iksan.go.kr/design03/user/one__book/index.php	익산시립 도서관	공공 도서관	2005

11)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공식 도메인은 현재 부산의 문화컨설팅 회사인 '(주)코아섬'이 한국도서관협회를 위하여 위탁관리해 주고 있다.

차례	지역	프로그램명 / 웹사이트	사업주체	주요 운영주체	시작 년도
7	청주	책읽는 청주-한 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청주 http://www.cjlib.com/	청주시립 정보도서관	공공 도서관	2006
8	포항	하나의 책 하나의 포항 http://www.phlib.or.kr/bookcafe/	포항시립 도서관	공공 도서관	2006
9	여수	한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여수 http://www.yeosulib.or.kr	여수시립 도서관	공공 도서관	2007
10	서귀포	함께 읽는 책 한 권 힘으로 서귀포시를 바꾸자 cafe.daum.net/citybookstart	서귀포시 서귀포시민의 책함께 읽기운동	시민단체	2007
11	대전	책으로 행복한 대전 / 홈페이지 구축중	희망의책 대전본부	시민단체	2007
12	김해	책읽는 도시 김해 www.gimhae.go.kr	김해시	지방자치 단체	2007

* 황은주의 석사논문(2006)을 참조하여 2006년 이후 변경된 내용을 추가함.

4.1.2 지역의 한 책 도서 선정

지역의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도서선정 원칙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특성을 가지거나 가급적 지역 출신의 작가를 선호하는 지역은 서산, 순천, 원주, 청주, 여수 등 5개 지역(41.7%)이며, '모든 연령에게 읽힐 수 있는 책'을 선정하는 곳은 서산, 순천, 부산, 원주, 익산, 청주, 포항, 여수 등8개 지역(66.7%)이다. '토론이 가능한 도서'를 선정하는 곳은 서산, 원주, 익산, 청주, 여수 등 5개 도시(41.7%)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은 13개 공공도서관으로 이뤄진 공공도서관협의회 대전지부가 자체적으로 한 책 도서를 선정하였다. 선정절차는 대전광역시내 각 공공도서관에서 추천한 도서를 대상으로 각 도서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김훈의 '남한산성'이 선정되었는데 이 활동은 '희망의책대전본부'와 별도로 대전지역의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나타났다.

김해의 자료선정원칙은 김해시의 문제를 논점으로 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잠재적인 문제를 가진 도서를 선정한다. 김해가 전국에서 이주노동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결혼이민자가 많은 지역의 특수한 환경상 온 세상이라는 의미의 '온누리안과 함께 하는 삶'으로 주제를 정하였으며 도서관 사서, 교육청 도서관사서, 시민독서회장, 어린이

도서관연구회, 시청 도서관정책 담당, 학교 교사 등으로 이루어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지역별 도서 선정 원칙 및 도서 선정 과정

no	지역	도서선정원칙	도서 선정과정
1	서산	- 서산의 지역적 특생을 지닌 도서로 서산 출생 지역작가의 작품, 지역주민 공동의 관심사, 지역적 통합을 이끌 수 있는 도서 - 가독성이 용이한 도서로 연령별, 세대별 구분 없는 접근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와 매체로 접근이 가능하고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과 연계할 수 있는 책 - 토론이 가능한 도서이며 베스트셀러이거나 양서일 필요는 없다	지역 교육계 전문가와 문인, 독서단체 회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도서선정위원회에서 2차례의 토론과 회의를 거쳐 작품성 등을 인정받은 책을 선정
2	순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작가 참여 행사 및 작품 속으로 여행 등 각종 프로그램개발 접근성이 쉽도록 가급적 순천을 배경으로 하는 도서 또는 순천 출신 작가로 문학성이 높은 도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연령계층 전 시민이 읽을 수 있는 도서	시민 또는 선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도서선정 시민위원회 및 도서선정전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로 해당년도 1월까지 선정
3	부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누구나 읽기 쉽고 많이 읽혀지고 있는 베스트셀러로서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범시민 교양도서	매년 각계각층에서 추천된 100여종의 책 중에서, 읽고 토론하기에 적합한 10권을 선별하여 후보도서로서 홍보 후 On/Off-line의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원 북’을 선정
4	원주	* 일반원칙 - 생명존중, 환경보호, 공동체사랑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책 - 문학 장르는 운문, 산문 어느 것이든 좋다. - 내용이 도덕적, 정서적으로 건전해야 한다. -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가급적이면 국내의 현존 작가의 작품으로 한다. * 시행세칙 - 어린이와 어른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야 한다.	한국독서인증센터, 일반 독자, 선정위원회(동화작가, 독서운동가, 초중고 선생님, 공공도서관 사서선생님, 문인협회회원, 독서회 회장 등으로 구성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에서 추천한 책에서 1차, 2차, 3차 회의를 거쳐 선정된 최종 후보작 3편 중 토론과 투표를 거쳐 선정

no	지역	도서선정원칙	도서 선정과정
		- 모음집은 제외한다. - 선정목적에 적합한 책이어야 한다. - 토론이 가능한 책이어야 한다. - 구하기 쉬운 책으로 한다.(절판된 책 제외) -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재미있어야 한다. - 삽화의 작품성도 고려한다. - 원주를 배경으로 했거나 원주 출신의 작가 또는 원주에 거주하는 작가가 쓴 작품이면 더욱 좋다.	
5	익산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읽을 수 있으면서 이해가 빠르고 재미있는 책, 또한 여러 계층에서 읽고 토론이 가능한 책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도서선정위원회를 거쳐 선정
6	청주	청주의 지역적 특성을 지닌 도서로 누구나 함께 읽을 수 있으며 토론이 가능한 도서	추진위원 및 시민의 추천도서를 접수받아 1차적으로 5권의 후보도서를 선정한 후 도서선정 위원회를 거쳐 선정
7	포항	누구나 권장할 만한 한권(one book)의 범시민 교양도서로 일반도서, 어린이도서, 주제구분이 없으며 만화, 수험서, 참고서는 제외	온라인과 오프라인(직접 방문, 팩스신청)으로 선정
8	여수	초등학생에서부터 어르신까지 많은 시민이 쉽게 읽을 수 읽는 책, 도덕적, 정서적으로 건전한 내용으로서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도서, 가급적 여수시 출신 작가의 작품, 문학도서는 시, 소설 동화 등 장르를 가리지 않음	각 자료실, 도서관 홈페이지에 도서신청란을 만들어(On/Off-line) 신청받은 도서 중 도서관회의에서 선정원칙에 가장 부합한 책
9	서귀포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고 대를 이어 나갈 만한 책, 미래 비전을 반영하고 있는 책, 서귀포 정서에 맞는 책	창립준비위원회에서 추천된 책 중 문인, 학교교사, 사서, 논술교사 10명이 참여한 '시민의 책 선정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선정
10	대전	대전지역 13개 공공도서관으로 이루어진 공공도서관협의회 대전지부가 추천한 책	대전광역시내 각 공공도서관에서 추천한 도서를 대상으로 각 도서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하여 선정
11	김해	김해시의 문제를 논점으로 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적극적이고 의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잠재적인 문제를 선정	여러 사서들에게 추천받아 선정위원회(시립도서관 사서, 교육청도서관 사서, 시민독서회장, 어린이도서관연구회, 시청 도서관정책담당, 학교 교사)에서 선정

4.1.3 지역별 선정된 도서와 관련 행사 프로그램

지역별 선정된 도서와 관련한 각 지역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마당을 나온 암탉(황선미 지음)’의 경우에는 서산의 2003년도 한 책 선정도서였으며 대전의 2007년 도서로도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책 도서의 내용과 관련된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2006년에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을 선정한 순천시에서 ‘씨앗 알아맞추기 대회’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에 ‘배려’를 선정한 원주에서는 ‘배려’를 실천한 미담 우수 사례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의 경우에는 ‘영화로 보는 문학읽기’, 순천의 경우에는 ‘그룹단위 토론회 운영’, ‘직원 독서토론회 운영’, 부산의 경우에는 ‘낭독회 및 공연’, ‘선상 문학의 밤’, 원주의 경우에는 ‘저자와 함께 하는 일일찻집’ 개최, 익산의 경우에는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책속에 숨겨 있는 도서 교환권 찾기’, ‘벽화 그리기’, 청주의 경우에는 ‘자기 주장대회’, ‘책 사랑 시 낭송회’ 등을 독서의 달 행사와 연계해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의 경우에는 ‘원 북 온라인카페’(온라인감상문 쓰기, 온라인토론)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귀포의 경우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메일로 카페회원 등록 독려’, ‘시민의 책 운동 편지쓰기’, ‘메일쓰기’, ‘행운의 편지’, ‘1회원 3회원 3후원 개척 독려’, ‘자동이체 계좌 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전의 경우에는 ‘가족과 함께 밤새워 책 읽고 추억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지역별 선정된 도서 및 프로그램

지역	연도	선정된 도서명/저자명	프 로 그 램
서산	2003	마당을나온암탉 / 황선미	작가 초청 강연회, 독서토론회, 연극 비디오 상영, 무용단의 공연, 북카페 운영, 책 선물 릴레이, 백일장대회, 이야기가 있는 그림전시회, 독후감 공모, 알뜰도서 무료 교환시장, 영화로 보는 문학읽기, 이야기가 있는 그림전시회, 독서퀴즈응모대회
	2004	문제아 / 박기범	
	2005	낙원천사 / 윤흥길	
	2006	연어 / 안도현	
	2007	남한산성 / 김훈	
순천	2004	등대 / 임철우	작가초청 강연회, 잠깐퀴즈, 그룹단위 토론회 운영, 직원 독서토론회 운영, 책과 함께 하는 축제 개회, 등대 백일장 대회, 기적의 도서관 책 축제, 워크숍 개최, 시민토론회,
	2005	스무살 어머니 / 정채봉	
	2006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 / 안미란	

지역	연도	선정된 도서명/저자명	프 로 그 램
	2007	연어 /안도현	독후감 및 백일장 대회, 주부독서대학 수강생 독후감 쓰기, 토론지도자 워크숍, 그림전시회, 시나리오공모 연극상영
부산	2004	괭이부리말아이들 / 김중미	작가초청 강연회, 독서지도사례, 독서퀴즈, 독서감상문대회, 가족 독서캠프, 도서교환전, 독서릴레이, 사진전시회, 낭독회 및 공연, 특별강연, 선상 문학의 밤, 독서클럽 모집
	2005	사람풍경 / 김형경	
	2006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 공지영	
	2007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는 없다 / 김현근	
원주	2004	좁쌀 한 알/ 최성현	저자와 지역 주부들이 함께하는 독서토론회, 독서백일장, 도서기증 운동, 저자와 함께 하는 일일찻집 개최, 독서골든벨, 사랑의 책 릴레이, 책사랑축제, 한지문화제의 부스에서 한 책읽기 운동 홍보 및 선정도서 판매, 100자평 쓰기, 정의 내리기, 선정도서 기증운동, 독후감상문대회, 토론식 독서지도학교 시범운영
	2005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김병렬	
	2006	배려 / 한상복	
	2007	초정리편지 / 배유안	
익산	2004	연어 / 안도현	작가초청강연회,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1천권의 책 나누어주기, 한 권의 책 선물하기, 책 속에 숨겨 있는 도서 교환권 찾기, 좋은 책 전시, 벽화 그리기, 시민토론회, 동화캠프, 연극공연, 작가초청강연회, 백일장 및 그림 그리기 대회,바람개비 만들기, 기타 연주회, 선정도서 할인행사, 작품설명회, 작품전시회, '한권의 책' 추천자 추첨 등
	2005	너도 하늘 말나리아 / 이금이	
	2006	수일이와 수일이 / 김우경	
	2007	넌 아름다운 친구야 / 원유순	
청주	2006	(하반기) 압록강은 흐른다/ 이미륵	작가초청강연회, 독후감 공모, '책 사랑 문화축제'를 통해 독서 퀴즈 대회, 북아트 전시회, 동극 공연, 자기 주장대회, 문학 기행. 책 사랑 시 낭송회 등을 독서의 달 행사와 연계해 추진
	2007	(상반기) 나의 아름다운 정원/ 심윤경	
	2007	(하반기) 열하일기 / 고미숙	
포항	2006	잃어버린 가방 / 박완서	작가초청 강연회, 원 북토론회(주부독서회), 독서릴레이, 원 북 독후감 공모, 동화빛공연, 테마문학기행, 원 북엽서 제작 배포, 원 북 삽화 순회전시회, 원 북온라인카페 운영(온라인감상문 쓰기, 온라인토론)
	2007	마당을 나온 암탉 / 황선미	
여수	2007	등대지기/김자환	작가초청 강연회, 릴레이 독서 및 선정도서 느낌 토론(사이버 토론), 독후감 공모 및 시상

지역	연도	선정된 도서명/저자명	프 로 그 램
서귀포	2007	나무를 심은 사람 / 장지오노	휴대폰 문자메시지, 메일로 카페회원 등록 독려, 시민의 책 운동 편지쓰기, 메일쓰기, 행운의 편지, 1회원 3회원 3후원 개척 독려, 자동이체 계좌 운영, 홈페이지 활성화, 소식지 정기발간, 정기모임, 독서클럽(단체 조직), 독후감 공모, 청소년논술대회, 은행카드, 다양한 홍보물(책갈피, 책 엽서 시리즈, 포스터, 뱃지, 엠블럼, 스티커), 가두홍보-전단배포, 타행사장 홍보부스 할애, 애니메이션 상영, 스타 마케팅
대전	2007	남한산성 / 김훈	작가초청 강연회, 세미나와 토론회, 캠페인, 각급 단체별 책읽기 릴레이 전개, 가족과 함께 밤새워 책 읽고 추억 만들기, 사랑의 책 기증사업, 각종 기념일 책 선물하기 책사랑 교환전, 책 읽는 가족 백일장, 출향작가 및 지역작가 책 읽기 사업
김해	2007	제4의 제국/ 최인호	작가초청강연회, 김해를 배경으로 하여 쓰여진 책, 책릴레이

4.1.4 지역별 독서활동

지역별 독서활동으로는 국내 최초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시도한 서산의 경우에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2003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해외의 사례를 검토한 기초조사를 마친 후, 서산시와 서산시립도서관을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9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4년부터는 지역사업으로 전환하여 시와 도서관에서 이 운동이 지속되고 있다(황은주 2006). 또한 서산시는 해당 선정 자료에 매년 토론 자료집인 워크북[12]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에서 워크북은 주로 사서들이 제작하며 이 안내서에는 작가소개, 작품의 배경자료, 토론을 위한 질문과 활동 지침, 서평, 추천 자료, 프로그램 평가양식 등이 실려 있으며, 인쇄본으로 도서관과 서점에 제공되고 동시에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기도 한다(이용재, 황은주 2006).

12) ‘워크북’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으로 ‘discussion toolbox(토론도움자료집, 토론도구통)’이라는 표현이 북미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순천지역의 경우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시립도서관인 중앙관, 연향관, 기적의 도서관이 서로 협력하여 '책 한권, 하나의 순천'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순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는 '책 한권, 하나의 순천'이라는 메뉴 아래 '작가와 함께', '사이버토론공간', '독서감상문', '올해의 선정도서', '자료실'로 구성되어 있으나 온라인 활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책 한 권 행사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작가와 토론과 대화', '선정도서와 관련된 전시 기획', '선정 도서의 주제에 대한 시민 대토론회', '선정도서에 대한 글쓰기 대회', '각종 독서 체험행사', '창조적인 연극제작과 발표회' 등이다

'원 북 원부산 운동'은 시민들의 투표로 한 권의 책을 정한 후에 함께 한 책을 읽으며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는 범시민 독서생활화 운동이다. 매년 각계각층에서 추천된 100여종의 책 중에서 읽고 토론하기에 적합한 10권을 선별하여 후보도서로서 홍보하고, On/Off-line의 다양한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원 북'을 선정한다. 특히, 2007년 도서선정 과정에는 전년도 41,943명 보다 71% 많은 71,760명의 부산시민이 참여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많은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 부산일보사, 공공도서관 및 각급 학교마다 홍보 플랜카드를 걸거나 홈페이지에 원 북 안내 팝업창을 게재하는 등 올해의 원 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원주시의 '한 책, 한 도시' 운동은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원주평생교육정보관의 주최로 지역통합은 물론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원주평생교육정보관에서 '한 책, 한 도시' 운동에 관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quick menu로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책읽기 운동 본부 홈페이지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운영이 활발한 상태이다. 2004년부터 시작된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선정도서가 연도별로 배열되어 있으며 책에 관해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참여마당은 '100자평', '독서토론회', '독후감상문 응모', '독서 릴레이', '토론마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사안내에는 '프로그램 안내', '사행시 짓기', '정의하기', '독서퀴즈'로 구성되어 있다. 게시판도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일반자료실, 사진자료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북 익산시는 2004년부터 학교와 가정, 단체를 통해 적극적인 독서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한권의 책으로 하나 되는 익산'이란 표어로 한 권의 책을 선정해 시민들이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정서적 일체감을 심어주고, 하나로 통합된 지역 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청주시는 2006년 10월부터 한 권의 책을 선정해 시민들이 이 책을 돌려 가면

읽도록 하는 책 읽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했다. 토론방법에 대해서는 선정도서와 관련된 워크북을 제작, 책을 배포한 곳을 대상으로 배포하며 홈페이지를 구축해 사이버 독후감 공모, 한 책과 토론하기 등의 코너를 만들어 토론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시민들에게 ‘책 읽는 청주’의 추진배경과 의미를 알리고 홍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난해 4개소로 운영하던 북카페를 6개소로 확대해 선정도서 10권씩을 비치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북카페를 이용, 책을 읽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 권의 책, 하나의 포항(One Book, One Pohang)’ 행사는 누구에게나 권장할 만한 한 권의 교양도서를 선정, 함께 읽고 토론하며 책읽기와 관련된 다양한 행사 및 활동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책 읽는 도시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이다. 포은시립도서관이 온라인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북카페는 포은시립도서관의 빠른메뉴(Qick Menu)로 링크되어 있다. 주요 메뉴는 ‘원 북추천하기’, ‘감상문쓰기’, ‘토론마당’, ‘독서권장운동’ 등이다. 토론마당은 이 달의 ‘독서테마’, ‘장르별 토론마당’,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여수시립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자체적으로 ‘한 책, 한 도시’ 운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벌이고 있는 지역의 활동을 벤치마킹한 후에 특수시책으로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민의 책 함께 읽기운동’은 ‘시민의책선정위원회’에서 ‘시민의 책’을 선정해 놓고 그 책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감으로써 책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함은 물론 그 책이 담고 있는 가치를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기를 만들어내는 독서와 토론으로 서귀포시를 바꾸자는 시민운동이다. 시민 참여 방법은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으로 나뉘는데 온라인 활동으로는 홈페이지(현재는 다음카페)를 활용하여 독후감을 올리기도 하고 댓글을 올릴 수 있으며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활동으로는 본부 주관 각종 행사 참여로 독후감 공모, 토론회, 독서올림픽(퀴즈대회, 독후감대회, 논술대회, 토론대회), 독서인증시험이 있으며, 독서모임(Citybooks Club) 단위별 토론회 혹은 행사 참여, 도서관, 마을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사회단체사무실, 커피숍, 레스토랑 등 곳곳에서 독서 및 토론 모임을 가지는 것이다.

대전지역의 도서관과 독서관련 단체, 지역 문화원 등 18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희망의책대전본부는 참여 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세미나와 토론회, 캠페인 등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인 ‘각급 단체별 책읽기 릴레이 전개’, ‘가족과 함께 밤새워 책 읽고 추억 만들기’, ‘사랑의 책 기증사업’, ‘각종 기념일 책

선물하기', '책사랑 교환전', '책 읽는 가족 백일장', '출향작가 및 지역작가 책 읽기 사업'등을 추진하고 있다.

'책 읽는 도시 김해' 프로젝트는 시민차원의 새로운 독서문화운동과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는 독서인프라 확충을 통해 김해를 세계적인 책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책읽기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기본으로 해서 시민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007년 8월 1일 "김해시"와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김해시의 독서문화 및 도서관문화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새로운 책읽기 문화운동을 전개하는데 상호협력하기로 하고 '책읽는 도시 김해 만들기'협약을 맺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이 지역의 독서문화와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포괄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일로 주목할 만한 일이다. 김해시는 계획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상의 조치와 전담조직 구성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은 계획수립 과정에 필요한 조사, 교육, 자문 등을 담당하며 김해시가 시행하는 독서문화 및 도서관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투여할 예정이다. 김해시는 9월에 도서관 정책담당부서를 설치하였으며, '책읽는 도시 김해' 만들기 종합계획 및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전 시민적 차원에서 책읽기 붐 조성을 위해 2007년 10월 6일 '책읽는 도시 김해' 선포식을 가졌다.

4.2. 서울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

2004년부터 서울문화재단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책 읽는 서울'의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은 2005년부터 실시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이다(표 4 참조). 서울의 경우에는 2004년 9월 '책 읽는 서울' 개막식과 함께 31개 공공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이 참여한 것을 시작으로 200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운동의 목표아래 16개 도서관, 2006년에는 26개의 공공도서관이 참여하여 활발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07년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은 서울시의 57개 공공도서관이 참여하는 서울 대표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도 이 사업에 동참하여 활기를 띠고 있다. 2007년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은 도서관을 단순히 독서운동을 위한 거점 뿐 아니라 지역시민들의 소통을 위한 진정한 커뮤니티센터로서 도서관이 거듭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2007년 참여하는 57개의 도서관

중 23개 도서관은 9종의 도서로 컨소시엄 구성의 연계 진행을 하고 있으며 11개 도서관은 5종의 동일도서로 진행하고 있다.

(표 4) ‘책 읽는 서울’의 주요 프로그램

연 도	프로그램의 종류
2004년	책읽는 서울 개막행사 및 부대행사, 서울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폐막행사
2005년	독서낭독투어프로그램, 한 도서관 한 책읽기, 독서캠페인행사, 세계책의 날 행사, 책과 함께 젊음의 신화를 만들자
2006년	도서관, 한도서관 한 책 읽기, 아이들과 함께 읽는 그림동화: 찾아가는 낭독회, 청소년 독서토론문화의 중심: 저자와 함께 학교에 가다
2007년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움직이는 서가, 걸리버의 그림책 BIG BOOK 순회전시, 책 읽는 서울 축제

4.2.1 프로그램의 종류

서울 지역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으로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실시된 프로그램은 참가 도서관 47개관 중 26개관(45.6%)에서 총 34회가 이루어진 독서토론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도서관의 경우에는 어린이독서회, 청소년독서회, 동화읽는어른모임, 주부독서회에서 독서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서대문이진아기념도서관의 경우에는 여름독서교실, 어린이독서회, 어머니독서회에서 한 책 읽기 도서에 대한 토론회가 이루어졌다. 중계평생학습관의 경우에는 주부와 초등학생 대상의 독서토론이 각각 이루어졌으며 논현도서관과 논현정보마당의 경우에는 역할극과 함께 하는 독서토론회가 이루어졌다.

‘작가초빙강연회’는 18개관(31.6%), ‘독서릴레이’는 15개관(26.3%), ‘원화(한책관련)전시회’가 15개관(26.3%), ‘독서감상문 모집’ 13개관(22.8%), ‘독서퀴즈’ 13개관(22.8%), ‘독후감상화’ 9개관(15.8%), ‘북아트’ 7개관(12.3%), ‘영화상영’ 6개관(10.5%), ‘공연극’ 5개관(8.8%), ‘뒷이야기 쓰기’ 5개관(8.8%) 순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독후활동’, ‘이야기 들려주기’, ‘한책나무키우기’, ‘체험’이 각각 4개관(7.0%), ‘독서토론법강의’, ‘주제강연회’, ‘즐거운 소식지’, ‘찾아가는 놀이터’, ‘부모교육’이 각각 3개관(5.3%), ‘6행시짓기’, ‘독서퍼즐’, ‘마인드맵’, ‘서평쓰기’, ‘워크북모집’, ‘책표지그리기’, ‘독서신문 및 NIE’, ‘사진전시회(사진콘테스트, 사진전)’가 각각 2개관(3.5%), ‘독서치료’, ‘음악회’, ‘종이접기’, ‘책바꾸어보기’, ‘책속

한 문장나누기', '책쌓기 대회', '팜플렛제작', '한 줄 느낌', '한 책 읽기코너', '한 책 E-편지쓰기', '홍보우표 배부', '100자 서평 릴레이', '동화구연', '동화를 통한 상상력', '나의 다짐쓰기'가 각각 1개관(1.8%) 순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서울에 위치한 도서관에서 채택한 프로그램

채택 도서관수	백분율 (%)	프로그램명
26	45.6	독서토론
18	31.6	작가초빙강연회
15	26.3	독서릴레이, 원화(한책관련)전시회
13	22.8	독서감상문 모집, 독서퀴즈(골든벨, 응모형)
9	15.8	독후감상화
7	12.3	북아트
6	10.5	영화상영
5	8.8	공연극, 뒷이야기 쓰기
4	7.0	독후활동, 이야기 들려주기, 한책나무키우기, 체험
3	5.3	독서토론법강의, 주제강연회, 즐거운 소식지, 찾아가는 놀이터, 부모교육
2	3.5	6행시짓기, 독서퍼즐, 마인드맵, 서평쓰기, 워크북모집 책표지그리기, 독서신문 및 NIE, 사진전시회(사진콘테스트, 사진전)
1	1.8	독서치료, 음악회, 종이접기, 책바꾸어보기, 책속 한 문장나누기, 책쌓기 대회, 팜플렛제작, 한 줄 느낌, 한 책 읽기코너, 한책 E-편지쓰기, 홍보우표 배부, 100자 서평 릴레이, 동화구연, 동화를 통한 상상력, 나의 다짐쓰기

4.2.2 한 책으로 선정된 도서의 내용

서울 한 책 도시 참가 도서관 57개관에서는 모두 35종의 도서가 선정되었으며 가장 많은 도서관에서 채택하고 있는 도서는 '엄마의 마흔 번째 생일'로 강남·개포·강동·강서·논현도서관 등 7개관(12.3%)에서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문화관·봉천2동·글빛정보 도서관에서는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를 추천도서로 선정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구로 지역의 꿈나무 도서관과 꿈마을 도서관은 혼혈인 이야기를 다룬 '외로운 지미'를, 성동장애복지관이 있는 성동구에서는 '아주 특별한 우리 형'을 선정했다(표 6 참조).

각 도서관에서 선정된 한 책 도서는 동화를 선정한 도서관이 38개관(66.7%), 소설 4개관(7%), 자기계발도서 4개관(7%), 기행과 수필이 각각 3개관(5.3%), 교육 관련 도서가 2개관(3.5%), 위인전, 어른을 위한 동화, 역사만화가 각각 1개

관(1.8%)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각 도서관에서 선정된 한 책 도서의 발행연도를 조사한 결과 2006년도 발행도서 21개관(36.8%), 2005년 발행도서 13개관(22.8%), 2007년 발행도서가 각각 5개관(8.8%), 2002년과 2004년 발행도서가 3개관(5.3%), 2001년과 2003년 발행도서가 2개관(8.8%), 1979년, 1994년, 1997년 발행도서가 각각 1개관(1.8%)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발행된 도서를 선정한 도서관이 54개관(94.7%)인 것으로 나타나 한 책 도서로 최근에 출판된 도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표 8 참조).

(표 6) 서울 한 책 선정 도서 및 출판시기

순서	지역	도서관명	선정도서명	출판시기	내용
1	구로	구로도서관	기적의 도서관 학습법	2005	교육
2	마포	마포아현분관	내 아이의 즐거운 학교 박물관	2006	교육
3	금천	금천구립도서관 동대문도서관 종로도서관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2006	기행
4	동대문				
5	종로				
6	중랑	중랑면목정보도서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1979	소설
7	노원	중계평생학습관	지붕 낮은 집	2004	소설
8	도봉	도봉도서관	연어	2005	소설
9	종로	정독도서관	남한 산성	2007	소설
10	관악	관악문화관 도서관 글빛 정보 도서관 봉천 2동 작은도서관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2006	수필
11	관악				
12	관악				
13	용산	용산도서관	건방진 도도군	2007	동화
14	양천	양천도서관	국화마을의 어린왕자 모모	2006	동화
15	도봉	도봉문화정보도서관	까만 달걀	2006	동화
16	노원	노원정보도서관	나의 린드그렌선생님	2005	동화
17	서대문	서대문도서관			
18	송파	송파도서관	너도 하늘말나리야	2002	동화
19	은평	은평구립도서관	달님은 알지요	1994	동화
20	용산	남산도서관			

순서	지역	도서관명	선정도서명	출판시기	내용
21	구로	고척도서관	또야 너구리가 기운 바지를 입었어요	2001	동화
22	마포	마포평생학습관	마당을 나온 암탉	2000	동화
23	영등포	영등포 평생 학습관	마당을 나온 암탉	2000	동화
24	강북	강북문화정보센터	맘대로 아빠, 맘대로 아들	2006	동화
25	강북	강북청소년문화			
26	강북	솔샘문화정보센터			
27	성북	아리랑정보도서관	사금파리 한 조각	2002	동화
28	종로	어린이도서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엄마	2005	동화
29	강동	성내도서관	수선된 아이	2007	동화
30	동작	동작도서관	숲자연학교로 가다	2007	동화
31	성동	금호도서관	아주 특별한 우리형	2000	동화
32	성동	성동구립도서관			
33	성동	용답도서관			
34	강남	강남도서관	엄마의 마흔번째 생일	2005	동화
35	강남	개포도서관			
36	강남	논현도서관			
37	강남	논현문화정보마당			
38	강동	강동도서관			
39	강서	강서도서관			
40	강서	길꽃 어린이 도서관			
41	구로	구로 꿈나무 도서관	외로운 지미	2004	동화
42	구로	구로 꿈마을 도서관			
43	노원	노원어린이도서관	우리 집에 온 마고할미	2005	동화
44	양천	신월디지털정보	잃어버린 겨울방학	2006	동화
45	광진	광진정보도서관	조각보 이불	2006	동화
46	서초	서초 어린이 도서관			
47	강남	정다운 도서관			

순서	지역	도서관명	선정도서명	출판시기	내용
48	강남	청담 도서관	짜장면 불어요	2006	동화
49	금천	금천구립가산정보도서관	책먹는 여우	2001	동화
50	강동	고덕평생학습관	휠체어를 타는 친구	1997	동화
51	서대문	서대문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	2007	위인전
52	송파	거마정보도서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행복한 청소부	2003	어른을 위한동화
53	중랑	중랑구립정보도서관	가로세로 세계사	2006	역사만화
54	성북	성북정보도서관	선물	2003	자기계발
55	강남	대치도서관	30년만의 휴식	2006	자기계발
56	강남	즐거운 도서관	30년만의 휴식	2006	자기계발
57	강남	행복한 도서관	30년만의 휴식	2006	자기계발

(표 7) 선정된 한 책 도서의 내용

내용	교육	기행	소설	수필	동화	위인전	어른을 위한동화	역사 만화	자기 계발	합계
도서관 수	2	3	4	3	38	1	1	1	4	57
백분율 (%)	3.5	5.3	7.0	5.3	66.7	1.8	1.8	1.8	7.0	100.0

(표 8) 선정된 한 책 도서의 발행연도

출판 년도	1979	1994	199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합계
도서관 수	1	1	1	5	2	3	2	3	13	21	5	57
백분율 (%)	1.8	1.8	1.8	8.8	3.5	5.3	3.5	5.3	22.8	36.8	8.8	100.0

4.2.3 홈페이지 홍보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에 참여한 57개 도서관의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는 홍보방법을 조사해본 결과 은평구립도서관의 경우에는 ‘한 도서관, 한 책’ 운동과

관련한 단독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평구립도서관의 홈페이지 메뉴는 한 도서관 한 책 읽기란?, 선정도서 소개, 작가소개, 한도서관한 책읽기관련행사, 도란도란(읽어보니 좋아요), 행사관련사진으로 이루어져있다. 용산도서관의 경우 홈페이지 팝업창에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관련 행사 안내가 나타나고 클릭하면 행사명, 일시, 장소, 대상, 내용, 비고(참가신청)까지 나타난다(그림 1 참조). 한편, 홈페이지에 행사관련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볼 수 있는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클릭하면 관련내용을 화면에 제시해주는 홈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이진아기념도서관의 경우에는 별도로 운영하는 카페(http://cafe.daum.net/ljalibonebook)가 있으며 준회원이상이면 메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카페 메뉴의 구성은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독서릴레이, 100자평쓰기, 한 책 갤러리, 폰앨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서울시립 용산도서관(http://www.yslib.or.kr/)의 홍보

팝업 알림장

알림장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행사 안내 NEW GO

신청 및 문의 : ☎ 754-3439

행사명	일시	장소	대상	내용	비고 (참가신청)
도서관친구들 모집	2007.7. 25(수) -8.14(화)		초등4학년 이상, 학부모 포함 50명		
도서관친구들 창단식	2007.8. 17(금) 10:00	시청각실		행사내용 설명, 도서 및 기념품 증정	
독서릴레이	2007.8.17-10.31		도서관과 친구들 50명 중심	독서릴레이, 한 줄 느낌 쓰기	
짧은 독서퀴즈 이벤트	2007.8. 16(목) - 8. 26(일)	어린이실 투표함	초등학생	독서퀴즈 및 정답자 추첨, 시상	
책 나무 키우기-도도에게 한마디	2007. 8.20(월) -8.31(금)	어린이실	어린이실 이용자	주인공에게 말하고 싶은 이야기	
독서 토론	2007.8.22(수) 10:00~11:30	평생학습실	4학년이상 20명	인물탐구, 내용들어가기 등	8. 21(화) 전화접수 가능
가족 독서 체험 프로그램 -우리가족 책만들기	2007.8. 25(토) 10:00-12:00	시청각실	어린이와 부모 15가족	책 만들기, 작품전시회	8. 22(수)~23(목) 전화접수 가능
건방진 도도군 6행시 짓기	2007.9.1(토) -9.10(월)	어린이실	초등학생	자유롭게 6행시 짓기	
가족 독서퀴즈	2007.9. 1(토) 14:00-16:00	시청각실	어린이와 부모 20가족	OX퀴즈, 주·객관식 퀴즈/ 가족 독서왕 선발 및 시상	8. 29(수)~30(목) 전화접수 가능
강정연 작가와 만나요.	2007. 9. 8(토) 10:00-12:00	시청각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부모	작가와의 대화/팬사인 및 기념촬영	9.5(수)~6(목) 전화접수 가능
책 속 캐릭터 그리기	2007.9.15(토) 14:00-16:00	시청각실	초등학생	책속 캐릭터 그리기 / 전시회	9.12(수)~13(목) 전화접수 가능
우리가족 독서신문 만들기	2007.9.30(일) 14:00-16:00	시청각실	어린이와 부모 15가족	가족독서신문만들기 / 전시회	9.19(수)~20(목) 전화접수 가능

(표 9) 서울 지역의 한 책 홈페이지 홍보 유형

홈페이지 홍보 유형		도서관 수	백분율(%)
팝업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공지	1	1.8
	한 책 관련 프로그램 모두 공지	7	12.3
	한 책 프로그램중 하나 공지	9	15.8
	한 책 도서 소개	2	3.5
	한 책 행사 링크	6	10.5
	한 책 행사 취지설명 및 행사안내	3	5.3
공지사항		14	24.6
홍보 내용 찾을 수 없음		13	22.8
단독 홈페이지		1	1.7
홈페이지 없음		1	1.7
합 계		57	100

‘한 도서관, 한 책 운동’과 관련한 도서관별 홍보 형태를 조사해 본 결과 ‘팝업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28개 도서관(49.1%)으로 나타났다. 팝업으로 홍보하는 내용을 분석해보면 ‘팝업에서 한 책 프로그램 중 하나를 공지’하는 도서관이 9개관(15.8%), ‘팝업에서 한 책관련 프로그램 모두 공지’하는 도서관이 7개관(12.3%), ‘팝업에서 한 책 행사 링크’하는 도서관이 6개관(10.5%), ‘팝업에서 한 책 행사 취지설명 및 행사 안내’하는 도서관이 3개관(5.3%), ‘팝업에서 한 책 도서를 소개’하는 도서관이 2개관(3.5%), ‘팝업에서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공지’하는 경우가 1개관(1.8%)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지사항에서 홍보’하는 경우가 14개관(24.6%), ‘한 책 관련 행사의 내용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13개관(22.8%), ‘단독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1개관(1.7%), ‘홈페이지에서 한 책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1개관(1.7%) 순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4.2.4 운동의 형태

서울의 ‘한 도서관, 한 책 운동’의 형태는 컨소시엄 유형, 동일도서 진행도서관, 개별 진행도서관으로 크게 3구분할 수 있다. 여러 도서관이 컨소시엄의 형태로 운영되는 형태로 23개 도서관이 9개의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다. 동일도서 진행도서관은 2-3개 도서관이 같은 책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11개관, 이 밖에 각각 도서관이 다른 책으로 진행되는 23개 도서관 등 57개의 도서관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컨소시엄 유형 도서관

컨소시엄 유형의 도서관은 23개 도서관이 9개의 컨소시엄을 이루어 진행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한 종류의 도서를 매개로 주로 인접해 있는 도서관간의 연계 진행을 통해 도서관을 순회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컨소시엄형태로 운영되는 도서관들 중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강서도서관과 들꽃어린이도서관의 경우에는 운영주체가 서울시교육청과 지자체소속인 강서구청으로 다르지만 서로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8개의 컨소시엄으로 운영되는 도서관들은 운영주체가 같은 도서관끼리 연계하고 있는 공통점이 나타난다(표 10 참조).

① 컨소시엄 유형 도서관의 행사 연계

컨소시엄 유형으로 이루어진 23개 도서관의 행사 연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남지역의 개포도서관, 강남도서관, 강동도서관은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으로 서로 연계하여 '한 책 읽기'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개포도서관과 강남도서관, 강동도서관은 가까우며 운영주체가 같기 때문에 연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서관들은 일정별로 돌아가면서 한 책 원화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워크북은 이들 세 도서관에서 공동으로 작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 행사는 각 도서관별로 진행되었으며 이들 도서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종류를 살펴보면 독서토론에 관한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립도서관의 경우에는 논현도서관, 삼성2동작은도서관, 대치도서관, 청담도서관, 세곡도서관, 논현문화정보마당, 즐거운도서관, 정다운도서관, 행복한도서관 등 9개 도서관이 사단법인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 위탁·운영되고 있다. 그 중에서 삼성2동작은도서관, 세곡도서관을 제외한 7개의 도서관에서 한 책 읽기 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사의 전체 진행은 논현문화정보마당에서 주도하고 있다. 컨소시엄은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구립도서관끼리 연계하고 있는 형태로 대치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치도서관과 즐거운도서관과 행복한 도서관, 논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논현도서관과 논현문화정보마당, 청담동에 소재하고 있는 정다운도서관과 청담도서관을 묶어서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책읽기 행사에 참여하는 도서관은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연계하는데 독서릴레이의 운영, 워크북의 제작, 작가초청 강연회, 역할극과 함께 하는 독서토론 등의 프로그램을 공통적인 행사로 진행하였으며 각 도서관별 별도의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혼용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문화정보센터,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산하의 지자체 도서관으로 운영주체가 같으며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는 작은 도서관이므로 강북문화정보센터에서 한 책 읽기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형태이다. 강북구립도서관인 3개관에서 모두 ‘한 도서관, 한 책’ 행사에 대한 포스터의 부착 및 홍보를 실시하고 실제 프로그램의 진행은 강북문화정보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컨소시엄 유형 도서관

구분	선정도서	지역	도서관명	운영주체
1	엄마의 마흔번째 생일	강남	개포도서관	서울시교육청
		강남	강남도서관	서울시교육청
		강동	강동도서관	서울시교육청
2	30년만에 휴식	강남	대치도서관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강남	즐거운 도서관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강남	행복한 도서관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3	엄마의 마흔번째 생일	강남	논현도서관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강남	논현문화정보마당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4	짜장면 불어요	강남	청담 도서관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강남	정다운 도서관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5	맘대로 아빠, 맘대로 아들	강북	강북문화정보센터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강북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강북	솔샘문화정보센터	강북구도시관리공단
6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 하지 않는다	관악	관악문화관 도서관	관악문화원
		관악	글빛 정보 도서관	관악문화원
		관악	봉천 2동 작은도서관	관악문화원
7	외로운 지미	구로	구로 꿈나무 도서관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구로	구로 꿈마을 도서관	구로구시설관리공단
8	아주 특별한 우리 형	성동	성동구립도서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	금호도서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	용답도서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9	엄마의 마흔번째 생일	강서	강서도서관	서울시교육청
		강서	들꽃 어린이 도서관	강서구청

관악문화관도서관, 글빛정보도서관, 봉천2동작은도서관은 관악문화원 산하의 도서관으로 운영주체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의 도서관들은 한 책 도서로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를 선정하였는데 이슈가 된 책 중에서 대중성을 가지는 책을 선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행사인 '작가초청 강연회', '한 도시 한 책 읽기 행사 참여작품전시회'는 규모가 큰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 운영하며 작은 행사는 각 도서관에서 실시하며 홍보는 함께 하는 형태이다.

구로꿈나무도서관, 구로꿈마을도서관은 운영주체가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며 구로꿈나무도서관은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로꿈마을도서관은 작은 규모의 도서관이다. 구로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외국인 노동자 아빠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 태어난 피부색깔이 다른 아이의 이야기를 다룬 '외로운 지미'를 한 책 읽기 도서로 선정했으며 외국인 노동자를 생각해볼 수 있는 '1인 시위', '네팔 문화 체험'등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독서특강', '네팔 문화체험'은 구로꿈나무 도서관이 소재한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강당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의 도서관 중에서 성동구립도서관은 본관이며 금호도서관, 용답도서관이 분관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산하의 도서관이다. 운영되는 행사프로그램으로는 성동구립도서관이 운영하는 복지회관과 연계된 '장애인 체험행사'를 한 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수기를 모집하는 것 이외에는 행사 프로그램의 대부분을 성동구립 3개 도서관에서 중복하여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에 위치한 강서도서관은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이며 들꽃어린이도서관은 지자체인 강서구청 산하의 도서관으로 운영주체가 다른 도서관이 협력하는 독특한 형태이다. 이들 도서관들은 워크북을 공동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컨소시엄 유형 도서관의 한 책 관련 행사 프로그램

여러 도서관에서는 한 책 관련 행사로 '독서감상문 모집', '독서퀴즈 대회', '원화전시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 책 관련 행사 프로그램 중 특색 있는 도서관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1 참조).

강남도서관은 '지역학교와 선정도서 릴레이'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개포도서관은 '한 책 관련 사진 공모전', 강동도서관은 '선정도서에 대한 어린이토론'

을 강화하여 저학년과 고학년을 대상으로 따로 독서토론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립도서관의 경우 대치도서관과 논현도서관은 ‘역할극과 함께 하는 토론’을 운영하며 대치도서관, 즐거운도서관, 행복한도서관에서는 ‘나를 움직인 책 속 한 구절 나누기’, 청담도서관의 경우에는 ‘관내초등학교를 찾아가는 특강 및 토론’, ‘이동도서관을 활용한 지역주민 홍보캠페인’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립도서관인 강북문화정보센터,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의 경우에는 선정된 ‘맘대로 아빠, 맘대로 아들’의 내용에 중점을 두고 ‘맘대로 공모전’, ‘가족 주제의 영화 상영’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립도서관인 관악문화관도서관과 글빛정보도서관은 ‘마인드맵그리기’와 ‘책표지그리기’를 각 도서관이 1차, 2차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봉천2동작은도서관에서는 ‘동화구연’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립도서관인 구로꿈나무도서관은 혼혈아동을 그린 한 책 도서 ‘외로운 지미’와 관련 있는 뮤지컬 공연 ‘미운 오리 새끼’와 외국문화체험인 ‘네팔문화체험’을 운영하였다.

성동구립도서관의 대표 도서관인 성동구립도서관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독서퀴즈왕선발대회’, ‘독후감상문대회’, ‘독후감상화그리기 대회’가 있으며 이 프로그램은 연계해서 운영하며 금호도서관, 용답도서관은 ‘독서토론 및 강의’, ‘독서퀴즈왕 선발대회’, ‘작가초청 강연회’ 등을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의 각 도서관들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관계로 지역별 편차가 있으므로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을 일정만 다르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도서인 ‘아주 특별한 우리형’과 관련 있는 복지회관과 연계된 ‘장애인 체험행사’를 한 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수기를 모집하는 것 이외에는 각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동일하다.

강서도서관은 ‘독서퍼즐 이벤트’를, 강서길꽃도서관의 경우에는 ‘별밤독서퀴즈’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컨소시엄 유형 도서관의 특색 프로그램

도서관명 / 선정도서명	특색 프로그램
강남도서관 / 엄마의 마흔번째 생일	- 지역학교 선정도서 책 읽기 릴레이
개포도서관 / 엄마의 마흔번째 생일	- 한 책 사진 공모전
강동도서관 / 엄마의 마흔번째 생일	- 선정도서에 대한 어린이 독서토론 : 저학년(1~2학년), 고학년(3-6학년)
대치도서관 / 30년만의 휴식	- 역할극과 함께하는 독서토론 - 특강(건국대 정신분석과 하지현-소통의기술) - 나를 움직인 책속 한구절 나누기
즐거운도서관 / 30년만의 휴식	- 독서토론 - 나를 움직인 책속 한구절 나누기
행복한도서관 / 30년만의 휴식	- 나만의 책만들기 - 독서특강 - 나를 움직인 책속 한구절 나누기
논현도서관 / 엄마의 마흔번째 생일	- 역할극과 함께 하는 독서토론 - 삽화전시회
논현문화정보마당 / 엄마의 마흔번째 생일	- 맘코칭 특강
정다운도서관 / 짜장면 불어요	- 이동도서관을 활용한 지역주민 홍보캠페인
청담도서관 / 짜장면 불어요	- 찾아가는 특강 및 토론 (관내 초등학교) - 이동도서관을 활용한 지역주민 홍보캠페인
강북문화정보센터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 맘대로 아빠, 맘대로 아들	- 가족토론회 - 맘대로 공모전 ①가족사진 콘테스트 : 붕어빵 가족 콘테스트 ②맘대로 세상 꾸며보기 : 동영상, 일과표, 그림, 글, 만화, 사진 등 ③추천! 가족 여행지 : 경험한 추천 여행지, 여행 후기, 추억을 도서관 게시판에 올리기 - 가족오락관 : 가족DNA팔찌 만들기, 가족 게임 등
관악문화관도서관 /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 하지 않는다	- 마인드맵 그리기(2차) - 책표지 그리기(2차)
글빛정보도서관 /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 하지 않는다	- 마인드맵 그리기(1차) - 책표지 그리기(1차) - 동화캐릭터 그리기
봉천2동작은도서관 /	- 독서감상문 모집

도서관명 / 선정도서명	특색 프로그램
민들레는 장미를 부러워 하지 않는다	- 동화구연
구로꿈나무도서관 / 외로운 지미	- 네팔문화체험 : 외국인 문화체험 강사 강의 - 뮤지컬 공연 : 미운 오리 새끼 - 독서토론회 1차, 2차 운영 - 책을 읽고 생각나누기 결과물 접수 : 토론 결과물
구로꿈마을도서관 / 외로운 지미	- 동화구연대회 1차
성동구립도서관 / 아주 특별한 우리 형	- 장애인 체험행사 : 복지회관연결 (초등학생대상 체험수기 모집)
강서도서관 / 엄마의 마흔번 째 생일	- 독서퍼즐 이벤트
강서길꽃어린이도서관 / 엄마의 마흔번 째 생일	- 별밤 독서퀴즈대회

2) 동일도서 진행 도서관

동일도서로 진행하는 도서관들은 다른 지역의 도서관으로 도서관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간 교류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조사결과 11개 도서관 중 9개 도서관은 지역간 교류 없이 각 도서관 독자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평생학습관과 마포평생학습관은 모두 서울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므로 서로 교류하면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 경험이 있는 마포평생학습관 담당자에게 궁금한 것에 관하여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동일도서 진행 도서관의 한 책 관련 행사 프로그램

동일도서진행도서관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은 노원정보도서관의 경우에는 ‘속 그림판화그리기’, 서대문도서관의 경우에는 독서토론회를 강화하여 어린이독서회, 청소년독서회, 글사랑독서회, 동화읽는어른모임 등에서 독서토론을 운영하였으며 인근지역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책읽기 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도서관의 경우에도 2개의 어린이독서회, 성인독서회, 주부독서회에서 한 책 관련 소그룹토론회가 열렸으며, 한 책 도서인 ‘하늘말나리야’와 관련 있는 ‘종이진흙으로 등장인물만들기’, ‘말나리아 종이꽃접기’ 등이 운영되었다. 은평구립도서관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한 책 읽기운동 전용 홈페이지를 링크시켰으며 영등포

평생학습관은 '가족과 함께 독후감상화그리기', 마포평생학습관은 '가족사랑 인형극 : 아기돼지 삼형제'를 운영하였다. 광진정보도서관은 '조각보 이불 만들기', '가족 동화구연대회'를 운영하였고, 서초어린이도서관은 '종이접기: 조각보', '퀼트', '초등1학년 조각보 논술 토론수업', '초등3학년 조각보 논술 토론수업' 등을 운영하였다. 종로도서관은 '월드비전 홍보팀의 주제강연회', 동대문도서관은 '장애우에게 긴급구호이야기 구연동화', 자체 제작한 엽서에 '엽서에 한 줄 느낌 쓰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금천구립도서관은 여행책 코너에 책꽂이를 별도 마련하여 한비야의 책을 함께 진열하였으며 저금통, 홍보자료, 한비야가 쓴 책 정보(줄거리 간단하게 요약, 한비야가 하는 일 등 수록)을 만들어 팜플렛으로 배포하였고 '세계빈민국가 : 세계나라의 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팝업과 원서로 된 세계그림책 전시회'등의 행사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표 12) 동일도서 진행도서관의 특색 프로그램

도서관명 / 선정도서명	특색 프로그램
노원정보도서관/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	- 속그림 판화 그리기(초4-6) - 동요와 만화주제곡이 함께 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음악회 - 책 퍼즐 놀이, 책 속 글귀 찾기
서대문 도서관/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	- 독서회 중심 선정도서 토론회 개최(독서회별 모임): 어린이독서회, 청소년독서회, 글사랑독서회, 동화읽는 어른모임 등 - 인근지역 초등학교 연계 책읽기 운동 전개
송파도서관/ 하늘말나리아	- 소그룹 토론회 : 어린이독서회 2개, 성인독서회, 주부독서회 - 점핑클레이 : 종이진흙으로 등장인물만들기 - 종이꽃접기 : 말나리꽃 접기
은평구립도서관/ 하늘말나리아	- 한 도서관 한 책 운동 전용홈페이지 운영
영등포평생학습관 / 마당을 나온 암탉	- 가족과 함께 독후감상화그리기 - 책갈피 : 자체 작성 코팅
마포평생학습관 / 마당을 나온 암탉	- 가족사랑 인형극 : 아기돼지 삼형제
광진정보도서관 / 조각보 이불	- 어린이영어뮤지컬 : 사운드오브뮤직 - 조각보 이불 만들기 - 가족 동화구연대회

도서관명 / 선정도서명	특색 프로그램
서초어린이도서관 / 조각보 이불	- 종이접기 : 조각보, 퀼트 - 초등1학년 독서지도프로그램 : 조각보 논술 토론수업 - 초등3학년 독서논술 프로그램:조각보 논술 토론수업
종로도서관 /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 주제강연회 : 월드비젼 홍보팀 - 사진으로 보는 자료, 작가작품전시회 - 모둠원끼리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 독후활동지에 적어서 제출
동대문도서관 /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 소그룹토론회 : 지역 학교, 신청하는 토론그룹(주부독서회) - 장애우에게 긴급구호 이야기 - 정답을 찾아라 : 독서퍼즐 - 한 줄 느낌 쓰기 : 엽서를 만들었음 앞에는 퍼즐/뒤에는 느낌, 응모하는 함을 두고 자유롭게 작성, 명예사서 어린이들이 추첨
금천구립도서관 /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 여행책 코너 : 책꽂이 별도 마련 한비야책을 함께 진열 - 세계빈민국가 : 세계나라의 책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세계그림책 전시회

3) 개별 진행 도서관의 한 책 관련 행사 프로그램

개별로 진행되는 도서관은 거마정보도서관 등 23개관이다. 책의 주제와 관련된 특별 프로그램으로 ‘휠체어를 타는 친구’를 선정한 고덕평생학습관에서는 장애체험스쿨을 운영하였으며, ‘숲, 자연학교를 가다’를 선정한 동작도서관에서는 숲체험,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를 선정한 서대문이진아기념도서관에서는 ‘대사관 견학’, ‘사금파리 한 조각’을 선정한 아리랑정보도서관에서는 전통문화체험으로 ‘도자기만들기’를 운영하였다. ‘지도밖으로 행군하라’를 선정한 종로도서관에서는 ‘긴급구호활동 사진전시회’, ‘맘대로 아빠’를 선정한 강북문화정보센터에서는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운영하였다.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을 선정한 노원정보도서관은 ‘삐삐 롤플레잉발표회’,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를 선정한 서대문이진아기념도서관에서는 ‘모의 유엔총회’, ‘진로탐색 :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를 운영하였다.

한편, 채택된 프로그램 중 부모교육의 경우 한 책과 관련 있는 교육을 채택한 도서관으로는 ‘남한산성’을 채택한 정독도서관의 경우에는 역사논술지도,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채택한 독서특강(행복한도서관), 자녀교육(서초구립어린이도서관)이 이루어졌다. 거마정보도서관의 경우에는 ‘사업 참여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추천도서 논술지도 및 특강의 실시', '홈페이지 추천도서 100자 서평 릴레이'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덕평생학습관의 경우에는 한 책 도서와 관련 있는 행사로 '너의 천사가 되어줄게', '장애체험스쿨'을 운영하였으며, 고척도서관에서는 '권정생 작가의 작품 영화로 보기 : 강아지똥 상영', 구로도서관에서는 '우리가족 토론', 금천구립가산정보도서관에서는 '한 책 읽기 홍보 우표 무료 배부', 남산도서관에서는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팜프렛 제작, 홍보', 노원어린이도서관에서는 '나만의 전래동화책 만들기', 도봉도서관에서는 NIE (Newspaper In Education : 신문 활용 교육)로 만드는 연어이야기'를 운영하였다. 도봉문화정보센터에서는 성인과 아동부문의 도서를 따로 선정하였다. 성인부문 도서로는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 아동부문 도서로는 '몽실언니'를 선정하였으며 10가족을 선정한 동아리를 만들어서 독서토론회를 개최하는 텐텐텐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작도서관은 '숲체험학습', 마포아현분관에서는 '관내 소외계층 책선물 행사', 서대문구 이진아기념도서관는 'UN과 관련한 행사', '온라인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내도서관은 'e-독후감', 성북정보도서관은 '독서토론 워크샵', 신월디지털도서관은 '독서릴레이', 어린이도서관은 '한책 E-편지쓰기', 아리랑도서관은 '전통문화 체험(도자기 만들기, 문화재특강)', 정독도서관은 '가족 책쌓기', '협력기관과 함께 하는 문방가구 만들기',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은 '세계를 담는 북아트: 세계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나만의 책에 담기',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은 '우리아이 글로벌 리더 만들기', '청소년 대상 독서토론기법 특강 및 독서토론'을 실시하였으며 중계도서관은 '독서치료 특강'을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조).

(표 13) 개별 진행 도서관의 특색 프로그램

도서관명 / 선정도서명	특색 프로그램
거마정보도서관 /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행복한 청소부	- 사업참여 초등학교 연계 추천도서 논술지도 및 특강실시 - 홈페이지 추천도서 100자 서평 릴레이
고덕평생학습관 / 휠체어를 타는 친구	- 너의 천사가 되어줄게 - 장애체험스쿨
고척도서관 / 또야 너구리가 기운 바지를 입었어요	- 권정생 작가의 작품 영화로 보기 : 강아지똥 상영
구로도서관 / 기적의 도서관 학습법	- 우리가족 토론

도서관명 / 선정도서명	특색 프로그램
금천구립가산정보도서관 / 책 먹는 여우	- 한 책 읽기 홍보 우표 무료 배부
남산도서관 / 달님은 알지요	-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팜프렛 제작, 홍보
노원어린이도서관 / 우리 집에 온 마고할미	- 나만의 전래동화책 만들기
도봉도서관 / 연어	- NIE로 만드는 연어이야기
도봉문화정보센터 / - 성인부문 :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 -아동부문 : 몽실언니	- 텐텐텐 사업 : 10가족을 선정하여 동아리를 만들어서 독서토론회 개최
동작도서관 / 숲, 자연학교에 가다	- (숲해설가와 만나는) 숲체험학습, 자연과 만나는 전시회
마포아현분관 / 내 아이의 즐거운 학교 박물관	- 관내 소외계층 책선물 행사
서대문구 이진아기념도서관 /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	- UN이 뭐죠? 모의유엔총회, 대사관에 견학가요 (주한미국대사관 방문), 진로탐색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 온라인참여프로그램으로 온라인독서퀴즈 (http://kids.sdmljalib.or.kr), 온라인커뮤니티가 있음.
성내도서관 / 수선된 아이	- e-독후감 - 한 책으로 소통하기1(초등생), 한책으로 소통하기2(어른)
성북정보도서관 / 선물	- 독서토론 워크샵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 잃어버린 겨울방학	- 독서릴레이
어린이도서관 / 세상에서 제일 좋은 우리 엄마	- 한책 E-편지쓰기
아리랑정보도서관 / 사금파리 한 조각	- 전통문화 체험(도자기 만들기, 문화재특강)
양천도서관 / 토끼마을 국화마을의 어린왕자 모모	- 독서감상화 공모
정독도서관 / 남한산성	- 가족 책쌓기, 협력기관과 함께 하는 문방가구 만들기
중랑구립정보도서관 / 가로 세로 세계사	- 세계를 담는 북아트:세계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나만의 책에 담기
중랑면목정보도서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 우리아이 글로벌 리더 만들기
중계평생학습관 / 지붕 낮은 집	- 한도서관 한책읽기 독서 치료 특강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 책, 한 도시' 운동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해당 홈페이지를 분석한 후에 해당 업무 담당자와 전화로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도서관축제의 해당 부스의 담당자와 직접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역적으로 운영되는 '한 책, 한 도시' 운동과 서울 중심의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의 추진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는 2003년 충남 서산시에서 '서산 시민 모두가 한권의 책을 함께 읽는다면'이란 주제로 처음 시작된 이후 지금은 순천, 부산, 서울, 원주, 익산, 청주, 포항, 여수, 서귀포, 대전, 김해 등에서 이를 모태로 한 다양한 형태의 독서운동이 진행되거나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책의 도서선정 원칙은 지역별로 다르며 지역을 배경으로 한 특성을 가지거나 지역 출신의 작가를 선호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둘째, 2004년부터 서울문화재단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책 읽는 서울'의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은 2005년부터 실시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이며 2007년 이 행사에 참여하는 57개의 도서관 중 23개 도서관은 9종의 도서로 컨소시엄 구성의 연계 진행을 하고 있으며 11개 도서관은 5종의 동일도서를 채택했지만 연계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3개 도서관은 개별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은 외국의 토론 중심의 운동이라기보다는 작가 초청, 한 책 릴레이 운동 및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책, 한 도시' 운동 및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도서관에서 '한 도시, 한 책 운동'의 행사 프로그램의 온라인 홍보가 부족한 편이다. 즉 오프라인 홍보는 활발하나 홈페이지에서 '한 책 운동'관련 자료를 찾기 어려운 도서관도 있으며 '한 책 행사'가 무엇인지 어떤 책이 선정되어 있는지와 관련 행사를 지역사회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이 운동의 배경 및 역사 등을 알 수

있도록 과년도 행사의 내용이 누적된 단독 홈페이지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한 책, 한 도시’ 운동은 미국 등 외국에서는 독서토론이 주된 활동이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작가초청회’, ‘독서감상문 모집’, ‘독서퀴즈’, ‘영화 상영’ 등 문화행사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고 있으나 ‘독서토론’은 그다지 활발한 편이 아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토론이 대중화되지 않은 문화이므로 사람들에게 독서토론 논제를 제시하는 워크북을 제공하여 토론문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동용과 일반용으로 대상을 달리하여 제작한 워크북이 필수적이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서토론 기법의 강연회 개최 등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별 ‘한 책, 한 도시’ 운동은 주최자에 따라 운동의 추진 정도와 활성화 정도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얻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과 시민단체가 연계되어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집중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최근 수년간 전국에서 ‘작은도서관 운동’이 민간과 중앙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앞으로 선진국처럼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네트워크를 이루어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과 같은 독서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윤정옥. 2004. 한 책, 한 도시’독서운동의 동향과 의의: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3): 45-66.
- 윤정옥. 2005. 미국의 ‘한 책, 한 도시’독서운동의 동향과 특성의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3): 27-44.
- 윤정옥. 2007. ‘한 책, 한 도시’독서운동의 실행단계별 특성의 분석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1(1): 5-32.
- 이용재a. 2006. 한국독서운동의 현 단계와 전망 : ‘한 책, 한 도시’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7(1): 5-25.
- 이용재b. 2006. 책 읽는 서울, 미래를 여는 동력: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을 중심으로, 『2006년도 서울시 공공도서관협의회 세미나』(서울

정독도서관 시청 각실, 2006. 10. 26).
- 이용재, 황은주. 2006. 우리나라 '한 책. 한 도시'운동의 현황과 전망,『국회도서관보』, 43(7): 37-46.
- 황은주, 2006.『한국의 '한 책, 한 도시(One Book, One City)' 운동 현황과 전망』,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해시 홈페이지 http://www.gimhae.go.kr [cited 2007. 9.1]
-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reading.pen.go.kr [cited 2007. 9.3]
- 원 북 원 부산 까페 http://cafe.daum.net/onebookbusan [cited 2007. 9.1]
- 서귀포시민의한책읽기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cafe.daum.net/citybookstart [cited 2007. 9.1]
- 서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http://www.smlib.or.kr[cited 2007. 9.1]
-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 http://sfac.or.kr/culture/culture02__5.asp [cited 2007. 9.1]
- 순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sclibrary.or.kr/menu__8/ 81__onebk__sc.php [cited 2007. 9.1]
- 여수시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yeosulib.or.kr [cited 2007. 9.1]
- 원주 한도시 한책 읽기 홈페이지 http://www.bookone.or.kr[cited 2007. 9.1]
- 익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 http://lib.iksan.go.kr/design03/user/one__book/index.php [cited 2007. 9.1]
- 청주시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cjlib.com [cited 2007. 9.1]
- 포항북카페 홈페이지 http://www.phlib.or.kr/bookcafe [cited 2007. 9.1]
- 한책 운동 공식 도메인 홈페이지http://www.onebook.or.kr [cited 2007. 9.1]

대학도서관 온라인 패스파인더 구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building an online pathfinders for academic libraries

김선미(Kim Sunmi)[1], 이인영(Lee Inyoung)[2]

목 차

1. 서론
2. 패스파인더의 개념
3. 패스파인더 가이드라인
3.1 인쇄본 패스파인더 가이드라인
3.2 온라인 패스파인더 가이드라인
3.3 패스파인더 가이드라인(안)
4 온라인 패스파인더 구성
4.1 구성 원칙
4.2 메인화면
4.3 하위주제분야 화면
4.4 개별페이지 화면
5. 결론 및 제언

〈 Abstract 〉

To meet users' particular needs, most academic libraries provide a variety of services including online reference, course reserves, pathfinders,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n online pathfinder, which makes it possible to search and find the location of print/online resources related to a specific subject area or academic fields. This online pathfinders provide greater opportunities to use library collections and online resources effectively.

For the study, this paper explains the definition and background of pathfinders, proposes guidelines to build them, and then suggests designs and contents of online pathfinder pages in academic library homepage.

To activate online pathfinder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ir existence by using tools such as library instruction, email, etc. Also, parent organization's positive support and library faculty cooperation are required.

1)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smkim@ewha.ac.kr)
2)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dolllee@ewha.ac.kr)

1. 서 론

인터넷이 도입되고 네트워크 환경이 발달하는 등 도서관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도서관 소장의 개념과 관계없이 원하는 자료를 찾고자 하는 이용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정보원 중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원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특히 온라인 정보원의 하이퍼링크 기능은 해당 자료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시작과 끝이 없어서 원래의 의도와는 다른 정보원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학도서관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제공하고, 선정한 정보원을 관련된 교과목 지정도서 서비스에 활용하여 함께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온라인 정보원을 활용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3)]

국외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정보원에 대한 분석능력이 부족하여 연구·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보연구자, 학습자를 위해 특정 주제와 관련된 정보원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대학도서관에서는 많은 장서 중 원하는 자료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제공해 왔던 안내가이드 혹은 주제별 권장도서 리스트 성격의 패스파인더를 온라인 환경에 도입하고 있다. 패스파인더, 주제가이드, 연구가이드, 전자적인 도서관가이드, 웹서지 등의 용어로 표현되는 온라인 패스파인더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원을 소개하고, 그 위치를 알려주어 이용자의 자료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안내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온라인 정보원 외에 인쇄본 형태의 핸드북, 백과사전, 사전 등과 같은 정보원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주제별 담당 사서제도나 대학원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1:1 참고서비스 등의 연구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는 있지만, 외국과 같은 패스파인더나 주제 가이드를 서비스하는 기관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곽철완(1998), 이란주(2001)의 연구 이후에는 패스파인더나 주제가이드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패스파인

3)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의 경우, 주제별 추천 사이트, 연구질의형 참고서비스(1:1문의), 각 교과목별 지정도서서비스를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더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문헌을 통해 패스파인더의 발생 배경, 개념 및 각종 가이드라인 등을 살펴본 후, 대학도서관 홈페이지 구현 사례를 분석하여 대학도서관에 적합한 디자인, 요소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출된 안을 기준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패스파인더를 적용해 보고자 한다. 제안하는 온라인 패스파인더는 특정 주제와 관련된 인쇄본, 온라인 정보원을 이용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서가 특정 교과목 지원서비스, 주제 전문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2. 패스파인더의 개념

일반적으로 패스파인더는 주제가이드, 연구가이드, 연구리서치가이드, 토픽가이드, 토픽리서치가이드, 토픽 패스파인더, 주제 패스파인더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다.

패스파인더라는 용어를 1983년에 출판된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에서 찾아보면 Topical guides로 안내하고 있다.[4] 그리고 Topical guides를 찾아보면 “특정한 주제에 대해 문헌조사를 위하여 도서관에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검색전략 순으로 배열한 서지목록으로 패스파인더와 동의어로 사용된다. 이러한 가이드의 예로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만든 Tracer Bullets가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다.[5]

이와 유사하게 Dunsmore도 패스파인더를 연구자가 익숙하지 않은 주제를 소개하고, 관련 정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전략 순서로 정보자원을 배열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청구기호 혹은 도서관에서의 소장위치를 알려주고, 정보원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하며, 다양한 형태의 정보원들 가운데 필요한 정보를 선택한 서지 가이드로 주제가이드와 동의어로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6]

---

4) Young, H. 1983.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ALA, p. 165.

5) Ibid, p. 229.

6) Dunsmore, C. 2002. "A qualitative study of web-mounted pathfinders created by academic business libraries." *Libri*, 52: 137-156.

패스파인더의 등장은 1900년대 들어서서 분류, 목록의 발달과 장서량의 증가, 개가식 서가의 등장과 같은 도서관 환경의 변화와 함께 시작되었다. 장서량의 증가로 인해 자료를 찾는 보조도구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정교해져 갔으며, 사서들은 이용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도서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주제에 대해 특별히 읽어야 하는 자료 리스트를 제공하거나, 출판되는 finding list 등이 등장하였다. Dunsmore는 이러한 finding list, reading list 등을 패스파인더의 이전 형태로 보고, 패스파인더의 시발점은 1950년대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특정 주제나 장르에 대해 제공하던 권장 도서리스트인 book list라고 하였다.[7)]

패스파인더는 1960년대부터 도서관 이용교육의 도구로서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단순히 이용자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 이용방법을 초보이용자에게 가르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1970년대에는 패스파인더를 교과목이나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기본 자료나, 도서목록 이용방법에 대한 교육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에 이용자들은 관련 자료를 찾는데 패스파인더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특히 교과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는 패스파인더가 핵심이 되는 정보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8)]

'도서관 패스파인더'라는 용어가 도서관 관련 문헌에서 처음 등장한 것은 Canfield의 논문에서이다. Canfield는 MIT에서 수행한 '도서관 이용교육을 지원하고 이용자 정보제공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진행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는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참고도구로서의 패스파인더를 개발하고자 하였다.[9)] Canfield는 패스파인더를 '이용자 맞춤식 참고도구', '단계별 교육도구', '특정 주제분야의 도서관 자료를 찾기 시작하는 이용자를 도와주는 인쇄물지도', '참고자료에 대한 체크리스트' 등과 같이 도서관 자원들에 대한 일종의 지도로서 설명하였다.

1980년대에는 검색단계를 반영한 패스파인더가 등장하였다. 이는 X 정보를

---

7) Ibid.

8) Reeb, B. & Gibbons, S. 2004. "Students, librarians, and subject guides: Improving a poor rate of return." Portal: Libraries and the Academy, 4(1): 123-130.

9) Cipolla, G. K. 1980. "M.I.T.'s point-of-use concept: A five-year update."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5(6): 326-328.

발견하기 위해서는 Y 정보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지, 이 Y가 핸드북, 디렉터리, 색인 혹은 다른 어떤 도구인지는 이용자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어떤 형태이던 간에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정보원으로 빨리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여러 정의를 고려할 때, 패스파인더는 하나의 주제와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들을 소개하는 리스트로서, 이용자가 찾으려는 자료와 연관된 주제를 안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원과 그 위치를 알려주어 관련 자료 검색 및 자료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안내도구라고 할 수 있다. 즉, 특정 교과과정이나 연구조사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목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1995년 이후에 등장한, 기존의 패스파인더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한 온라인 패스파인더는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핸드북, 백과사전, 사전과 같은 인쇄본 참고자료 외에 웹 사이트,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등과 같은 온라인 형태의 자료도 간략한 해설과 함께 제공하는 목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온라인 패스파인더는 인쇄본과 비교 시, 링크를 가지고 있어서 도서관의 온라인목록,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전자도서, 웹 사이트, 도서관 프로그램 그리고 도서관 웹 사이트 안의 다른 페이지 등 다양한 곳으로 연결함으로써 자료를 발견할 가능성을 넓혀준다. 따라서 인쇄본 패스파인더와 달리 링크를 이용한 살아있는 패스파인더를 제공할 수 있으며, 쉽게 갱신하고 유지하거나 웹페이지를 손쉽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언제 어디서라도 접근할 수 있으며, 장서 뿐만 아니라 도서관 서비스를 홍보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

3. 패스파인더 가이드라인

3.1 인쇄본 패스파인더 가이드라인

1970년대에 처음으로 패스파인더라는 용어를 사용한 MIT의 패스파인더에 대해 Canfield는 패스파인더마다 정형화된 형태를 갖추되, 주제에 따라 유연성을 가질 것을 당부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과 구성 체제를 갖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10)]

첫째, 주제 범위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제를 명확하게 기술

하고 관심분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요약을 입력하며, 요약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지사항을 명기하여 필요 시 정보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카드목록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주제어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포함한 주제어의 관련 정도에 따라서 '매우 관련 있음', '관련 있음', '일반적인 것 이상의' 등으로 구분해 주어야 한다.

셋째, 중요한 단행본 자료를 소개해야 한다.

넷째, 도서관에서 해당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도록 청구기호를 제공해야 한다. 청구기호를 제공할 때에는 특히 두 개 이상의 하위주제에 대한 청구기호가 도움이 되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고려한다.

다섯째, 주제분야에 대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싣고 있는 핸드북, 백과사전, 사전류 등의 참고자료를 소개해야 한다. 만약 중요한 정보를 싣고 있는 통계나 표가 있다면 정확한 페이지까지 언급하도록 한다.

즉, Canfield는 패스파인더의 주제와 범위에 대해 (1) 해당 주제에 대한 하나 혹은 두개의 표준 관련 참고자료, (2) 해당 주제분야의 도서 검색에 유용한 LCSH, (3) 해당 주제분야에 대한 정의를 확인할 수 있는 권위있는 저작물, (4) 전문적인 핸드북, 백과사전, 사전 등의 참고자료, (5) 관련된 서지, (6) 검색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제어, 그리고 이를 포함한 색인과 초록, (7) 주제어는 아니나, 잠재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색인과 초록, (8) 서지나 초록에 실리지는 않았으나, 밀접하게 관련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저널, (9) 관련 보고서, 학회회의록 혹은 이에 대한 색인, 초록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1995년, Kapoun은 인쇄본 패스파인더 평가를 위한 상세한 기준을 제공하는 마지막 중요한 시도를 하였다.[11] Kapoun은 패스파인더를 만들 때 발생하는 문제들은 목적, 형식, 이용, 범위, 가독성과 같은 5가지 영역에서 명확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며, 패스파인더를 생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 패스파인더는 '주제에 대한 기초문헌'을 찾으려는 초보자를 위한 것이므로, 완벽한 서지리스트를 만들기 보다는 모든 형태의

10) Canfield P. M. 1972. "Library pathfinders." *Drexel Library Quarterly*, 8: 287-300. Quoted in Wilbert, S. 1981. "Library pathfinders come alive.",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21(4): 345-349.

11) Kapoun, J. M. 1995. "Re-thinking the library pathfinder." *College & Undergraduate Libraries*, 2(1): 93-105. Quoted in Hemmig, W. 2005. "Online pathfinders : toward an experience-centered model", *Reference Services Review*, 33(1): 66-87.

문헌으로 이용자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일관성 있는 포맷, 디자인, 내용 등을 적용해야 하며, 특히 만들기 쉬운 포맷을 채택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의 자료, 예산, 인력, 소요 시간에 맞도록 패스파인더를 디자인해야 한다. 셋째, 검색절차는 이용자 및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한 검색 전략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주제를 선정할 때에는 그 주제에 대한 가치가 지속되는지, 유용한지,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정보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특수용어 사용을 피해야 한다. 이외에 Kapoun은 유형별 정보원의 개념 및 이용목적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해야 한다고 하며, 인덱스에 대해 "인덱스는 저널의 특정한 아티클로 여러분에게 방향을 지시하는 인용 리스트이다." 등과 같은 소개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고 예로 들었다.

3.2 온라인 패스파인더 가이드라인

온라인 패스파인더는 인쇄본, 데이터베이스, 웹 사이트 등을 제공함으로써 인쇄본 패스파인더에 비해 다양한 매체를 소개할 수 있으며, 패스파인더 내에서 도서관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도서관을 홍보하거나, 강의계획안 내에 패스파인더로 연결 링크를 붙이는 등 도서관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는 홍보의 가능성을 넓혀 주었다.

온라인 패스파인더가 등장한 후에 제시된 가이드라인 중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Cox(1996)의 것이다.[12] Cox는 온라인 도서관 교육 서비스를 위한 웹페이지 디자인 원칙을 (1) 스크롤바가 필요없는 짧은 페이지, (2) 관심을 끌만한 내용, (3) 긴 알파벳순 혹은 정렬되지 않은 리스트의 배제, (4) 링크를 통한 목적지에 대한 명확한 표시, (5) 광범위하지만 깊이는 깊지 않은 사이트 구조, (6) 간결한 구조와 언어, (7) 철자와 타이포그래피의 정확성, (8) 명확하고 익숙한 메인페이지, (9) 최신성, (10) 논리적인 접근점 등으로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온라인 패스파인더에도 적용할 수 있는 항목이다.

Cooper는 전자형태 가이드의 디자인에 대해서 단순한 색상의 사용, 구조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여백의 사용, 가이드의 범위를 보여줄 수 있는 하이퍼링크 기능을 가진 목차 등으로 언급하였다.[13] O'Sullivan과 Scott는 전자적인 패스파

12) Cox, A. 1996. "Hypermedia library guides for academic libraries on the world wide web." *Program*, 30(1):39-50.

13) Cooper, A. E. 1997. "Library guides on the web: Traditional tenets and internal issues."

인더를 설계할 때 첫째, 인터넷에 있는 정보로 접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둘째, 학생질문에 대한 대답에 이용할 수 있는 대체정보원을 제공하며, 셋째,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할 때 이용할 적절한 주제명표목과 키워드를 확인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넷째, 학생들의 연구에 가장 적절한 정보원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14]

45개 캐나다 도서관 웹 사이트의 주제 가이드를 조사한 Dahl은 패스파인더는 일관된 포맷을 가지고 명확한 범주를 유지하며, 읽거나 이용하기 쉬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웹페이지를 프린트 했을 때, 읽기 편하도록 여백을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구조가 복잡해서 한 페이지에서 전체를 볼 수 없거나, 웹주소를 주지 않아서 웹페이지가 어느 곳에서 시작되었는지 시작점을 찾을 수 없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패스파인더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패스파인더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하였다.[15]

Wilson도 완벽한 패스파인더를 만들기 위해서 9가지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이전까지의 가이드라인과 유사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16] 첫째, 그래픽이 주는 효과만큼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패스파인더의 이름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웹 사이트의 적절한 부분에 그래픽을 배치하여 패스파인더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야 한다. 셋째, 이용자가 다시 패스파인더 화면으로 돌아가서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넷째, 도서관 인증이 필요한 것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주어야 한다. 다섯째, 패스파인더에 내비게이션 바를 위치시켜서 쉽게 돌아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섯째, 출력에 문제가 없도록, 2페이지 이상의 깊이를 가지지 않도록 한다. 일곱째, HTML과 PDF 포맷으로 인쇄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링크연결정보'를 잃지 않도록 PDF 문서 자체에 링크에 대한 URL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여덟째, 패스파인더를 인쇄하거나 혹은 이메일로 관련 대상자에게 발송할 수 있어야 한다. 아홉째, 패스파인더를 도서관 목록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Computers in Libraries, 17(October): 52-56.

14) O'Sullivan, M. K. & Scott, T. J. 2000. "Pathfinders Go Online", *Library Journal*, summer: 40-2.

15) Dahl, C. 2001. "Electronic pathfinders in academic libraries: An analysis of their content and form."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2(3): 227-237.

16) Wilson, P. 2002. "Perfecting pathfinders for the web", *Public libraries*, 41(2): 99-100.

Jackson과 Pellack은 캐나다의 112개 도서관의 4개 주제분야에 대한 주제가이드 내용과 구성에 대해 주제가이드의 위치, 구성 체제, 주석, URL포함여부, 전자저널 및 전자책 포함여부, 업데이트를 언제 명확히 밝히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또한 특정 주제분야에서 필수적인 웹 사이트를 포함하고 있는지, 주제와 크게 관계없는 웹 사이트들이 나타나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특히 구성 체제에 있어서 하나의 도서관에서 많은 주제 가이드를 만들더라도 하나의 형태를 고집할 필요없이 각 주제별 특성에 맞춰 유형별, 주제별 등 다양한 체제를 유지할 것을 제안하였다.[17] Vileno는 온라인 패스파인더를 구축할 경우에는 주제선정, 포함기준, 디자인 가이드라인, 대상 이용자, 유용성, 이용자 평가, 이용성, 접근성, 마케팅, 정보가독성, 업무과부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18]

3.3 패스파인더 가이드라인(안)

대학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온라인 패스파인더 사이트를 설계할 때에는 대학도서관 이용자요구, 장서구성 등과 같은 대학도서관의 환경과 함께 기존의 인쇄본, 온라인 가이드라인을 다양하게 살펴봐야 한다.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에 필요한 요소를 내용, 구성 및 레이아웃 측면에서 범주화하면 목적의식, 주제 및 범주, 정확성, 최신성・유지보수, 구성과 제시형태, 디자인, 가독성 및 이용편의성, 유용성 평가라는 8가지 요소로 구성할 수 있다. 각각의 요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목적의식] 패스파인더를 만드는 목적과 의도하는 이용자층을 분명하게 하며 이에 대한 정책이나 계획을 준비한다.
② [주제 및 범위] 주제범위가 너무 넓거나 좁지 않도록 하며, 전체적으로 일관성있게 주제를 선택한다. 이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와 대상 자료를 설명하며,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 소장 자료와 온라인 정보원을 포함해야 한다.
③ [정확성] 정보원에 포함된 정보를 평가도구에 맞추어 선정하며, 정확한

17) Jackson, R. & Pellack, J. L.2004. "Internet subject guides in academic libraries." *Rev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43(4): 319-327.

18) Vileno, L. 2007. "From paper to electronic, the evolution of pathfinders: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ference Services Review*, 35(3): 434-451.

서지사항 및 출처를 밝힌다. 또한 링크의 URL과 연결한 페이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힌다.

④ [최신성, 유지보수] 갱신일자를 제시해야 하며, 링크로 연결한 페이지가 현재 이용할 수 있는 페이지인지 확인한다. 내용에 대한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하며, 이용가능성이 없거나 이용하지 않는 이전판을 유지하지 않도록 한다.

⑤ [구성과 제시형태] 목차를 사용하고, 주제 내에서 카테고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자료를 나누고 순서에 맞추어 일관되게 리스트를 배열한다. 하위주제까지 고려했을 때, 2~5 페이지 정도로 구성하며, 출력했을 때, 내용이 잘리지 않도록 한다. HTML과 PDF, 두 가지 형태로 모두 제공하는 것도 고려한다.

⑥ [디자인] 관심을 끌 수 있는 스타일과 그래픽을 사용하며, 아이콘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상단에 검색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 바를 제공하며, 도서관 홈페이지 및 검색창, 학교 홈페이지 내의 강의계획안 등에 바로가기 링크를 주도록 한다. 또한 초기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함께 제공한다.

⑦ [가독성, 이용편의성] 패스파인더 이름을 이용자들의 이목을 끌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여하며, 되도록 특수용어의 사용을 배제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기술한다. 도움말이나 무료이용・도서관 인증필요 등과 같은 접근정보를 제공하며, 담당자의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용자가 필요 시 문의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유용성 평가] 어떤 패스파인더에 얼마만큼 링크가 되었는지 통계를 유지하며, 이용자 그룹과 사이트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교과과정을 활용한 포커스 그룹과의 프로젝트 진행도 함께 고려한다.

4. 온라인 패스파인더 구성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패스파인더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구성 원칙을 고려해야 하며, 이 구성원칙을 바탕으로 메인화면, 하위주제분야화면, 개별페이지화면 등을 설정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국내 대학도서

관 홈페이지에 반영할 수 있는 패스파인더를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패스파인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패스파인더를 수집하고 편집하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문헌 조사와 함께 다양한 국내외 주제가이드, 패스파인더 등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도서관 외에 공공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정 주제분야 학회 홈페이지 등도 조사대상으로 포함시켜 관종에 관계없이 좋은 아이디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패스파인더 사이트를 만들고, 여기에 수록할 정보원을 수집·작성하며, 최신 상황을 반영한 살아있는 패스파인더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제전문사서 외에 다른 사서들의 도움도 필요하므로, 이들이 모두 관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4.1 구성 원칙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패스파인더의 내용, 디자인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 원칙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패스파인더의 이용대상을 정확하게 정의하여, 패스파인더의 주제 및 정보원 제공 수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너무 광범위하거나 너무 적은 분야를 주제로 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원하는 자료를 찾기까지 접근해야 하는 단계가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3~4단계로 설정한다. 또한 아직 해당 주제에 대한 관련 자료가 거의 발표되지 않아서 관련 자료를 찾기 어렵지는 않은지 등도 고려한다. 따라서 적절한 주제와 정보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서, 교원이 밀접하게 협력하거나 교과목 강의계획안을 이용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 사서의 경험을 이용하거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최신 토픽을 발견하는 방법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패스파인더의 목적, 주제, 이용자 대상 등에 대한 사항은 패스파인더 범위로 사이트에서 밝힐 수 있다.

둘째, 패스파인더에는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색인, 초록, 백과사전, 통계 등 인쇄본 형태의 자료 외에 교외에서 즉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전자책, 그리고 인터넷 정보원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정보원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중 인터넷 정보원은 각종 온라인 참고정보원 평가 기준 등을 확인하여 선정할 수 있다.

셋째, 패스파인더 사이트는 적절한 아이콘과 그래픽을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이콘 자체가 현란하거나, 너무

많은 아이콘을 패스파인더 페이지에 적용하여 복잡해 보이는 것은 이용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이용자가 정보원에 집중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넷째, 패스파인더 사이트에는 온라인 환경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기능을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이러한 기능으로는 원하는 패스파인더를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검색 및 브라우징 기능, 이전, 이후 단계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링크기능 등을 들 수 있다. 패스파인더를 생성하는 기관에서는 링크기능을 이용하여 도서관이나 학교의 강의 관련 페이지, 지정도서 페이지, 교수 홈페이지의 강의계획안 등에서 패스파인더에 바로 접근하도록 할 수도 있다.

다섯째, 패스파인더는 이용자를 위한 것이므로, 사서의 전문어가 아니라 일반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용어에 대해 Jackson은 정보원의 타입이 아니라 수행하는 단계, 행위로 표목을 변경해야 한다고 하며, '초록, 색인, 단행본, 서지' 등과 같은 표목을 '시작하기, 저널에서 아티클 발견하기, 다른 정보원들의 리스트 발견하기' 등과 같은 표목으로 대체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이런 방식을 도입하여 되도록 도서관 전문용어를 사용하지 말자고 제안하였다.[19] Peterson과 Coniglio도 7개 대형 대학도서관의 주제가이드 가독성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1) 도서관의 도구와 정보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점과 (2) 선정한 주제 가이드가 복잡한 수준에서 쓰였다는 점을 발견하고, 학생들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렸다.[20] 따라서 패스파인더의 표목은 이용자들이 알기 쉬운 것으로 채택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표목에 대한 간략한 주석도 병기할 수 있다.

4.2 메인화면

메인화면은 패스파인더로 접근하기 위한 시작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메인화면에서는 원하는 주제분야나 교과목 관련 패스파인더를 찾거나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패스파인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

19) Jackson J. W. 1984. "User education." *Texas Library Journal*, 60(2): 58-60. Quoted in Staley, S. M. 2007. "Academic subject guides : a case study of use San Jose State universit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8(2): 119-139.

20) Peterson, L. & Coniglio, J. W. 1987. "Readability of selected academic library guides." RQ, 27(2): 233-9.

[그림 1]은 패스파인더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패스파인더 메인화면을 구성한 사례이다.

〔그림 1〕 패스파인더 메인페이지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패스파인더를 도서관 홈페이지의 메뉴 중 교과목과 연계된 서비스가 있는 부분에 위치시키려고 하였다. 이에 지정도서, 정보검색교육 등을 하위메뉴로 가지고 있는 연구학습지원 메뉴에 패스파인더를 위치시켰다. 이는 패스파인더와 연관성이 많은 하위메뉴가 위치한 곳에 패스파인더 메뉴를 위치시킴으로써 이용자가 다른 자료를 찾다가도 패스파인더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이다.

패스파인더의 주제분야는 해당 학교의 교과과정을 기초로, 주제별 특수성 및 하위주제분야 항목 수 등에 따라서 주제를 포괄적으로 제시하거나 세분화시킬 수 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2007년 12월 현재 일반대학원을 포함하여 5개 전문대학원과 7개 특수대학원을 가지고 있으며, 인문·사회과학, 나노과학 등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항을 바탕으로 하여, 예체능·기초과학·공학 분야는 상위 주제분야를 다른 분야에 비해서 광범위하게, 인문·사회 분야는 주제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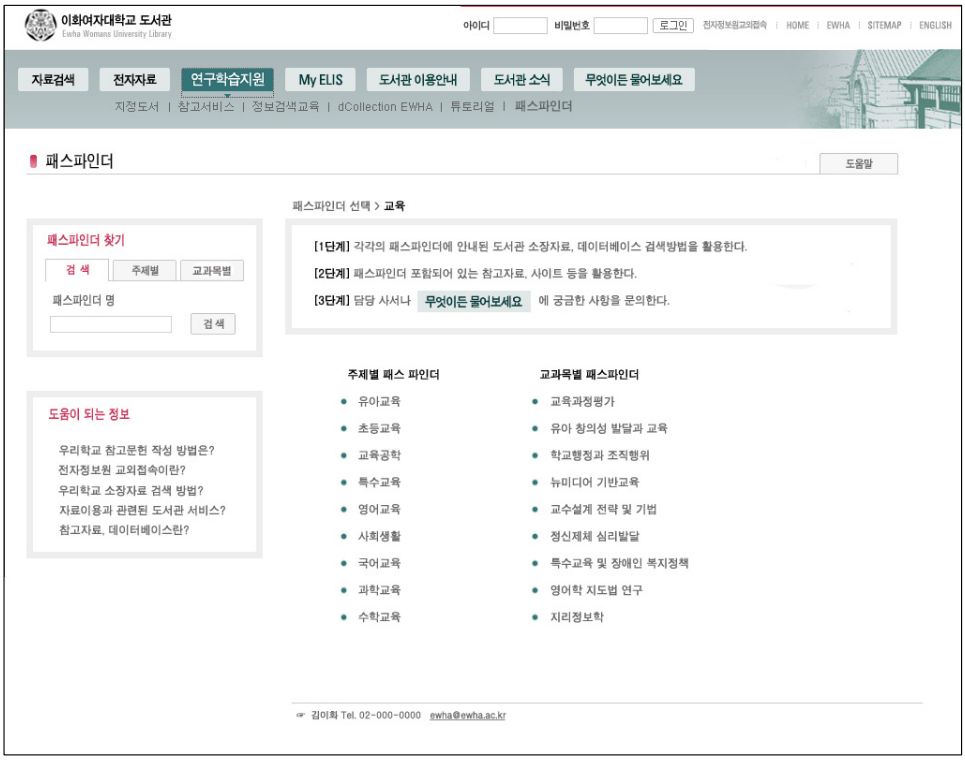
를 세분화하여 설정하고자 하였다.

패스파인더 메인화면에서는 주제분야에 속한 패스파인더를 한눈에 보기 원하는 이용자를 위하여 주제별, 교과목별 패스파인더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브라우징 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 브라우징 리스트를 제공할 때에는 패스파인더 주제 맵과 같은 기능을 부여하여, '주제 - 하위주제, 교과목' 리스트를 계층화하여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외에 원하는 패스파인더만을 검색하여 보고 싶어 하는 이용자를 위해서 주제, 교과목에 관계없이 전체 패스파인더를 대상으로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할 수도 있다. 검색기능을 제공할 때에는 패스파인더명 자체로 검색할 수도 있으나, 초보 이용자를 위하여 해설, 내용 등을 포함한 '패스파인더 사이트 전체'를 대상으로 검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패스파인더 페이지에 연구학습활동에 도움이 될 유용한 정보를 포함시켜서 이용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연구·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질문이나 알고자 하는 요구가 많은 부분이 무엇인지 우선 확인해야 한다.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이용자의 질문이 많은 부분을 인용표시방법, 교외접속서비스 이용방법, 자료 원문 이용과 연관된 서비스에 대한 안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참고문헌 등과 같은 기초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보고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구성해 보았다. 이와 같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통하여 이용자는 보다 쉽게 양식에 맞춘 참고문헌리스트를 생성하거나, 교외에서 패스파인더에 연결된 자료의 원문을 보는 방법 등을 습득할 수 있다.

4.3 하위주제분야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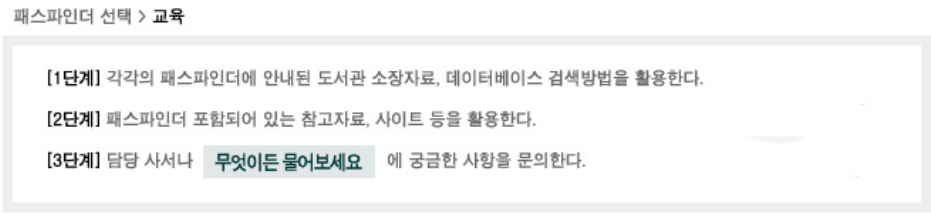
메인화면의 주제분야를 클릭하여 나타나는 화면에서는 하위주제분야 혹은 교과목별 패스파인더 리스트가 나타나 필요한 패스파인더를 선택하고, 선택한 패스파인더를 클릭하면 개별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2〕 패스파인더 하위주제분야 페이지

[그림 2]는 이화여자대학교 패스파인더에서 '교육'을 선택해서 들어간 화면으로, 유아교육, 초등교육 등과 같은 하위주제분야 패스파인더와 교육학의 특정 교과목별 패스파인더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하위주제분야 화면에서도 검색기능, 브라우징기능, 도움이 되는 정보 등과 같은 메뉴를 계속 유지시킴으로써 이용자의 필요에 의해 다른 패스파인더를 쉽게 찾아서 보거나, 관련 정보를 보도록 구성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현재 보고 있는 위치를 알 수 있는, 그리고 이전 단계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주제명 〉 하위주제명' 등의 '내비게이션 바'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주제명'을 클릭해서 현재 보고 있는 주제명의 상위주제명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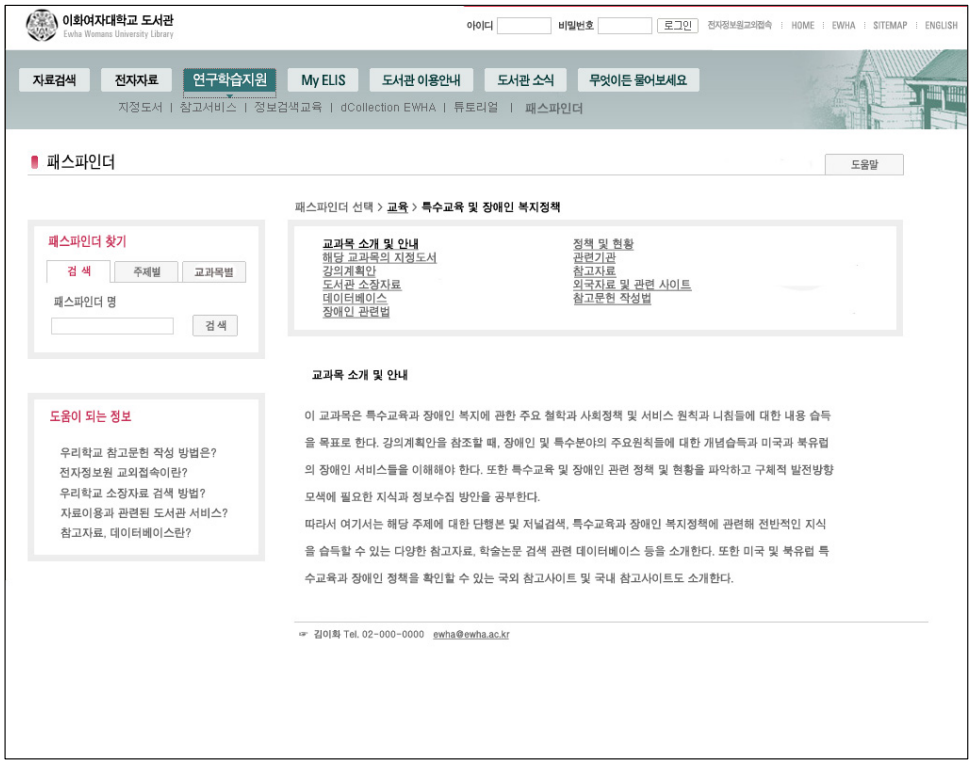
〔그림 3〕 패스파인더 안내창

화면 상단에는 현재 선택한 주제분야·교과목과 관련해 패스파인더 이용방법을요약해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일종의 안내창 역할을 하는 이 기능을 통하여 이 분야를 처음 접하는 연구자, 학생들도 보다 쉽게 패스파인더를 이용할 수 있다([그림 3] 참조).

화면 하단에는 현재 선택한 패스파인더의 담당 사서 이메일, 연락처 등을 함께 표시하여 도움이 필요할 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외에 패스파인더 메인화면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 화면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URL을 화면 하단에 함께 표시하여 필요 시 이용하게 할 수도 있다.

4.4 개별페이지 화면

하위주제분야 혹은 교과목명 패스파인더를 클릭하면 해당 주제분야의 정보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별페이지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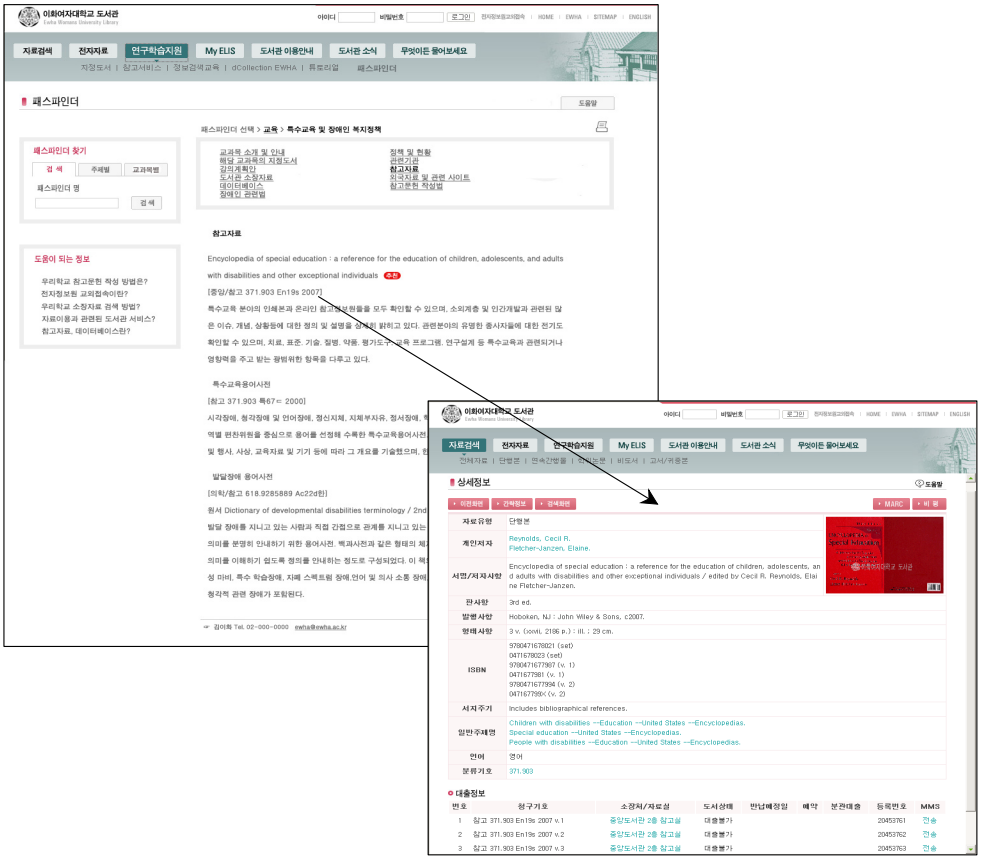
〔그림 4〕 패스파인더 개별페이지

[그림 4]는 교육학 분야의 교과목 중 '특수교육 및 장애인 복지정책' 과목 패스파인더로 연결한 화면으로 화면 상단에는 목차가 위치한다. 선택하는 목차 항목에 따라서 본문의 내용이 변경되며, 본문의 내용이 길어질 경우에는 내용 중간 중간에 위치한 상위로 링크를 클릭하여 해당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목차를 설정할 때에는 도서관 정책을 고려하여 자료유형별로 제공할지, 검색순서를 반영하여 제공할지 등을 결정해야 하며, 필요 시에는 더 세분화된 하위주제 분야로 이루어진 목차도 구성할 수 있다.

목차에는 현재 선택한 주제분야 혹은 교과목에 대한 소개, 범위 정보를 주어 이용자가 원하는 주제분야, 교과목 패스파인더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목차 항목으로 도서관의 각종 수업지원 서비스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강의계획안이나 지정도서 등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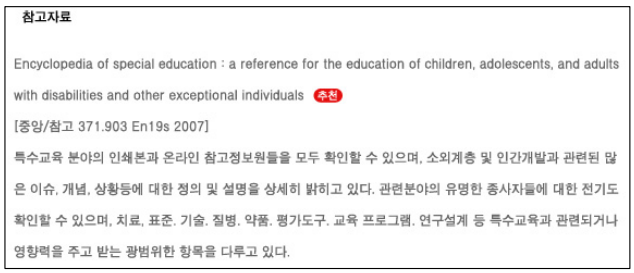
〔그림 5〕 패스파인더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정보원

제공하는 정보원에는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통적인 인쇄본 정보원과 온라인 정보원을 함께 제공하여 자료 이용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그림 5] 참조). 각 정보원에는 해제, 요약을 추가하여 어떤 정보원인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온라인 정보원에는 해당 정보원의 URL을 함께 제공한다. 그리고 도서관 소장자료에는 기본 서지사항과 소장처·자료실, 청구기호 등을 함께 표시하고, 청구기호를 클릭하면 도서관 홈페이지 상세검색결과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그림 6] 참조).



〔그림 6〕 패스파인더에 포함된 정보원의 도서관 상세소장정보

정보원을 제공할 때에는 추천 등의 아이콘을 준비하여, 기본이 되거나 필수로 봐야할 정보원에 부여함으로써, 많은 정보원 중 어느 것부터 봐야할지 모르는 이용자에게 정보원의 우선순위를 안내할 수 있다.



〔그림 7〕 패스파인더에 표시된 추천아이콘

이외에 관련된 주제명이나 분류기호를 제공하여 다른 자료로 안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단행본, 논문 등을 직접 OPAC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그림 8] 참조).

〔그림 8〕 패스파인더에서 안내하는 검색방법 및 분류번호

화면 하단에는 패스파인더의 다른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담당사서의 이메일,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며, 현재 보고 있는 패스파인더 웹페이지에 대한 URL을 표시하여 직접 이 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

제공하는 정보의 양이 길어지면 스크롤바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최대한 3~4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분량을 조정하며,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중간 중간에 상위로 링크를 삽입하여 화면의 윗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인쇄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

우 웹브라우저의 인쇄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화면이 절단되거나 프레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등의 아이콘을 삽입하고, 이 아이콘을 이용하여 인쇄할 때에는 페이지 절단없이 여러 프레임으로 구분된 페이지도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5. 결론 및 제언

최근 대학도서관에서는 대학 구성원의 필요에 따른 연구, 학습 요구에 부응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학도서관 사서는 해당 주제에 맞는 지식을 습득하고, 그 분야 연구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지원하며, 담당 교수와의 협력을 통해 해당 교과목과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분야 서비스, 리에종 서비스의 일환으로 관련 주제분야 혹은 교과목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패스파인더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주제가이드, 연구가이드 등과 같은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패스파인더는 최근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1950년대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특정 주제나 장르에 대해 제공한 권장 도서 리스트를 그 시발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패스파인더는 이용자가 찾는 자료와 관련된 주제를 안내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원과 그 위치를 알려주어 자료 검색과 이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안내도구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이후에는 기존의 패스파인더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한 온라인 패스파인더가 등장하였는데, 이 링크를 통해서 이용자는 도서관의 온라인목록,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전자저널 등과 같은 자료로 연결됨으로써 자료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따라서 패스파인더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인쇄본 패스파인더와 달리 링크를 이용한 살아있는 패스파인더를 제공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라도 접근할 수 있으며, 도서관 장서 외에 도서관의 각종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패스파인더를 선호하고 있다. 온라인 패스파인더에는 기존의 인쇄본 정보원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포함시킴으로써 인쇄본, 전자본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관련된 자료를 활용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온라인 패스파인더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적의식 및 이용자 대상층을

명확하게 하고 이에 따라 주제,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참고정보원 선정기준 등을 반영하여 자료를 선정함으로써 정확한 정보를 주는 자료를 패스파인더의 정보원으로 채택하며, 이 정보원의 연결URL, 연결된 페이지에서의 제공 정보 등을 계속 확인하여 최신 데이터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패스파인더 페이지를 준비할 때에는 구성, 제시형태, 디자인,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서비스 중간 중간 유용성 평가를 수행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패스파인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모기관의 인식과 지원, 담당 사서의 끊임없는 준비와 노력,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인 뒷받침 등이 필요하며, 도서관에서는 패스파인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패스파인더가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이용하지 않는다면 시간과 노력만을 낭비할 뿐이다. 따라서 훌륭한 자원을 찾아 좋은 패스파인더를 만드는 것만큼 이를 제대로 홍보하여 이용자에게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므로 해당 구성원에게 패스파인더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종 학교, 학과 행사 및 도서관 행사에 패스파인더 관련 안내문을 배포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 분야 교원, 대학원생 등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패스파인더 안내문을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도서관 소식지에 패스파인더를 안내하는 원고를 게재하는 방법도 취할 수 있다. 이외에 해당 주제분야를 가르치는 교원에게 관련 정보원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추가 정보원을 확인해 제공하거나, 학과 혹은 교과목 페이지에 대응하는 패스파인더 링크를 연결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패스파인더의 위치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George Washington Univ. Gelman library의 조사 결과를 보면, 도서관 홈페이지의 패스파인더가 1년에 약 147,000번 정도 카운트될 정도로 이용도가 높은 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주제 가이드를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배치했다는 것이라고 한다.[21] 이를 볼 때 홈페이지에서의 패스파인더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패스파인더 자체에 대해 다양하게 홍보하는 것 외에 패스파인더 이용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용교육에 패스파인더를 적극적으로

21) Courtois, P. M., Higgins, E. M., & Kapur A. 2005. "Was this guide helpful? users' perceptions of subject guides." *Reference Services Review*, 33(2): 188-196.

활용해야 한다. 특히 패스파인더에 대해 배운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패스파인더에 대한 인식, 이용빈도 등이 높은 것을 볼 때, 이용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다.[22)]

특히 패스파인더가 전통적인 참고 도구 리스트와 같이 단순히 정보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분야에 대한 완벽한 검색전략'을 제공하는 리스트, 즉 검색전략에 따라서 관련된 정보원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면, 교과목과 통합된 도서관 이용교육에 활용할 때 더 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 차원에서 도서관 이용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서관과 교과목 담당교원이 상호 협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셋째, 패스파인더를 구축하고 유지할 때 도서관과 교원・학생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대부분의 도서관에서는 패스파인더를 구축하기 위한 인력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교과목 수업과 연계한 리에종 서비스의 일환으로 패스파인더를 구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취할 경우에는 교과목 담당교원, 대학원생 및 학생들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해당 주제분야・교과목에서 원하는 사항을 반영한 정보원을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원의 이용・활용에 대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정보원을 관리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 자료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링크를 체크할 수 있으므로 웹 사이트에 대한 최신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는 패스파인더에 있는 자료의 대부분이 유용하지 않거나, 데드링크가 너무 많아질 경우에는 도서관・사서의 역량을 의심받거나 이미지를 실추시킬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특히 중요하다.

---

22) Staley, S. M. 2007. "Academic subject guides : a case study of use San Jose State universit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8(2): 119-139.

참 고 문 헌

- 곽철완 1998. 전자도서관에서 정보길잡이에 대한 연구, 『국회도서관보』, 35(2): 3-17.
- 이란주 2001. 디지털도서관 정보길잡이 구축에 관한 연구: 패션마케팅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4): 217-238.
- Canfield, P. M. 1972. "Library pathfinders." *Drexel Library Quarterly*, 8: 287-300.
- Cipolla, G. K. 1980. "M.I.T.'s point-of-use concept: A five-year update." *The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5(6): 326-328.
- Cooper, A. E. 1997. "Library guides on the web: Traditional tenets and internal issues." *Computers in Libraries*, 17(October): 52-56.
- Courtois, P. M., Higgins, E. M., & Kapur, A. 2005. "Was this guide helpful? users' perceptions of subject guides." *Reference Services Review*, 33(2): 188-196.
- Cox, A. 1996. "Hypermedia library guides for academic libraries on the world wide web." *Program*, 30(1): .39-50.
- Dahl, C. 2001. "Electronic pathfinders in academic libraries: An analysis of their content and form."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2(3): 227-237.
- Dunsmore, C. 2002. "A qualitative study of web-mounted pathfinders created by academic business libraries." *Libri*, 52: 137-156.
- Hemmig, W. 2005. "Online pathfinders : toward an experience-centered model.", *Reference Services Review*, 33(1): 66-87.
- Jackson, J. W. 1984. "User education." *Texas Library Journal*, 60(2): 58-60.
- Jackson, R. & Pellack, J. L. 2004. "Internet subject guides in academic libraries." *Reverence & User Services Quarterly*, 43(4): 319-327.
- Kapoun, J. M. 1995. "Re-thinking the library pathfinder." *College & Undergraduate Libraries*, 2(1): 93-105.
- O'Sullivan, M. K. & Scott, T. J. 2000. "Pathfinders Go Online.", *Library Journal*, summer: 40-2.
- Peterson, L. & Coniglio, J. W. 1987. "Readability of selected academic library guides." RQ, 27(2): 233-9.

- Reeb, B. & Gibbons, S. 2004. "Students, librarians, and subject guides: Improving a poor rate of return." *Portal: Libraries and the Academy*, 4(1): 123-130.
- Staley, S. M. 2007. "Academic subject guides : a case study of use San Jose State university.", *College & Research Libraries*, 68(2): 119-139.
- Vileno, L. 2007. "From paper to electronic, the evolution of pathfinders: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ference Services Review*, 35(3): 434-451.
- Wilbert, S. 1981. "Library pathfinders come alive.",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21(4): 345-349.
- Wilson, P. 2002. "Perfecting pathfinders for the web.", *Public libraries*, 41(2): 99-100.
- Young, H. 1983.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ALA.

이 자료는 2007년 9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된 제11회 한·중 국립도서관 업무교류의 기조연설과 『디지털도서관 건립추진』을 주제로 발표한 내용을 수록한 것이다.

기 조 연 설

디지털도서관의 현재와 미래

강 창 석*

1997년에 한국과 중국 국가도서관간에 업무교류를 시작한 지 벌써 10년을 훌쩍 넘기고 11회째를 맞았습니다. 그 동안 양 국 도서관의 납본제도, 귀중서의 보존 관리, 사서직원의 교육, 이용자 서비스, 법제도 등 다양한 주제로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양국 도서관간의 정보 공유는 물론 우의를 돈독히 하는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지난 2005년 『국립중앙도서관 2010』 보고서를 통해 "지력강국" 이라는 비전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력강국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국립디지털도서관의 비전을 제시하고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을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디지털도서관 포털 역할을 견지하며 외국의 중요 도서관들에 대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회적 위치나 배경에 따라 차별하지 않는 민주적 정보접근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고,

* 국립중앙도서관 기획연수부장

넷째는 노령화사회에 대비한 디지털도서관, 다문화 서비스의 중심에서 디지털 정보복지를 실현하는 도서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사항은 21세기 디지털 사회의 대표적인 키워드인 통합과 개방을 기반으로 국가디지털도서관의 리더십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중 업무교류의 주제로 현재 양 국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도서관 건립에 초점을 맞추어 디지털도서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함께 의견을 교환하게 된 것은 매우 시기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특히 리창민 디지털도서관 건축처장님이 우리 도서관을 방문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고 중국의 디지털도서관 건립현황 및 운영방안에 대한 고견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현재 우리도서관 앞 광장에 건립되고 있는 국립디지털도서관의 건립 추진 배경과 추진 현황, 그리고 향후 운영전략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1.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추진배경

급격한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이용자의 요구 증대와 디지털 출판물의 등장, 온라인 정보자원의 효율성 증대, 미디어 산업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재의 국립중앙도서관과의 유기적인 연계기능을 가진 새 차원의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2.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추진경위

국립디지털도서관은 1998년 12월 도서관정보망 종합발전계획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1999년 10월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54주년 기념세미나를 통해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2001년 2월 문화관광부의 주요 업무 계획으로 확립되면서 건립 추진계획이 본격화 되었습니다.

2002년에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용역을 진행한 결과, 디지털자원의 수집 · 정리 · 보존에 대한 새로운 도서관 모델을 제시하였

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보게이트웨이로서 정보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이 본격화되어 2005년 8월에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추진단을 발족하고 그해 12월 역사적인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3.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전략

국립디지털도서관은 디지털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디지털도서관 서비스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디지털 정보사회의 각종 디지털 장서들을 기반으로 질 높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정보 활용과 지식생산 활동에 유용한 지식 정보 활용 교육을 선도하는 도서관이 될 것입니다.

총 사업비 1,179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 12월에 완공 예정인 국립디지털도서관은 국가디지털정보종합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민이 시공간의 제약없이 도서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연과 함께 숨쉬는 최첨단의 디지털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앞 광장에 위치하며 연면적 11,500평으로 지상3층 지하5층으로 녹지공간과 어우러진 기단부를 도입하여 개별 건물로 분리된 도서관을 하나의 영역으로 재통합하여 본관의 열린 조망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은 2006년 3월부터 8월까지 디지털장서관리, 국립디지털도서관 포털, 디지털시스템 운영혁신 등을 주요 골자로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2006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전략 세부계획”을 용역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에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운영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첫째, 정보서비스 정책수립으로 국가대표디지털도서관으로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정보서비스 정책 수립과 디지털자료 수집 등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국립디지털도서관을 이용할 이용자의 유형별, 계층별, 주제별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 시나리오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대표 디지털도서관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한 LI(Library Identity) 개발과 대내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 통합 전략에 관한 표준지침서 개발 그리고 브랜드 개발 후 브랜드 자산 가치를 높이고 브랜드파워를 증대시키기 위한 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넷째, 장서관리시스템 연구·개발로 장서개발정책 기본모형 연구·개발 및 수립, 디지털장서관리시스템 개발 지침 및 기능 표준화, 표준 메타데이터 모델 및 장서관리 파일럿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용자들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기반한 이용자별 정보탐색 유형을 도출하고 분석하며, 현존하는 포털의 서비스 유형에 따른 정보탐색 과정과 모형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포털사이트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새로운 열람서비스 공간에 대한 전략으로 개방적이고 다양한 정보서비스, 미디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설인 인포메이션 코먼스 공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의 공간에 대한 전략 수립과 운영방식연구 그리고 새로운 열람서비스 구축방안으로 기존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열람서비스 환경을 뛰어넘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열람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립디지털도서관의 인포메이션 코먼스 공간에서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에도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전용공간 디자인 및 시설을 특별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 시범사업 추진과 아울러 국립디지털도서관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고 있으며, 또한 실제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으로 향후 도서관 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학계, 민간 IT분야 종사자, 전문 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로 “국립디지털도서관 친구”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향후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이 완공된 후 운영을 위한 기본 추진계획 위주로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내일 이 자리에서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추진단 소속의 전문연구관이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올해 한·중 업무교류를 위해 우리 도서관을 방문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중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이번 기회에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21C 메가트렌드와 디지털도서관
한국 국립디지털도서관(진화형 디지털도서관)
2007.9.14. NDL 건립추진단 박진호(朴振虎)
WWW

들어가기 전에
1
2
3
3 Keyword
1. 메가트렌드(Megatrend)
- 메가트렌드의 정의와 중요성
- 다양한 관점에서의 메가트렌드
2. 메가트렌드 & 디지털도서관
- 디지털도서관의 변화 양상
- 메가트렌드 관점에서의 디지털도서관
3. 국립디지털도서관(NDL-Korea)
- 국립디지털도서관 사업 개요
- 2007년 중점사업부분
국립중앙도서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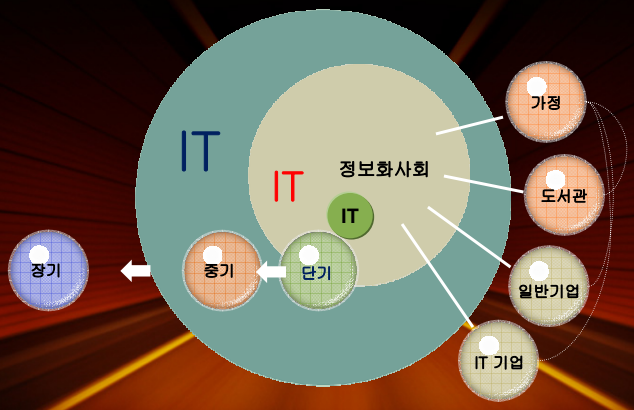
1. 메가트렌드(Megatrend) _1

- 1982년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John Naisbitt) 최초 사용
  - 사회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흐름, 그 중에서도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
  - 1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개인, 사회, 세계적 삶을 형성하는 크고 중요한 방향성을 의미
  -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조류

정확한 메가트렌드 분석은 미래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1. 메가트렌드(Megatrend) _2

정보화 사회를 이끄는 핵심인 IT(Information Technology) 발전 속도를 사회가 따라가지 못함(특히, 한국의 네트워크, H/W 인프라)



1. 메가트렌드(Megatrend) _3

- 정보기술의 빠른 발전이 국가, 사회, 개인 등 모든 요소의 발전 속도를 앞당기고 있음

미래기술의 도래시점이 앞당겨짐

잘못된 기술 적용은 짧은 시간에 사장

단편적 예측은 실패를 초래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다수의 변화 동인과 장애요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 필요

2. 도서관 정보화의 흐름

- 자동화, 기계화에 초점
- 단편적 이슈 사항의 도서관 적용
- 변화 없는 다양한 도서관 패러다임의 탄생

업무자동화 | E-journal | 검색 | IT Infra

과거

- 최신 정보기술의 도서관 적용
-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들의 도서관 적용

E-Library | D-Library | U-Library

현재 (NDL)

- 미래에 활용 가능한 기술의 적용
- 미래기술 적용이 가능한 환경의 구성

3. 정보화 사회에서 도서관의 위치

- 정보가 중심이 되어 가치를 창조하는 사회.
  - 농업, 공업화 사회에서는 가치를 생산하는데 있어 물질과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으나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자원
- 정보화 사회의 영향을 받는 하나의 기구, 조직, 매체이며 동시에 모든 정보자원의 집적체
  - 뒷 부분에 상세 설명

4. 메가트렌드 분석

- 과거를 포함한 단기/중기/장기적 메가트렌드 분석
- 다양한 분야, 시각의 메가트렌드 분석
- 지식정보자원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메가트렌드 분석

4.1. 과거의 메가트렌드

- 1982년 John Naisbitt “Megatrend”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기계 위주의 단순기술에서 인간 위주의 첨단기술로
국가 경제에서 글로벌 경제로
단기 위주에서 장기 위주 시각으로
집중화에서 분산화로
정부와 같은 제도의 지원에서 자조(自助·self-help)로
간접 민주주의에서 직접 참여 민주주의로
피라미드형 관료주의에서 네트워크형으로
미국의 북동지역 위주에서 남서지역 위주로
양자택일형에서 다양한 선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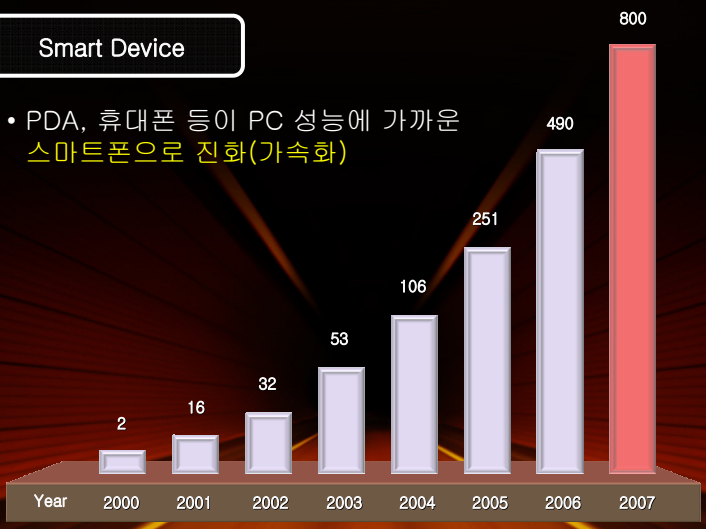
4.2. 현재의 메가트렌드(~2008)

- 국립디지털도서관 개관에 맞추어 물리적인 인프라 구성과 첨단 이용자 서비스 환경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
- 2008년 국립디지털도서관 정보화 사업의 토대로 활용

4.3. 키워드(Keyword)

Smart Device

• PDA, 휴대폰 등이 PC 성능에 가까운 스마트폰으로 진화(가속화)



<Blackberry 사용자 수 : 만명>
<출처 : Research in Motion _ Annual Report>

4.3. 키워드(Keyword)

Mobile 2.0

• 휴대 단말기용 위젯(widget) 및 모바일 블로그 서비스의 등장

• 휴대 단말기 풀브라우징(Full Browsing) 서비스

• 모바일 광고 시장의 활성화

Mash-Up Service

• 기관 내부, 외부 독립된 소프트웨어/소스 간 조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창출

4.3. 키워드(Keyword)

Extension of Capability

- 통합화 추세로 발전하면서 솔루션 통합을 지원하는 정보플랫폼으로 변화

4.3. 키워드(Keyword)

Solution Convergence

- SaaS 저변 확대로 온라인 서비스 기반의 솔루션 융합 활성
- SOA 기반 Web2.0 개념 융합 솔루션 시장 확대

Green Computing

-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전력 및 쿨링 비용 절감 프로젝트

Cloud Computing

- 미래 인터넷을 모든 모바일 기기와 정보로 연결하는 컴퓨팅 기술

4.3. 키워드(Keyword)

Risk Mgmt.
Automation

• IT 컴플라이어스 증가로 위험관리 자동화 요구 증대

** IT 컴플라이언스는 정보의 생성, 저장, 공개, 보호 및 무결성을 위해
IT 통제를 필요로 하는 외부 규제, 산업 표준 및 프레임워크와
내부 정책의 요구 사항을 해결

4.4. 종합

Keyword	특징	Megatrend
• Innovative Transformation • Shift of Global Outsourcing • Multimedia Services • Digital Convergence based on IP services • Security Governance • Diversity of Compliance • Solution Convergence • Mobile & Interactive • Extension of Capability • Network Convergence • Real World Web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 Security Convergence • Risk Management Automation • Green Computing • Cloud Computing • Green Energy • Smart Devices • WiFi based Service • Mobile 2.0 • Mash-up Service • Rich Internet Application • Human-Computing Interaction • Open Grid Services Platform • Agile Computing	개방/공유/참여 비용절감 융합/통합 법/규정 접근성 연속성 이동성 친환경 이용자중심	• Web 2.0 • Risk Management • Mobility • Green IT • Consumerization of IT

5. 2010 정보통신 메가트렌드

- 기존 원고 '2. 2010까지의 정보통신 메가트렌드 부분임.
- 원고 내용에 충실하여 작성

5. 2010 정보통신 메가트렌드

디지털화	이동화	유비쿼터스화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디지털 컨버전스	광대역화	정보통신기술/서비스의 개인화	

- 2004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10년 정보통신서비스의 미래' 인용
- 불과 3년 전 자료이나 이미 대부분의 상세 기술은 이루어져 있음
- 메가트렌드 전체 키워드는 2008년과 크게 다르지 않음

5.1. 2010 정보통신 메가트렌드(가정)

4W1H	Who	What	When	Where		How		
효과	누구든지, 누구와도, 특정상대와	어떤것이든, 특정한 것이든	언제든지, 특정시간에	어디와도, 특정장소와	어디든지, 특정장소에	어떻게		
특성	사용자의 다양성, 상대의 자유/선택성	풍부성 다양성 선택성	시간극복	거리극복	장소극복	용이화 간편화	현실감있게, 자연스럽게	고신뢰, 안전성

가정에서는 모든 기기들이 통합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구성들은 교육, 방송, 오락 등 기본적인 서비스에서부터 원격의료, 보안 등의 고도화된 서비스에 이르는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다.

5.2. 2010 정보통신 메가트렌드(기업)

4W1H	Who	What	When	Where		How		
효과	누구든지, 누구와도, 특정상대와	어떤것이든, 특정한 것이든	언제든지, 특정시간에	어디와도, 특정장소와	어디든지, 특정장소에	어떻게		
특성	사용자의 다양성, 상대의 자유/선택성	풍부성 다양성 선택성	시간극복	거리극복	장소극복	용이화 간편화	현실감있게, 자연스럽게	고신뢰 안전성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원스톱 관련 업무를 볼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 환경의 도입, 전사상거래 있어서 전자태그 기술의 활용 등으로 조직의 분권화가 심화되며, 글로벌화가 촉진될 것이다.

5.3. 2010 정보통신 메가트렌드(사회전반)

- 사회전반적으로는 보편화된 광대역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행정이나 교통 등 다양한 서비스가 단방향에서 양방향 서비스로 진화
- 일반 대중을 위한 콘텐츠와 서비스가 개인화 형태로 변모하는 개인형 맞춤 서비스 현상

6. 미래사회 예측과 키워드 도출

정보화시대의 변화양상

- IT(Information Technology) + BT(Bio Technology) + NT(Nano Technology)

01 IT + NT의 결합 : 인간 주변 모든 컴퓨팅 소재의 초소형화

02 초소형화된 IT/NT가 몸속으로 들어옴(BT)

03 신체의 미디어화 : 인간의 오감이 초소형(NT) 기계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기계들이(IT)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인간과 터치하는 감성공학(Ergonomics) 도래

6. 미래사회 예측과 키워드 도출

도서관의 변화

문화권력의 역전

• 미디어와 채널에 집중되었던 문화 권력이 약화
•다수의 수용자가 소수의 미디어를 경쟁적으로 이용하던 상황에서 다수의 미디어가 수용자 개인의 관심을 얻기 위해 경쟁

지식의 소통과 생산능력

• 정보생산 및 보존은 개인이 기억하고 있는 지식보다는 지식의 생산과 소통이 중요
• 도서관의 정보보존, 관리, 처리는 지능화된 로봇의 의존도가 높아짐
• 사서는 현재의 주제 전문 사서보다 발전된 정보처리능력과 IP(Information Provider)로서의 역할 수행이 중요

6. 미래사회 예측과 키워드 도출

도서관의 변화

가상도서관(Virtual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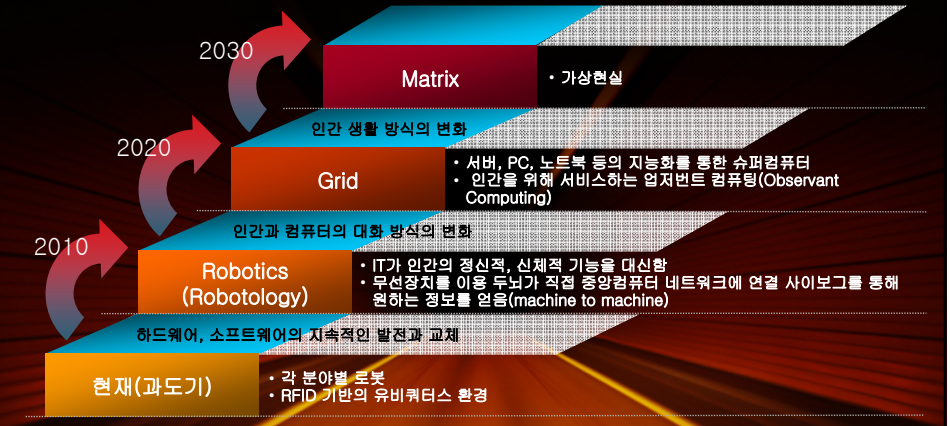
• 물리적인 도서관 시설과 함께 가상현실 기반의 가상도서관(Virtual Library)가 인간의 몸을 인터페이스로 하는 기술은 실제 도서관(Real Library)와의 경계를 점점 허물어 갈 것임

6. 미래사회 예측과 키워드 도출

정보통신기술의 변화(I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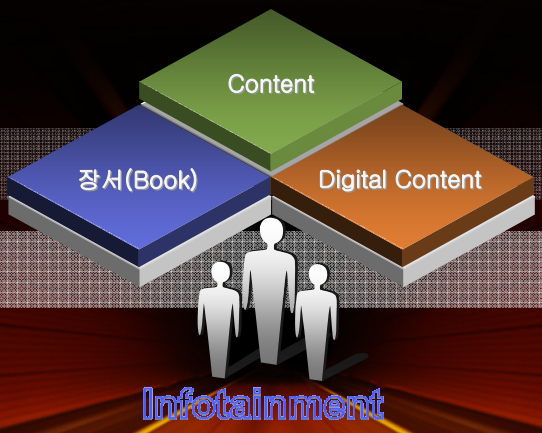
-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활동을 대체하며 개인의 편익을 극대화
- 향후 10~20년, 로봇을 통해 신체적인 일을 하고 인지능력을 향상시키는 단계
- 두뇌와 신체의 구조와 두뇌/신체의 활동양식을 결합하여 발달
- 인간의 몸이 환경과의 인터페이스에 주요한 수단이 되어 가치 증가

6. 미래사회 예측과 키워드 도출



예시1 (Example1)

- 도서관 = 지식 정보



Infotainment

예시2 (Example2)

- 지식정보자원수집보존 = Archiving & Preser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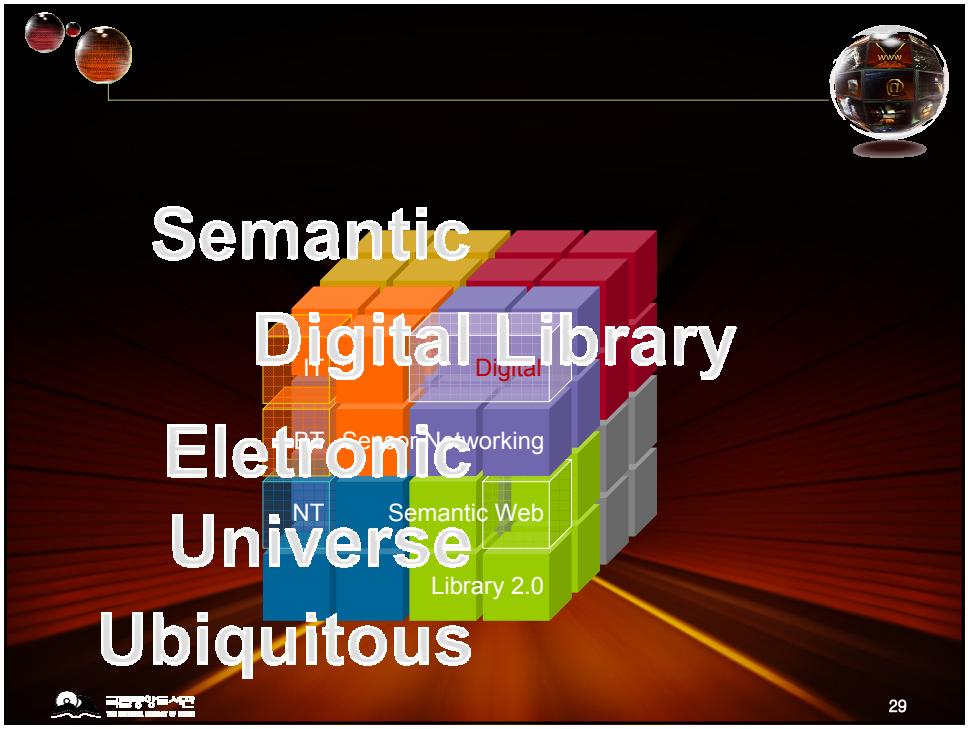
Archiving

보존(Preservation)

- 특정 데이터 행태가 오랫동안 관리되어 기술적 변화 속에서도 접근가능하고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아키이빙 활동의 일부

Cu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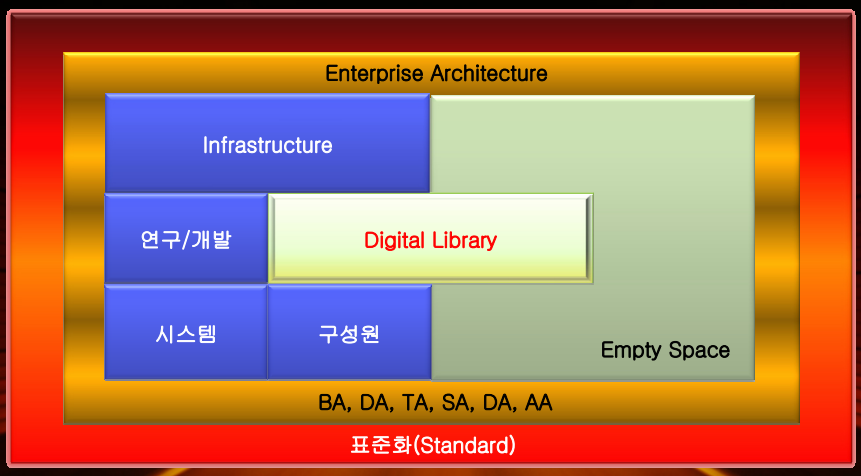
- 현재와 미래세대의 이용자들이 문제없이 모든 디지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
- 양질의 디지털 정보를 생산과 관리, 장기적 이용에 필요한 전체 프로세스, 그리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자원을 생산하기 위해 데이터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능력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7. 메가트렌드 그룹화 및 NDL 과제

메가트렌드	유비쿼터스, 광대역화, 디지털컨버전스, 개인화서비스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로봇	디지털화 디지털컨버전스 개인화서비스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감성공학 가상도서관 인포메이션 프로바이더 문화권력 역전	광대역화 디지털컨버전스 개인화서비스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지식소통, 생산능력 미디어로서의 도서관 그리드 컴퓨팅 메트릭스 컴퓨팅	BT NT 인간신체의 미디어화 Web2.0 Library2.0
분류	도서관건물/시설	연구개발	시스템개발	
구축영역	인프라	정책연구과제	Back-End 시스템 Front-End 시스템 인프라	
대분류	유비쿼터스 공간 디지털시설서비스	NDL 장서관리 NDL 포털 인포메이션 코먼스 오아시스고도화	오아시스 고도화 시스템운영혁신 DB품질관리체계수립 시스템통합체제 NDL포털 통합시스템구축	

기본 프레임 워크


Enterprise Architecture
Infrastructure
연구/개발
Digital Library
시스템
구성원
Empty Space
BA, DA, TA, SA, DA, AA
표준화(Standard)

8.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공사

- 위치 : 서울 서초구 반포동 국립중앙도서관 광장
- 규모 : 연면적 11,500평(지상 3층·지하 5층)
- 주요시설 : 디지털자원 수집·제작·보존·서비스 공간,
  업무시설, 시고, 지하주차장
- 서고수장능력 : 1,200만책
- 기간 : 2000 ~ 2008년(7년간)
- 총사업비 : 117,900,000,000원

8.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공사

- 열린 조망을 통한 기존 도서관과의 조화를 이루는 계획!
  - 지상3층, 지하 5층 만천여평 규모로 조성되는 녹지공간과 어우러진 기단부 도입으로 개별 건물로 분리되어있던 도서관을 하나의 영역으로 재통합하고 본관과의 열린 조망권 확보
- 자연과 함께 숨쉬는 친환경 도서관!
  - 공원의 녹지를 도서관과 연계,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는 정보공간
  - 자연채광을 지하까지 도입, 실내정원/디지털정보서비스 공간내 실내정원 조성
  - 에너지 절약형 환기시스템 도입

8.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공사

-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의 게이트웨이, 디지털정보서비스 공간!
- 첨단지능형시스템을 적용한 디지털도서관 모델 제시!

9. 2007년 중점 정보화 사업

NDL의 안정적 기틀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

전사적아키텍처 구축

- 국립디지털도서관의 모든 구성요소 설계
- 2007년 1단계 기반 정립 사업
- 국립중앙도서관과의 구성요소 분석(As-Is)
- 단기년도 목표아키텍처 설정(To-Be)

운영 시범 사업

- NDL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 연구 분야
- NDL의 실제 운영에 필요한 모든 On/Off Line 요소의 연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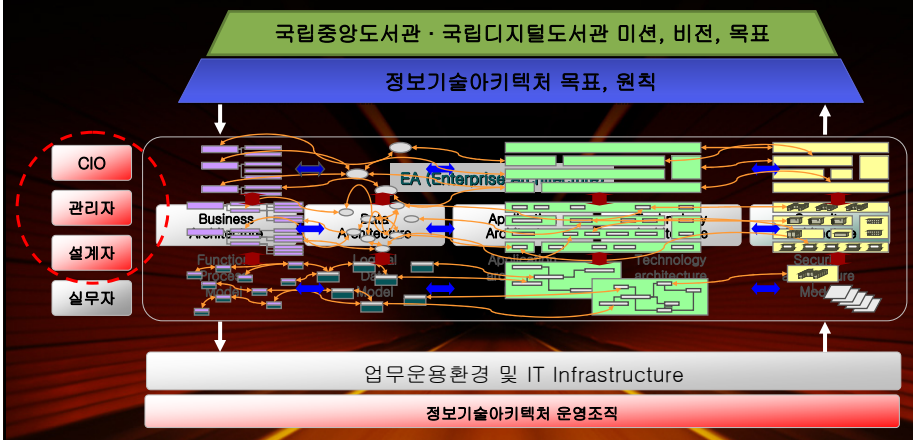
디지털도서관건립공사

9. 2007년 중점 정보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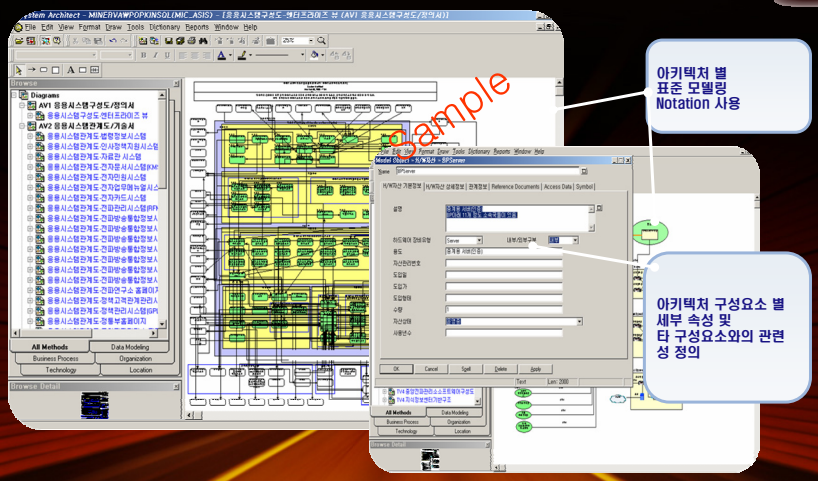
- EA 개요
  - 정보 고도화 사회에서 국가 대표 정보관리 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이용자 요구 충족을 위한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정보 연계, 협업 등에 부응하기 위한 상호운용성 확보 기반 필요
  - ITA 도입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 본관 및 국립디지털도서관간의 혁신적 정보자원 관리 필요
    - 최적화된 정보화 환경 기반 마련 및 정보자원 관리
    - 정보화 관리 능력 선진화 필요
    - 운영 효율성 극대화 및 서비스 극대화를 위한 IT 프로세스 진단 및 최적화 필요
  - ITA 구축 관리로 아키텍처 활용체계 및 정보화투자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보화사업 투자 및 관리의 효율화 기반 마련 필요

9. 2007년 중점 정보화 사업

- EA = 설계도



9. 2007년 중점 정보화 사업



9. 2007년 중점 정보화 사업

✓ 국가대표디지털도서관으로서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NDL의 성문화된 정보서비스 정책 수립

✓NDL 포털과 인포메이션 코먼스를 통합한 NDL 정보서비스에 대한 정책 수립

✓NDL 포털과 인포메이션 코먼스를 통합한 NDL 정보서비스 지침(Guideline) 제시

9. 2007년 중점 정보화 사업

- ✓ NDL 포털과 인포메이션 코먼스 이용자의 유형별, 계층별, 주제별 정보요구를 파악하여 이용자 시나리오 연구
- ✓ NDL 포털과 인포메이션 코먼스에서의 정보자원 리터러시 프로그램 이용자 시나리오 연구
- ✓ NDL 포털과 인포메이션 코먼스에서의 디지털 시설 서비스 이용자 시나리오 연구

9. 2007년 중점 정보화 사업

- ✓ 국가대표디지털도서관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 통합 전략에 관한 표준지침서를 개발
- ✓브랜드 심벌마크(Brand symbol mark), 슬로건(Slogan), 캐릭터(Character)
- ✓ 브랜드 네임(Brand Name): 국문 및 외국어 수용범위 선정 및 표기방식 등
- ✓ 브랜드 로고타이프(Brand logotype)
- ✓ 사인시스템, 유인물, 서식 등에 사용될 응용요소의 개발

9. 2007년 중점 정보화 사업

✓ 국가적 디지털 정보자원 개발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필수요소들을 도출하여 NDL 장서개발정책 기본 모형을 연구 개발하기위한 과제로 NDL의 비전 및 중장기 계획에 부응함

- 성문화된 NDL 장서개발정책 수립에 기준한 중장기 세부 장서 개발 정책 수립
- NDL 환경에 맞는 컨스펙터스를 개발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 부응하는 NDL 장서기술방법 및 평가에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
- '국립디지털도서관운영전략세부계획'에 명시된 장서개발정책 요소의 점검, 보강, 수정과 NDL 정보자원개발정책 기본모형에 근거한 성문화된 정책 수립

9. 2007년 중점 정보화 사업

✓ NDL 장서관리를 위한 성문화된 지침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활용가능한 디지털 장서관리 지침의 표준안으로 활용하고자 함

- NDL 추진목표, 운영전략에 부합하는 장서개발기본모형에 근거한 장서관리 기본 원칙 수립
- 장서유형별 장서 수집, 등록, 분류, 저장, 접근, 평가, 보존 프로세스 개발 및 프로세스별 정책 요건, 기능 요건 도출
- 성문화된 장서관리 지침 및 프로세스 개발로 시스템화에 활용
- NDL 장서관리를 위한 성문화된 지침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활용가능한 디지털 장서관리 지침의 표준안으로 활용하고자 함

9. 2007년 중점 정보화 사업

✓NDL 정보자원의 관리와 차세대 이용자 서비스 환경에 맞는 메타데이터 모델 정립 및 Semantic Language 적용 여부 연구

- Semantic Language의 범위는 RDF, TopicMap, OWL 등을 대상으로 하며 초반 연구계획에서 집중 대상을 선택하여 주과제로 선정하고 사업기간 중 해외 사례 발표를 반드시 수행해야 함.
- 위 연구 성과와 관련된 NDL 정보서비스의 지능형에이전트 표준 기능 요건 도출

9. 2007년 중점 정보화 사업

✓ 장서개발 모형, 관리정책, 메타데이터 모델, 지능형 에이전트 등 의 연구 개발 성과물에 기반한 장서관리 파일럿 시스템 구축

✓ 연구개발 성과물의 프로세스, 메타데이터 모델, 인터페이스, 이용자 인터랙션이 반영된 프로세스 위주의 파일럿 시스템으로 기존 국립중앙도서관 멀티미디어 장서를 기본 데이터로 시스템 운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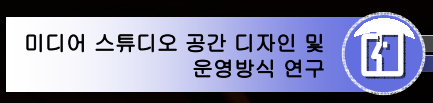
9. 2007년 중점 정보화 사업

- ✓ 이용자 정보요구에 기반한 이용자별 정보탐색 유형 도출
- ✓ NDL 포털사이트 모형 조사 및 연구
- ✓ 이용자별 시나리오 분석에 기반한 포털사이트 모형 개발
- ✓ NDL 포털사이트의 서비스 방안 도출
- ✓ 하위포털 서비스 모형 개발

9. 2007년 중점 정보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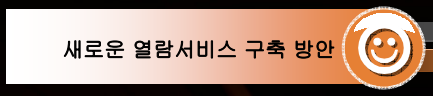
- ✓ 개방적이고 다양한 정보서비스, 시설, 미디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NDL 공간에 대한 전략 수립
  - ✓ 디지털 클러스터 공간 디자인 및 내부설비계획
  - ✓ 디지털 러닝 공간 기능 정의 및 공간배정
  - ✓ 컨퍼런스룸 평형계획 및 집기 시설 인프라구축계획수립
  - ✓ 컴퓨터실 평형계획 및 집기시설 인프라구축계획 수립
  - ✓ 유비쿼터스 특별전시장 평형계획 및 집기 시설 인프라구축계획 수립
  - ✓ 유비쿼터스 상설전시장 평형계획 및 집기시설 인프라구축 계획 및 콘텐츠 구축방안 수립
  - ✓ 기타 이용자 공간

9. 2007년 중점 정보화 사업



✓ 미디어 스튜디오 서비스 범위와 운영방식
✓ 미디어 스튜디오 공간 디자인

9. 2007년 중점 정보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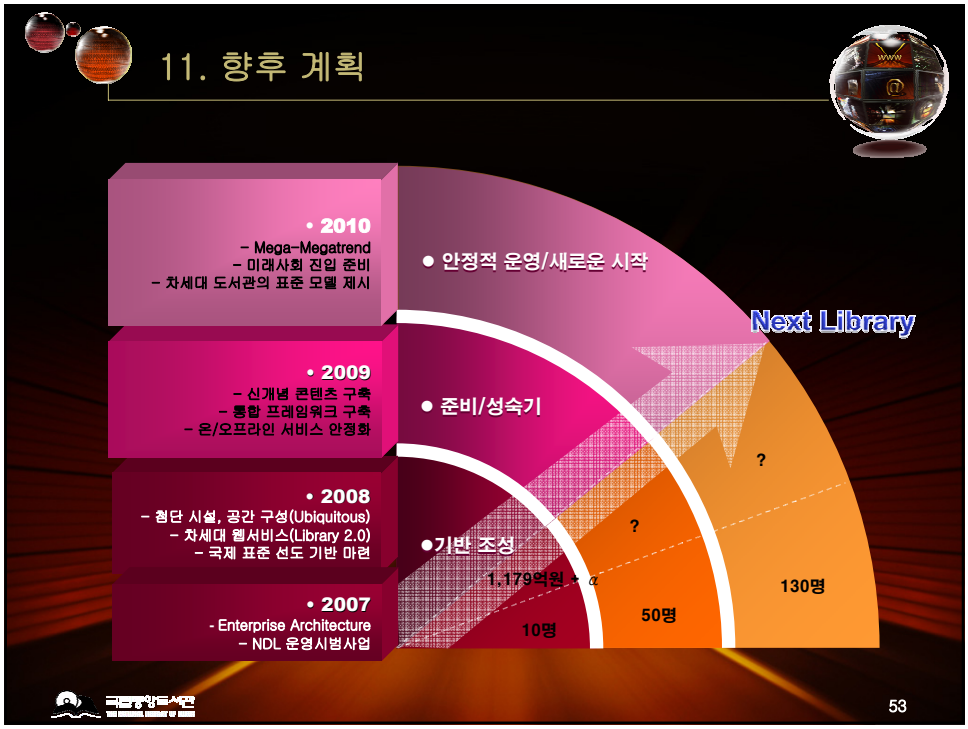
✓ 미디어 열람 서비스 방안
✓ 국립중앙도서관과 열람 서비스 연계 방안
✓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열람 환경 개선 방안
✓ NDL 공간 등 유형요소와 이용자동선, 정보흐름, 서비스 망 등 무형요소의 인터페이스 전략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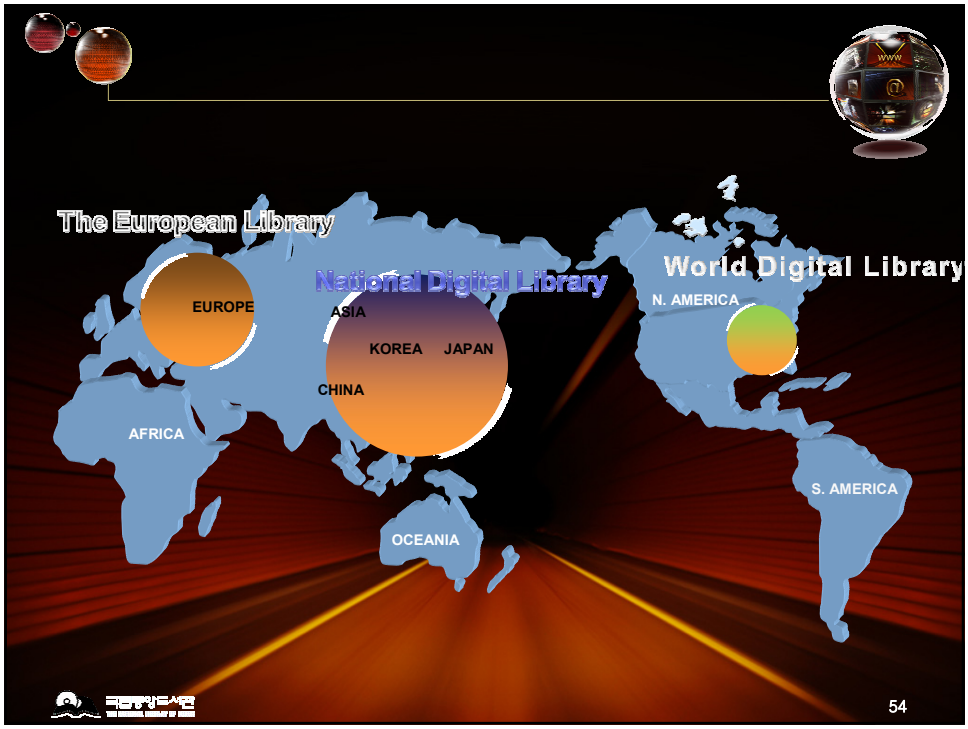
9. 2007년 중점 정보화 사업

- ✓ NDL 포털과 인포메이션 코먼스 환경에서의 서비스 개발
- ✓ 이용자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정보서비스 지침 개발
- ✓ 정보취약계층 콘텐츠 개발
- ✓ 정보취약계층 전용공간 디자인 및 시설 계획

10. 국제, 국내 표준화

ISO	• ISO TC46(Information & Document) • 한국 간사기관 역할 수행(Korea Secretary) • SC4(기술적상호운용), SC8(도서관 평가), SC9(식별자) SC11(아키이빙)
DC	• DublinCore Metadata Initiate 이사국 • DCMI Korea 공인 사이트 운용 • DCMI Conference paper 국제 서비스 • DC Publication System(운영예정)
저작권	• 저작권위원회 표준화 사업 참여 •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진행 중)


11. 향후 계획
• 2010
– Mega-Megatrend
– 미래사회 진입 준비
– 차세대 도서관의 표준 모델 제시
• 2009
– 신개념 콘텐츠 구축
– 통합 프레임워크 구축
– 온/오프라인 서비스 안정화
• 2008
– 첨단 시설, 공간 구성(Ubiquitous)
– 차세대 웹서비스(Library 2.0)
– 국제 표준 선도 기반 마련
• 2007
- Enterprise Architecture
– NDL 운영시범사업
● 안정적 운영/새로운 시작
● 준비/성숙기
●기반 조성
Next Library
1,179억원 + α
10명
50명
130명
?
?
53


The European Library
National Digital Library
World Digital Library
EUROPE
ASIA
KOREA
JAPAN
CHINA
AFRICA
N. AMERICA
S. AMERICA
OCEANIA
54

국립중앙도서관

감사합니다.

기 조 연 설

중국국가도서관 디지털도서관 건립 개황

장위후이(張玉輝)*

중국국가도서관은 1995년부터 디지털도서관을 추적연구하기 시작했으며 2000년 국가디지털도서관 사업을 신청하고 2004년 국가도서관 2기 공사 및 국가디지털도서관 공사를 정식으로 시작해 도서관 업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국가디지털도서관은 총 건축면적 77,687㎡, 설계 소장량 1,200~1,400만 책, 이용자 좌석 2,900석, 1일 평균 이용자 수용 능력 8,000명, 총 사업비 123,500만 위안, 사업기간 2003년~2007년이다.

一, 국가디지털도서관 건립 배경

20세기부터 첨단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정보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인류의 정보 전달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디지털 정보의 대량 생산과 조직적인 관리 및 서비스는 전통적인 도서관에 새로운 도전이 되었고, 디지털도서관이 발전 모델로 떠올랐다. 미국 정부가 1993년 '국가 정보 인프라 시설 행동 계획'을 발표한 후, 각 국 정부가 디지털도서관 건립에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며 세계적으로 디지털도서관 건립 열풍이 불어 많은 국가가 디지털도서관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다.

중국국가도서관은 1995년부터 국제디지털도서관 연구 동향을 조사하기 시작해서 1996년 국가 863사업에 참여했으며, 1997년 6개 성(省), 시(市) 도서관이 참여하는 디지털도서관 실험 프로젝트를 만들었고, 국가 중점 과학기술 프로젝트 《중국 실험형 디지털식 도서관》에 참여했으며, 2002년에는 과기부가 입안

* 중국국가도서관 부관장

한 《중국 디지털도서관 표준 규범 연구》에 참여했다. 몇 년 간의 노력으로 중국국가도서관은 디지털도서관 분야 관련 문제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디지털도서관 건립을 위한 전문 기술 인력을 육성했으며 이론과 기술적으로 충분한 준비를 했다.

중국국가도서관은 2000년 국무원에 국가디지털도서관 건립 계획을 제출했고, 2001년 11월 '국가도서관 2기 및 국가디지털도서관 기초사업'이 국무원 입안 승인을 거쳐 국가 중점 건설사업에 포함되었다. 2003년 1월에는 '국가도서관 2기 사업 및 국가디지털도서관 사업 타당성 연구 보고서'가 국무원 승인을 받았다. 2004년 11월에는 '국가도서관 2기 사업 및 국가디지털도서관 사업 토목건축 초기 설계'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며 2004년 12월 28일에 토목건축을 착공했다. 현재 디지털도서관 초기 설계가 이미 국가 심사를 통과했다.

사업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1. 국가도서관 2기 사업

8만㎡에 달하는 도서관에는 국가도서관의 30년 장서, 열람실과 서비스를 위한 공간이 들어간다.

2. 국가디지털도서관 사업

디지털 자료 수집, 가공, 반포, 보존기술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시스템 설비를 갖춰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에게 디지털 자료를 제공한다.

二, 국가도서관 2기 사업

2기 사업은 국제 입찰을 통해 독일 KSP (KSP Engel und Zimmermann) 건축설계유한회사와 화둥건축설계연구원유한회사 컨소시엄의 방안이 낙찰됐다. 2기 도서관은 기존 도서관 건물 서북쪽에 위치하는데 외관이 깔끔하고 건축 고도가 낮으며 운영 원가가 경제적이고 기존 도서관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설계 이념은 '과거, 현재, 미래'이다.

전체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5층으로 이루어지며 내부는 전부 개방형 열람공간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편하게 앉아서 독서,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다. 1층은 약 4,000㎡의 중국어 도서 열람구역이다. 그 북측에는 1,100㎡ 규모의 학술교류센터, 남측에는 700㎡ 규모의 이용자 식당이 있다. 위 장소들은 도서관에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폐관 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2층은 전체 건물의 주요 입구층으로 이용자는 대형 계단을 따라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동쪽 홀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면 각 층으로 갈 수 있는데, 이곳은 3,100㎡의 중국어 도서 열람구역으로 사용할 것이다. 3층의 평면은 사면이 보이는 벽으로 이용자들은 테라스로 가서 사방을 볼 수 있다. 이 곳 역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추적인 곳으로 7.5m에 달하는 천장 높이는 웅장하고 넓은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 3층은 1,800㎡ 규모의 신문열람실로 운영될 것이다. '큰 옥상' 내에 위치한 4층은 3,600㎡의 중국어 간행물 열람구역 및 1,400㎡ 규모의 전자음향멀티미디어 열람구역이다. 5층은 단체 사무, 회의구역이다. 지하 1층은 내부문헌 가공구역, 내부 교육구역 및 전시구역 등이 있다. 지하 2층, 3층은 전부 폐가제 밀집 서고이다. 중앙 계단형으로 이루어진 1,500㎡ 규모의 중앙 공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한 곳으로 상하가 뚫려있고 서로 조화되어 있으며, 주위는 여러 문자의 도구서로 장식된 도서 전시벽이 있어 이용자들이 책을 읽기에 최상의 장소이다.

2기 도서관은 폐쇄형 열람실을 설치하지 않고 모두 개방형 열람구역으로 만들었으며 모든 문헌을 개가식으로 열람한다. 또한, 전문 전자 열람실을 만들지 않고 700대의 컴퓨터를 각 열람구역과 공용 검색구역에 두었으며, 모든 열람석 위에 전원과 인터넷선을 설치해 모든 이용자가 전자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전통 도서관이 제창한 이용자, 도서, 서가 3자 간의 관계는 '사람이 책에 있고, 책이 손에 있다'로 간편한 개가제 열람 방식이었는데, 복합 도서관은 도서, 책상, 서가, 컴퓨터 등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교차 분포, 주변 배치시켜 이용자를 중심으로 '모니터가 앞에 있고, 양쪽에는 책이 있는' 새로운 형식이다. 이러한 배치는 복합 도서관의 '검색, 독서, 자문, 대출, 소장 일체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합하다.

三, 국가디지털도서관 사업

국가디지털도서관 시스템 구축에서 디지털도서관의 과학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디지털 자료 구축 시스템, 디지털 자료 발표와 서비스 시스템, 디지털 자료의 조직적 관리 저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1. 국가디지털도서관 건립 목표

국가디지털도서관은 국가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중국어 디지털 정보를 중점적으로 소장, 구축, 장기 보존하고 인터넷에 초대형 규모, 우수한 품질의 중국어 디지털 자료DB군을 구축한다. 또한, 디지털 자료 수집, 가공, 보존 기술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국가 주요 통신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및 세계에 중국어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디지털도서관은 세계 최대 중국어 디지털 정보 보존 기지와 서비스 기지가 될 것이며, 국가 중요 정부 기초 시설이 될 것이다. 우수한 기술과 전달 도구를 이용해 전국 및 세계에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보여주고 도서관 소장 자료를 공유할 것이다.

국가도서관 2기 사업 준공은 2007년 말을 단기 목표로 잡고 있으며 통일된 국가디지털도서관 서비스 포털을 구축해 이용자에게 게시형 도서목록 정보(도서목록, 편명, 목차 등) 1,000만 개 이상을 제공한다. 인터넷과 도서관 사이트에서는 이용자에게 자체 구축한 디지털 자료와 외부에서 구입한 디지털 자료를 제공한다. 새로 지은 도서관 관내에는 600석에 달하는 전자 열람실 좌석을 배치해 세계적 수준의 국가디지털도서관을 건립한다.

2008~2010년은 중기 목표시기로 중국어 문헌 도서목록 DB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에게 중국어 메타데이터를 제공한다. 도서관이 소장한 특수자료 DB를 구축해 이용자에게 중국의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갑골 자료 DB, 금석탁본 자료 DB, 돈황 자료 DB, 읍지 자료 DB, 도서관학 자료 DB, 중국 국정 자료 DB, 중국박사논문 DB, 중국학 자료 DB 등이다. 중국어 인터넷 정보 자료 DB를 구축하고 중국의 중요한 사이트 정보를 보존해 이용자에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른 업계, 지역의 디지털도서관 시스템과 연결해 이용자에게 전방위 지식 정보 DB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디지털도서관을 중국어 디지털 정보의 검색센터로 만든다.

2. 국가디지털도서관의 디지털 자료 구축

국가디지털도서관 구축 목표는 민족문화를 알리고 문화유산을 계승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국가 입법결정, 국가중대 건축 사업 및 학술연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디지털 자료 구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일괄 계획, 공익 위주, 뚜렷한 특징, 표준준수, 과학적 관리, 자체구축과 외부구입 병행, 지적재산권 중시, 디지털도서관 건축 공사를 해나가면서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다.

디지털 자료 구축 방침은 중국어 자료를 주(主)로 하고 외국어 자료를 부(副)로 하며, 통용되는 자료는 구매 위주, 특수자료는 자체 구축을 위주로 한다. 디지털 자료 구축의 세 가지 중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중국어 디지털 자료에 중점을 두고, 장기 보존 디지털 자료에 중점을 두며, 중국어 메타데이터 수집에 중점을 둔다.

(1) 자체구축 자료 : 도서관 소장 특수자료는 자체 구축을 위주로 한다.
(2) 협력구축 : 자료 교환, 위탁 가공 등 국내외 대형기구와 협력해 도서관 소장 자료를 개발한다.
(3) 외부구입 자료 : 전자도서, 간행물, 신문, 자료 DB 등 시장에 이미 발행된 전자자료를 위주로 한다.
(4) 인터넷 수집 : 인터넷 자료와 개방된 자료를 수집한다.

3. 국가디지털도서관 표준 규범

국가디지털도서관은 표준 규범을 매우 중시한다. 국제표준이 있는 것은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국제표준이 없으면 중국 국가표준을 따른다. 두 가지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업계표준 또는 사실표준에 따른다.

4.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국가도서관은 지적재산권을 중시하며 보호한다. 자료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방식을 이용해 판권을 받는다.

(1) 작가와 출판사에 장기 보존권과 사용권을 직접 받는다.

(2) 자료 콘텐츠 제공업자에게 DB 장기 보존권과 사용권을 받는다.
(3) 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받는다.
(4) 여러 활동을 통해 받는다.

디지털 자료의 서비스 범위는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서비스 방식을 채택한다. 일부 자료는 인터넷에 공개하고, 일부 자료는 국가도서관 LAN에서만 사용한다.

5. 디지털 자료 구축 진전

국가도서관 전자 자료 구축은 1980년대부터 시작했다. 1987년 중국어 도서목록 DB 구축을 시작했으며, 1987년에 CD DB 도입을 시작했다. 2000년부터 도서관 소장 특수자료 디지털화를 시작했으며 2006년 말 현재, 국가도서관은 대량의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다. 국가도서관이 자체 구축한 디지털 자료 총 용량은 150TB로, 약 1억700여 페이지, Off-Line Storage CD는 6만 여 장을 보유하고 있다.

▶ 국가도서관 목록 데이터 :

- 도서관 소장 데이터 400만 개 : 규격에 맞는 데이터 70여 만 개
- 공동 편목 데이터 : 190여 만 개
- 원문 영상 데이터 : 10,700만 페이지, 박사논문, 읍지, 갑골, 금석탁본, 세화, 옛날 사진 등.

▶ VOD, MOD 데이터 :

- MOD 디지털화 전환 48만 곡, VOD 디지털화 전환 1.7만 개 프로,
  온라인 VOD 강좌 308개

▶ 네트워크 자료 수집 :

- 특정 제목 자료 DB 18개
- 정부 사이트 2만 여 개

- 중국어 PDF 신문 113종

▶ 구입하거나 받은 전자자료는 다음과 같다 ;

- 중국어 외국어 1급 DB101개
- 중국어 외국어 문자 DB 183개
- 중국어 전자도서 14만 종류/31만 책
- 서양어 전자도서 33만8천 책/7000만 페이지
- 중국어 전자출판물 1.2만 책
- 외국어 전자 출판물 7천 여 건
- 국내외 학위 논문 148만 여 건
- 도서, 간행물 부록CD 2.6만 여 건
- 영상자료 13.5만 여 건

6. 국가디지털도서관 서비스

국가디지털도서관 서비스 전체 방침은 '건립을 하면서 서비스를 하는 것'이며, 그와 동시에 디지털 자료의 종류와 수량을 늘려 국가도서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새로운 서비스 항목을 만드는 것이다.

7. 디지털 자료 장기 보존

디지털 자료 장기 보존은 도서관 정보 자료 디지털화 사업 생명주기에서 중요한 단계로 그 목적은 디지털 자료의 장기적, 효과적 접근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가도서관은 종합적으로 도서관을 연구하는 역할을 하며 중국 국가를 위해 종이문헌, 마이크로 문헌, 시청각 문헌 등 전통 자료와 디지털 자료를 보존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국가도서관은 디지털 자료 보존 작업을 매우 중시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디지털 자료의 장기 이용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지털 자료 보존과 이용의 특징에 따라 디지털 자료 보존을 장기 보존급과 비정기 보존급, 임시 보존급으로 나누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적인 보존 기구를 설치하고 디지털 자료 보존 관리 제도를 강화했으며 구체적인 작업 공정을 만들었다.

디지털 자료 장기 보존은 국가급 도서관이 디지털 환경에서 해야 할 중요한 작업으로 이것은 복잡하고 장기적인 일이며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업데이트해 나가야 한다.

8. 국가디지털도서관 사업의 주요 성능 지표

(1) 인터넷 이용자 접속 능력 1일 1,000만 페이지 이상
(2) 인터넷 이용자 최고 접속 능력 분당 10만 번 이상
(3) 인터넷 자료 출력 총량 1일 1TB 이상
(4) 전자 열람석은 열람 총 좌석의 30% 이상을 집중 배치하고 나머지는 여러 열람실에 나눠서 배치
(5) 자체 보유 자료 가공과 구입 자료 능력 연간 5TB
(6) 주요 열람구역, 회의구역, 실외 휴식구역에 무선접속 능력 구비

결 론

지금까지 중국국가도서관 디지털도서관 건립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중국국가도서관의 디지털도서관 사업에 대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이해를 도왔기를 바라며 함께 논의하고 공동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또한 양측이 디지털도서관 분야에서 더욱 많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도서관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함께 맞이하기를 희망한다.

주 제 발 표

신기술 환경에서의 도서관 정보 서비스 - 웹 기반(Web-based) 국가도서관 서비스

리춘밍(李春明)*

1. 서 문

디지털 기술과 네트워크의 발달은 Google, Open Access, Blog, RSS, WIKI 등 새로운 정보 공유와 교류 도구의 출현과 발전을 촉진시켰다. 이용자의 정보 수요 방식 역시 기술 혁신 과정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이용자는 전통적인 도서관에서의 독자(reader)가 아니며, 스스로가 광범위한 정보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 채널- 소속기관 내부 네트워크, 검색엔진, 자신의 컴퓨터, E-scinence/E-Learning) 등 통합 정보화 환경의 중심에 서있다.

이러한 변화는 고도화된 도서관 정보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용자 정보 활동을 기본으로 한 디지털 정보환경이 필요하며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된 정보 서비스 시스템 발전과 정보서비스, 정보자료, 정보 행위에 기반한 고객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고객은 도서관의 이용자를 뜻하며 도서관 이용자가 "이동하는 목표"이라는 개념의 변화를 인식해야 한다.

'서비스 관념을 바꾸고, 서비스 영역을 넓히며 서비스 정책을 완벽하게 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수단으로 국가도서관의 서비스 책임을 전면적으로 이행하고 독자 중심, 자료를 기초로 한 학습 여건과 연구 환경을 만들며 사회 지식 전달과 정보 서비스 중추 역할을 확립해 광범위한 이용자가 여러 루트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국가도서관 서비스

* 간행물자료부 주임보 부연구관원

의 전략적 발전 방침이며, 국가도서관의 모든 서비스는 이 전략 방침을 위주로 진행된다.

웹은 국가도서관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이며 국가도서관의 홍보와 서비스를 하는 창구이다. 1997년 10월 사이트가 개설된 다음 8번에 걸쳐 재편된 후 도서관 사이트는 간단한 도서관 업무와 서비스 홍보 사이트에서 소장 자료 검색, 정보 서비스, 자료 통합, 맞춤 서비스 제공 사이트로 전환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각종 신기술을 이용해 여러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료와 서비스가 확대되어 이용자를 위한 맞춤 환경까지 구축해 국가도서관의 정보 서비스 업무가 다른 도서관과 비교해 앞서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는 중국국가도서관 웹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다.

2. 중국국가도서관 사이트 개설 이념

신기술이 발전하는 환경에서는 사고의 전환만이 국립도서관만의 특징, 전략 방침에 부합하는 웹 기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2.1 이용자 중심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것은 이용자 중심의 개방적 서비스 환경이다. 관념적으로는 전통 도서관의 '천동설'에서 이용자의 '지동설'로 전환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이용자를 중심으로 자료와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한다. 국가도서관 사이트 자료와 서비스를 만들 때는 이용자의 수요와 사용습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소장 자료 및 서비스를 발굴하고 재편해야한다.

2.2 방향성(지도-Guidance)

지식정보자원으로의 게이트웨이, 입구로서의 도서관은 훌륭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이용자를 이끌고 가이드 해야만 도서관이 갖고 있는 기능을 모두 보여줄 수 있다.

지도 원칙(가이던스)은 두 개의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콘텐츠 조직과 총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웹사이트가 안내할 수 있는 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는 보다 깊은 의미 정보를 전달해주는 것으로 도서관 웹사이트는 정보자원의 명확한 소재지를 가이드하거나 네트워크 상의 정보자원에 대한 네비게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3 상호작용성(Interaction)

웹 서비스는 이용자의 참여를 통해서 그 자체의 이니셔티브 확보 뿐 만 아니라 적극적인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가장 직접적인 상호작용 방법은 온라인 상담, 이용자 추천 도서 등 이용자 피드백을 통한 방법이다.

도서관 사이트는 도서관 네트워크 서비스의 창구로 이런 열린 코너를 통해 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서관은 이용자의 의견을 더 쉽게 알 수 있어서 이용자에게 더욱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4 특징성(그 도서관의 독특한 특징)

독자적인 특징(unique)을 가진 도서관 사이트는 다른 도서관 사이트와 구분하는 기본 사항이다. 독특한 디자인, 특색이 뚜렷한 사이트는 이용자에게 보는 즐거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서관 자체 이미지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사이트는 단지 이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을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특색 있는 자료와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다가가야 한다. 웹 사이트에 그 도서관만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도서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지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국가도서관으로서의 특색있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4 맞춤 서비스(개인화 서비스, 개인별 서비스)

맞춤 서비스는 '필요한 것을 얻는다'는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정보처리 기술의 발전은 맞춤형 서비스 실현을 지원하며, 그 중 가장 주요한 것은 맞춤 정보 주문 제작 서비스로 개인 이용자가 필요한 자료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디지털 자료 구축의 최고 목표이기도 한다.

3. 중국국가도서관 사이트 관리와 서비스 모델

국가도서관 사이트는 10년 동안 발전하면서 스스로의 조직관리 체계 제도화, 유지관리를 위한 웹 사이트 관리시스템, 정보 콘텐츠 생산, 검증, 반출, 보존 모델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형성되었다.

3.1 사이트 관리 조직구조

국가도서관 사이트의 관리팀은 국가도서관 사이트를 관리하는 최고기구로 도서관 간부, 도서관 사무실, 업무처, 국제교류처, 디지털도서관 관리처, 간행자료부, 자동화부의 관련 책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관리팀은 국가도서관 사이트의 전체 계획과 업무 지도 작업을 책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사이트 전체 계획 방안 승인, 각급 사이트 품질 심사 평가, 중요 정보 발표와 수정안 최종 심사를 책임진다. 간행자료부는 국가도서관 사이트 구축, 유지, 관리를 맡고 있는 부서로 편집장책임제를 도입해 사이트의 장기 발전 계획과 조사, 연구를 책임진다. 구체적으로는 사이트의 코너 형식을 전체적으로 디자인하고 배치하며 웹페이지를 관리하고 각 부처 웹페이지 품질과 정보 업그레이드 발표를 심사, 평가한다. 또한, 사이트 콘텐츠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제 때에 정보를 업데이트하며 사이트를 실시간 감시하고 안전을 확보한다. 이 밖에, 사이트 관련 문건의 기초, 사이트 관련 파일, 자료 보존을 책임지며 웹페이지를 제작하고 사이트 관리를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사이트 관리 시스템 설치, 운영, 보호하면서 시스템 안전을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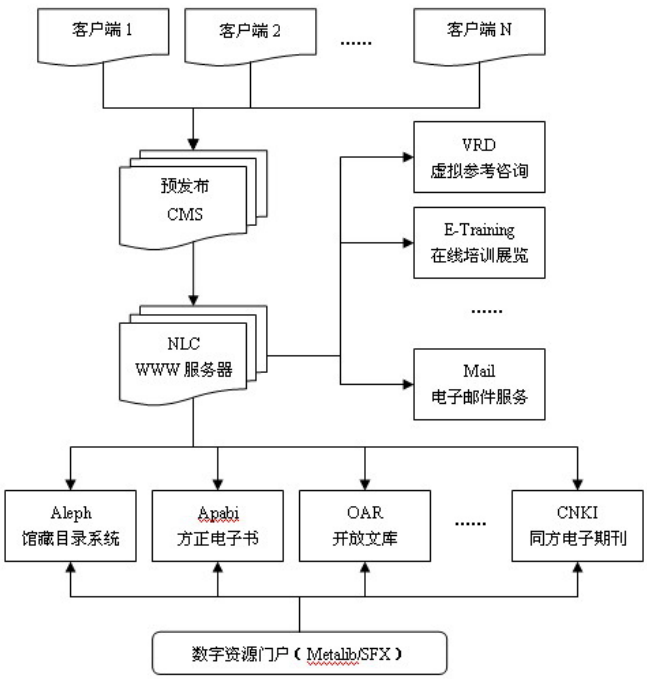
자동화부는 국가도서관 사이트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이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사이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한다. 《국가도서관 돌발사건 대응 방안》을 참고해 안전 문제를 즉시 보고, 통보한 뒤 필요한 조처를 취한다. 사이트 하드웨어 설비, 작동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 기술 지원, 유지관리 작업을 한다. 사이트 일지를 보존한다. 사이트의 데이터 통계를 내고 보고한다. 국가도서관 각급 사이트 도메인의 실시와 유지관리를 책임진다.

국가도서관 사이트 콘텐츠 구축 작업은 각 부처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각 부처가 사이트의 2급 이하 웹페이지 내용과 업데이트 정보를 간행자료부에 보내면 간행자료부가 웹사이트 제작, 심사, 발표를 한다. 내부 사이트 구축은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한다.

3.2 사이트 시스템 구조

국가도서관 사이트 시스템은 자료와 서비스 제공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웹페이지 관리 시스템 : 정보생산, 발표, 관리를 책임지며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예측발표서버 및 WWW 서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자료 시스템 : 소장자료목록검색시스템(Aleph), 전자도서시스템(예Apabi), 전자간행물시스템(CNKI), 전자논문시스템 및 소장 귀중본, 민국문헌 등 소장하고 있는 디지털화 자료 및 외부에서 구입한 전자자료가 포함된다.
(3) 서비스 시스템 : 가상참고문의시스템, 이메일 시스템 및 디지털 자료포털관리시스템이 포함된다. 그 중 디지털포털관리시스템은 디지털화자료 및 외부에서 구입한 전자 자료를 통합시켜서 SFX 서버를 통해자료와 서비스를 빈틈없이 연결한다.



〈그림1〉 사이트 시스템 구조

3.3 사이트 콘텐츠 구조

사이트의 콘텐츠 구조 관리는 중국에서 개발한 콘텐츠관리시스템(CMS)을 채택해 콘텐츠를 통일 관리, 제작, 심사, 발표하고 있다. 콘텐츠 관리 정책은 콘텐츠의 생명주기를 따라 진행한다. 콘텐츠 생명주기는 콘텐츠 설계, 콘텐츠 창작, 콘텐츠 심사, 콘텐츠 취합, 콘텐츠 발표, 콘텐츠 기한 경과 후 보존, 콘텐츠 폐기 등의 일곱 단계로 나뉜다. CMS 구조화 관리와 템플릿 기술은 정보와 템플릿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정보 표현 형식을 나타낼 수 있다.

국가도서관 사이트 콘텐츠 구조는 뉴스, 자료, 서비스, 기타와 같은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뉴 스 : 현재 국가도서관 소식(수시 업데이트), 업계 동향(매주 업데이트), 문화 초점(월~금 업데이트), 역사 속의 오늘(매일 업데이트)을 포함한 뉴스 정보를 제공한다.
(2) 자 료 : 현재 제공하는 자료는 도서관 소장 영인 자료 검색과 소개이다. 디지털 자료(데이터베이스 리스트 및 디지털 포털 두 가지 접속 방식); 자체 구축 자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 디지털화); 자료 안내(네트워크 자료 안내 및 기타 특정 제목 포함)
(3) 서비스 : 기본 서비스를 포함한다(도서관 소개, 부처 소개 등); 이용자 서비스(기본 이용자 서비스로 도서관 입관 안내, 질문모음, 문진(文津/문화지식의 나루터)이용자상 등); 문의답변 서비스(인터넷 문의코너, 문의서비스 소개, 이용자 피드백); 전문 서비스(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단계별 서비스, 업계, 기업, 농업, 임업, 과학연구, 일선 도서관 등); 교육(강좌, 전시, 훈련);
(4) 기 타 : 채용, 공고, 관련 사이트 링크 등의 내용이 있다.

4. 중국국가도서관 사이트 특수자료와 서비스

4.1 도서관 소장 자료 검색

이 서비스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등록 회원과 미등록 회원)에게 국가도서관 소장 자료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록 이용자는 온라인 예약과 대출을 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도서관 소장 자료를 검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 외에도 도서관 서가 정보, 유통정책, 서비스 시간 등을 제공한다. 또한 이용자는 전자 간행물, 전자도서, DB 등 도서관 소장 전자 자료를 검색할 수도 있다.

4.2 온라인 열람

이용자를 위해 중국고대전적, 방정 아파비(Apabi) 전자도서, 융원간행물, 영문 서적 30만 책, 박사 논문 등을 온라인상으로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국가도서관 문진도서상'은 국가도서관이 주최하는 공익 활동으로 이용자들의 심미관과 문화 소비 경향을 반영해서 일반인들의 독서 습관을 키우고 작가들이 좋은 책을 창작하고, 출판사가 좋은 책을 출판하며 독자들이 좋은 책을 읽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 상은 매년 한 차례 수여하며 한 번에 도서 10종류를 선정한다. 선정 범위는 철학, 사회, 과학, 자연과학 등 대중적인 분야로 지식을 전달하고 정서 함양과 인문, 과학 교양을 높일 수 있는 보편화된 도서이다. 선정 도서는 일반인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이 페이지는 이용자들이 선정 작업에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설된 것으로 이용자가 도서를 추천하고 책을 읽고 선정에 참여하는 페이지이다.

4.3 온라인 강좌와 온라인 전시

일반인들의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서비스 입관' 전략 중 하나로 학술강좌는 국가도서관이 사회와 대중을 대상으로 개설한 학술문화 시리즈 강좌이다. 현재 개설된 강좌는 '중국전적과 문화'와 '문진강단' 두 개 시리즈이다. 이용자는 현장에 와서 강좌를 듣거나 온라인 강좌를 들을 수도 있다.

전시는 이용자 교육과 도서관 소장 자료를 홍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중국의 우수한 고대문화 서적을 보존하기 위해 중화문화 계승자를 키워 지속적인

교육과 사회 교육의 기능을 하도록 한다. 국가도서관에서는 매년 테마 전시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시를 웹페이지를 통해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4.4 Open Access Repository

Open Access는 학술 정보를 유통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 학자와 도서관 사서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국가도서관은 과학문화 지식을 수집, 통합, 보존, 전달하는 것이 임무로 지금까지 학술 정보를 광범위하게 엑세스하고 공평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몇 년 전부터 국가도서관은 전문 연구팀을 구성해 국제 Open Access 운동의 발생과 발전 상황을 밀착 조사하고 Open Access 중국화 이론과 방법을 연구했으며 실천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Open Access Repository는 Open Access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형식 중 하나이다. Open Access 정신을 제창하기 위해 Open Access 이념을 홍보하고 중국에서의 Open Access 실천과 발전을 추진했다. 그리고 학술 정보 전달과 교류를 추진해 국가도서관이 중국에서 먼저 '중국국가도서관 정보학 개방문고'를 개통했다.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사회에 공개된 학과형 개방접근문고로, 이 문고의 개통은 전국 도서관학, 정보학, 정보관리학, 교사, 학생, 전국 도서관 사서에게 Open Access 학과 환경을 제공해 주고 실제 행동으로 Open Access 운동을 지지할 것이다. 국가도서관의 Open Access Repository는 공개 소프트웨어 Dspace를 채택해 구축한 것이다.

4.5 도서관 소장 귀중본

국가도서관은 특장 자료를 디지털화 한 후 원문 영상 DB를 제작해 이용자에게 개방하고 있다.

(1) '비첩정화(碑帖菁華)'는 탁본 DB이다. 탁본은 중화민족 문헌을 기록한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다. 국가도서관은 역대 갑골, 청동기, 석각 등의 탁본 23만 여 건을 소장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대단히 많다. 현재 이 DB는 메타데이터가 1만9천 여 개에 달하며 영상은 2만5천 개이다.
(2) '돈황 유물'은 국제돈황프로젝트(약칭 IDP)의 성과로 이 프로젝트는 돈황 문물문헌 보호, 연구 및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국제협력기구이다. 1993

년 중국국가도서관, 영국국립도서관, 뉴델리국립박물과, 프랑스국가도서관, 러시아세이트피더즈버그동방연구원, 베를린국립도서관 등 주요 돈황 문물 소장기구의 전문가와 학자들이 영국 서식스에 모여 회의를 열고 이 기구를 만들어 공동으로 돈황 유물을 보호하고 연구하는데 동의했다. 1994년 IDP가 공식 출범했으며 사무국은 대영도서관에 두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기술을 이용해 돈황 문헌의 편목 데이터, 손으로 그린 형상을 통일된 표준과 격식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인터넷을 통해 연구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인터넷에 올린 도서목록 자료는 10,773개, 두루마리 자료 500여 건, 사진 6,000여 장, 학자 파일 자료 400여 개이다.

(3) '서하쇄금(西夏碎金)'은 국가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서하 문헌 DB로 서하 문헌은 서하 불교사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DB는 서하 고서 목록 데이터 125개, 영상 데이터 5,000여 개, 서하 연구논문 1,200여 권, 서하 연구논문 원문 영상 9,700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

(4) '디지털 방지(方志)'는 읍지의 원문 DB이다. 읍지 문헌은 중국의 특수한 문헌 유형으로 우리 도서관의 특수자료 중 하나이다. 디지털 방식으로 청나라(청나라 포함) 및 그 이전의 읍지 자료를 정리, 가공, 편찬했는데 이는 중국 문화 특색을 보존, 전파, 연구,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DB에는 현재 원문 데이터 2,834개가 수록돼 있다.

(5) '민국(民國)문헌'은 민국 원년(1911년)에서 민국 38년(1949년)까지의 문헌을 말한다. 민국시기는 중국 사회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난 역사적 시기로 신해혁명, 5.4운동, 북벌전쟁, 항일전쟁, 해방전쟁을 거치는 시기이다. 민국시기는 중국 역사상 고대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전환하는 특수한 역사적 시기로 지금의 현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 시기에 나온 각종 문헌은 민국시기의 정치, 군사, 외교, 경제, 교육, 사상문화, 종교 등 각 분야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민국문헌은 2,756 종류의 민국간행물, 민국도서 6,229종류, 6,453책, 민국법률문헌 3,503편의 원문 영상자료가 있으며 이용자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볼 수 있다. 자료DB는 구축하면서 서비스한다는 원칙에 따라 문헌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충하고 있다.

4.6 동향 정보

국가도서관 사이트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동향 정보 코너를 만들었다. '역사 속의 오늘'은 매일 업데이트를 해 이용자들에게 오늘 날짜에 있었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알려준다. '국가도서관 소식'은 이용자에게 국가도서관의 최신 소식을 제공한다. '문화초점'은 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이용자에게 최신 문화 소식을 전한다. '업계동향'은 도서관 업계의 소식을 알린다.

4.7 자료 통합

국가도서관이 Metalib/SFX에 기반해 구축한 도서관 디지털자료 포털은 새롭게 출시한 도서관 소장 자료 공용 서비스 플랫폼으로 국가도서관이 소장한 여러 언어, 여러 학과, 기록재료, 자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는데 취지가 있다. 그리고 여러 곳에 분포된 형식으로 존재하는 인쇄형과 디지털화 된 정보 자료를 일반인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원스톱 검색하고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이 포털은 국가도서관이 구입하고 자체 구축한 중국어DB 40여 개, 외국어DB 70여 종류, 중국어와 외국어 전자간행물 2만여 종류, 학위논문, 회의록 자료 및 NLC_OPAC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이 자료들끼리 빈틈없이 연결되도록 했다. 이 포털 시스템은 DB간 검색, 오픈연결, 원문 보기, 주제 지정 서비스, 맞춤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포털 시스템은 Google Scholar와 연결돼 Google Scholar 이용자가 검색한 문헌을 국가도서관 소장 자료와 연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용자는 도서관 내에서 필요한 학술 문헌의 전자판 원문을 직접 열람할 수 있다. 원문 문헌 전송 요구는 할 수 없으며 사서가 문헌 전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4.8 인터넷 문의 코너

2004년 국가도서관은 CDI VRD 가상참고문의시스템을 만들어 2004년 중관춘첨단과학기술단지의 기업 서비스에 응용했고, 2006년 이용자 서비스 주간 동안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공식 개통했다. 이 시스템은 가상참고문의 서비스 형식으로 이용자가 국가도서관 소장 자료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질문과 답변 안내 서비스를 전천후로 제공한다.

2007년 7월 31일 현재, 인터넷문의 코너에서 이용자에게 실시간 문의 8,300여 건, 문자 문의 3,100여 건에 답변했으며 이용자 방문횟수 35,000여 번, 이용자 클릭 수는 96,000여 번을 기록했다. 이용자 지역 분포를 보면 허난, 장쑤, 허베이, 신장, 중칭, 광시, 상하이, 저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문의 코너 이용자 중에서 대학생 이용자 비율은 80%에 육박했는데 베이징사범대, 중국인민대, 중국정법대, 광저우의학원, 저장대학, 해방군외국어학원 등이 모두 높은 방문율을 보였다. 이는 우리 도서관 인터넷문의 코너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용자의 질문 내용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데 비교적 집중적으로 질문한 분야는 문헌 검색 방법, 도서관 서비스 정책이다. 문헌 제공과 사실확인 등의 질문양은 서비스 시작 초기보다 다소 많아졌다. 인터넷문의 코너는 1년 여 동안 운영했는데 매일 평균 실시간 문의가 20여 건이며, 문자 문의는 10여 건 정도이다.

4.9 RSS 서비스

RSS(Really Simple Syndication)는 사이트의 콘텐츠를 묘사하고 보조를 맞추는 양식으로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XML 응용이다. RSS에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기술 플랫폼을 장착하면 모든 사람이 잠재 정보 제공자가 된다. RSS 문건 발표 후, 이 RSS Feed 중에 포함된 정보는 바로 다른 플랫폼에 의해 사용될 수 있게 되었고, 이 데이터는 모두 표준 XML 양식이기 때문에 다른 단말기와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국가도서관 8번째 리뉴얼 사이트는 RSS 뉴스취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도서관 소식, 업계동향, 문화초점, 역사 속의 오늘, 강좌 정보 취합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가 자신의 열람 공간에서 국가도서관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4.10 툴바 LibX

공개 소프트웨어 툴바 LibX는 버지니아 과학기술대학(Virginia Tech university) 기술진이 개발한 것인데 이용자를 위해 국가도서관 툴바를 구축했다. 이용자들이 자료를 찾으려고 할 때 손쉽게 툴바 또는 우측키 결합 방식을 통해 자료를 이용자 웹브라우저에 집적할 수 있다. 이용자는 자신의 환경에서 편리하게 국가도서관 기능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가도서관 사이트에 등록할 필요

가 없다. LibX는 OpenURL을 지원해, LibX를 통해 우리 도서관 SFX 서버에 바로 들어가 자료를 얻고 확장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5. 결 론

새로운 정보기술 환경은 도서관 정보 서비스에 도전과 기회가 되고 있다. 기회를 잡으면 도서관과 이용자 사이의 연결고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고 도서관 사업도 더욱 발전할 것이다. 웹 기반의 중국국가도서관 서비스는 우수한 정보기술을 이용해 정보 환경의 발전 추세에 적응해 나갈 것이며 새로운 정보행위 모델 안에 있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이 분야에서 앞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경험을 배우고 여러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자료와 서비스 공유를 하고 싶다.

논문 투고 안내

1. 「도서관」에 게재되는 논문은 학술적 또는 실용적으로 도서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도서나 연속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논문의 성격은 순수학술논문, 현장실무논문, 번역논문으로 하며 현장사서의 석사 학위논문 중 우수논문의 요약 게재가 가능하다.
3. 논문의 접수는 수시로 하며, 접수일은 그 원고가 당관에 접수된 일자로 한다.
4. 논문의 게재여부는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국립중앙도서관 간행물편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논문의 게재순서는 원칙적으로 접수된 순서로 한다.
6. 투고 요령
   1) 제 출 처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운영협력과
   2) 표　　지 : 논문 제1면에 제목, 투고자의 성명 및 소속을 국·한·영문으로 표기하며,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기재한다.
   3) 초　　록 : 영문으로 작성하되, 번호를 부여하지 않는다.
   4) 원고작성 : 한글 완성형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본문의 글자크기를 11포인트, 줄간격은 160으로 하고 분량은 A4용지 20매를 한도로 한다.
   5) 논문구성 : 영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부록의 순으로 한다.
   6) 번역논문 : 번역한 논문은 번역자가 저작권에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며, 원문과 함께 저작권 허락서류를 첨부한다.
   7) 그　　림 : 그림은 이미지파일(GIF, JPG, PCX, BMP, WMF)로 제출하거나 트래이싱페이퍼 또는 백지에 깨끗이 그려서 제출한다.
   8) 참고문헌 : 가나다순과 알파벳순으로 배열하되, 한글문헌에 이어 외국문헌을 기재하고 본문의 문헌소개는 “어깨번호”로 표시한다. 그러나 중요한 문헌은 본문에 저자를 소개할 수 있다.
   9) 교정은 초교에 한하여 자자가 할 수도 있다.
   10) 별쇄를 원하는 경우 비용은 저자부담으로 필요부수를 논문표지에 붉은 색으로 표시한다.

■ 연 락 처

* 전화 : (02) 590-0636
* 팩스 : (02) 590-0546
* 주소 : (우137-70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64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운영협력과
* E-mail : sweetpea@nl.go.kr

[비매품]

도서관 제62권 제 2 호
통 권 제379호
2007년 12월 일 인쇄
2007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로 664
전 화 : (02)590-0636 팩 스 : (02)590-0546
웹사이트주소 : http://www.nl.go.kr
인쇄처 : (주)계문사

DOSEOGWAN
Vol.62 No.2
December 2007 (Bi-annual)

Publishing office :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Banpo-ro 664, Seocho-gu, Seoul, Korea
Tel.(02)590-0636 Fax.(02)590-0546